

제주학정책연구 세미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한국민요학회 공동 세미나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 일 시 : 2017. 11. 25(토) 10:00~11. 26(일) 13:30

□ 장 소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3실

□ 주 최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한국민요학회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 목적과 필요성

- 각 지방에 구술 전승되던 민요는 한국인의 삶의 정서가 잘 남아있고 문화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이미 수집된 자료이나 산재되어 있어서 영구보전이 어려움
- 제주민요를 비롯한 한국민요의 무형유산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수집된 자료를 아카이브화하는 계기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기존자료의 세계적 가치발굴로 글로벌한 현대적인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방안 모색

□ 내용

- 주 제 :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 주 관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한국민요학회
- 일 시 : 2017년 11월 25일(토)~11월 26일(일)
- 장 소 :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 발 표 자 : 한국, 중국 대학교수 및 학자 등 전문가
- 참가인원 : 학자, 일반인 등 100여명

□ 효과

- 민요의 문화 자원적 가치 발굴과 자료의 지속보전을 위한 자료 구축
- 글로벌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계기 마련

□ 프로그램

제1일차 2017. 11. 25(토)

구분		내 용
개회식	10:00~10:10	사 회 : 홍순일(한국민요학회 총무이사) · 개회사 : 조영배(한국민요학회장) · 환영사 : 강기춘(제주연구원장)
기조 발제	10:10~10:40	♠ 한국민요의 아카이브 구축과 자원화를 위한 문제의식 · 기조발제 : 강등학(강릉원주대)
제1부	10:40~12:50	제1부 : 한국민요의 자료구축과 아카이브 · 좌장 : 허남춘(제주대)
		♠ 나요당 민요자료의 아카이브 요청 (10:40~11:10) · 발표 : 이소라(민족음악연구소)/ 토론 : 김형관(중국무순직업대)
		♠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분석과 구축방안 (11:30~11:50) · 발표 : 서영숙(한남대)/ 토론 : 양영자(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휴식(11:40~11:50)
		♠ 1945년 이전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론 (11:50~12:20) · 유성기 음반 · 라디오 방송 소재 <아리랑>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선우(성균관대), 토론 : 유명희(한림대)
		♠ 제주학 아카이브와 민요자료 구축(12:20~12:50) · 발표 : 좌혜경(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토론 : 이성훈(송실대)
	12:50~13:50	사진촬영 및 오찬

구분	내 용
제2부	제2부 : 지역민요의 지속보전과 자원화 방안 · 사회 · 진행 : 좌혜경(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좌장 : 서정매(부산대)
	♣ 문화자원의 가치발굴을 위한 예능보유자 시연 (13:50~14:10) ·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보유자 김향옥 외
	♣ 아리랑의 세계적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14:10~14:40) · 발표 : 정우택 · 한진일(성균관대), 토론 : 이영식(강릉원주대)
	♣ 악구의 속성 중심의 민요 자료 창작 자원화 방안 (14:40~15:10) · 발표 : 김병오 · 장인종 (전북대), 토론 : 허정주(전북대)
	휴식(15:10~15:20)
	♣ 조선족 민요의 전승현황과 자원화 방안 (15:20~15:50) : 청주아리랑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성희(중국연변대), 토론 : 이윤정(한양대)
	♣ 조선족 민요의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15:50~16:20) :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 발표 : 강춘화(중국연변대), 토론 : 홍순일(목포대)
종합 토론	♣ 종합토론 : 주제-한국민요의 세계적 가치조명 · 좌장 : 김익두(전북대) · 토론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7:30~20:00 만찬

제2일차 2017. 11. 26(일)

	09:00~13:30	♣ 원도심 답사 (09:00~12:00) · 고영림박사(사)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오찬 및 해산 (12:00~13:30)

개 회 사

안녕하세요?

2017년 추계 전국학술대회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과 제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요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회는 다양한 발표 활동을 통하여 한국 민요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그 활용적인 가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요 현장자료들을 수합하여 왔습니다. 혹은 음향 자료로, 혹은 동영상자료로 수합된 다양한 자료들은, 전통문화자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21세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민요 및 민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어떻게 수합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요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발표하는 논문들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으로써, 발표자 개인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의 발전과 제주학연구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활성화하는데 소중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발표에 참여하여 주신 회원들과 사회와 토론을 맡아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제주학연구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는 2017년 개최하는 마지막 학회이자, 회장인 저의 임기 중의 마지막 학술대회입니다. 지금까지 학술행사의 다변화와 논문집 발간의 체계화,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집 평가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부족한 점은 저의 능력부족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그러이 보아주시고, 다음에 학회를 이끌어갈 차기회장과 차기 임원들의 노력으로, 부족한 점들이 모두 극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과 저를 도와 학회 일에 적극 나섰던 임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홍순일 총무이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학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25일

한국민요학회 회장 조 영 배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요학회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민요자료의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에 대한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한국민요학회 조영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3년 4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학 관련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재 44,000여건의 제주학 자료를 대내외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민요 영상과 구술자료 600여 편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시스템에 구축하고, 『제주민요사전』 책자를 발간하여 글로벌자원으로의 가치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외국인 학자는 제주민요를 일컬어 일본의 『만엽집』이나 중국의 『詩經』과 견주기도 했는데, 이는 제주민요가 제주인의 정체성과 제주민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집니다.

현대에 오면서 구연 환경의 변화로 민요 장르는 전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아카이브시스템 구축과 자원화에 대한 논의는 많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기조발제를 해주실 강릉원주대학교 강등학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소라 원장님의 발표, 중국 연변 상황을 발표하시는 김성희·강춘화 연변대교수님, 서영숙 한남대 교수님, 김선우·정우택·한진일 성균관대 교수님, 김병오·장인종 전북대 교수님, 토론과 좌장을 맡으신 교수님과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인의 정체성 찾는 작업과 함께, 제주문화의 가치를 발견하여 제주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한국민요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5일

제주연구원장 강 기 춘

목 차

〈기조연설〉

- 한국 민요의 아카이브 구축 및 자원화를 위한 문제의식
· 발표 : 강등학(강릉원주대학교) 11

〈제1부〉

- 나요당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에 대한 요청
· 발표 : 이소라(민족음악연구소) 27
· 토론 : 김형관(중국 무순직업대학교) 39
-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분석과 구축 방안
· 발표 : 서영숙(한남대학교) 43
· 토론 : 양영자(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63
- 1945년 이전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試論
-유성기음반 · 라디오방송 소재 〈아리랑〉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선우(성균관대학교) 67
· 토론 : 유명희(한림대학교) 90
- 제주학아카이브와 민요자료 구축
· 발표 : 좌혜경(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95
· 토론 : 이성훈(숭실대학교) 111

〈제2부〉

○ 아리랑 아카이브와 자원화

- 발표 : 정우택 · 한진일(성균관대학교) 115
- 토론 : 이영식(강릉원주대학교) 136

○ 악구와 속성 중심의 민요 자료 창작 자원화 방안

- 발표 : 장인종 · 김병오(전북대학교) 141
- 토론 : 허정주(전북대학교) 167

○ 조선족 민요의 전승현황과 자원화 방안

— ‘청주아리랑’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성희(중국연변대학교예술학원) 173
- 토론 : 이윤정(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186

○ 중국조선족 민요자료의 아카이브 현황과 구축의 필요성

—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 발표 : 강춘화(중국연변대학교) 191
- 토론 : 홍순일(목포대학교) 203

○ 종합토론

〈기조연설〉

한국 민요의 아카이브 구축 및 자원화를 위한 문제의식

강 등 학

(강릉원주대학교)

한국 민요의 아카이브 구축 및 자원화를 위한 문제의식

강등학(강릉원주대학교)

<목차>

- I. 문제제기
- II. 민요 정보 관리의 진화 내력과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필요성
- III.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기본 설계, 그 구축 대상과 범주
- IV.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제적 문제의식

I. 문제제기

1923년 6월호 『개벽』에 실린 민요관계 문건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민요연구의 역사는 94년이 된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동안 우리가 축적한 민요 자료 또한 미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있다. 특히 1980년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을 필두로 이소라, MBC 등이 전국규모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민요의 현장 정보가 풍부해진 양질의 자료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에 이러저러한 문제의식으로 각 지역의 민요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자료들도 속출하였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이제는 그 간 우리가 불러 온 민요 거의 대부분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양적 확대만큼 우리 민요의 지식과 정보의 지평이 확장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축적된 자료들을 모아 거시규모의 지식과 정보로 가공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당한 규모의 자료들이 어떠한 연대성도 지니지 못한 채 그저 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축적된 자료들이 민요 정보의 수요에 적절히 공급되기 어려웠다. 민요 정보의 수요는 민요 연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속학, 국문학 등 관련 학계, 그리고 문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각급 행정기관, 또 각급 학교의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이 모두 민요 정보의 실용적 수용자들로 존재한다.

그런가하면, 그 간 민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음원과 동영상들이 소실되거나 사장되고 있다. 민요의 녹음 조사는 1950년대 시도한 바 있다고 하지만,¹⁾ 본격적으로는

1980년대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으로부터 널리 확산되어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녹음과 함께 현장을 녹화하는 일이 늘어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요의 자료는 거의 대부분 출판을 통해 텍스트로 공급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녹음자료와 녹화자료는 일차 민요의 텍스트 정리를 위한 기록으로 요긴하게 활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의미 없이 사장되거나 소실되는 일이 흔했다. 전문 연구자의 경우에는 그것들의 관리와 보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겠지만, 기타 현장 조사에 임한 참여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한 대학의 해당학과, 연구소, 기타 단체나 기관들의 경우에는 녹음과 녹화 자료의 관리에 부실함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애써 조사한 녹음과 녹화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사장되는 것은 큰 손실이다. 그런가 하면 정리된 자료들이 산재되어 민요 정보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 또한 큰 손실이다. 축적된 민요 자료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며, 또 민요 정보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그것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민요아카이브 구축이 긴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민요아카이브가 구축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량의 민요 자료를 관리하고 보존하며, 아울러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민요 자료의 관리와 민요 자료의 활용이 동시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승문화는 그대로 이어가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오늘 삶에 활용될 자원이기도 하다. 광물이 자원으로서 기능하려면 채굴하고, 그것을 정제하여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민요아카이브가 현장에서 수집된 민요 자료를 일정한 체계로 정리하는 일은 민요 정보를 문화자원으로서 정제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민요아카이브 구축은 민요를 자원화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면 민요아카이브 구축은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 이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II. 민요 정보 관리의 진화 내력과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필요성

민요 아카이브 구축의 기본적인 목적은 민요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공급이다. 그런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공급하려는 문제의식은 일찍이 1933년 김소운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는 2375편의 민요를 모아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하고, 권말에는 각 민요 사설의 첫머리를 색인으로 작성해 놓았다.²⁾ 자료의 정리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 것이다. 이후 같은 맥락의 작업이 고정옥에 의해 진일보한 형태로 이어진다. 고정옥은 『조선민요연구』의³⁾ 저술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분류에 따라

1) 김영삼, 『제주도민요집』, 중앙문화사, 1958.(강등학, 『한국민요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21쪽.)

2) 김소운, 『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점, 1933.

3)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3. 나요당 자료의 가치

국내 녹음에 있어서는 녹음자가 민요의 장르 중에서도 일관성 있게 논매기소리에 중점을 두었던 고로 이 점에 있어서는 세계 유일의 자료이다.

또한, 1980년대에 전국을 각 읍면별로, 되도록 토박이 농민들을 찾아 고루 녹음된 자료이므로 이 점에서, 물론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한국학의 문화권 등을 일괄적으로 연구함에 있어 신빙성이 높은 최초의 자료이다.

경기도 지역을 예로 들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경기 지방(서울,인천 포함) 논매기소리의 조사자료.

(출처: MBC[한국민요 대전], [구비문학대계]의 음원자료, 민음연의 [경기도 논매소리 자료총서]제1~4권 및 서울, 인천 조사 자료.)

* 행정구역은 민음연 조사를 중심으로 편의상 조사당시의 것으로 정리하되
웅진군,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에 기입함.

도	시군	민음연 조사자료		구비문학 대계		MBC [대전]	
	합	366마을	1,081곡	18마을	61곡	20마을	30곡
서울	4촌 12곡	노원(상계5,노해1)	6				
		양천(마곡1)	1				
		서초(우면4)	4				
		은평(갈현1)	1				
인천	강화군 14촌 25곡	강화읍(관청1/대산1/남산2)	4	(남산5)	5	(남산1)	1
		교동(삼선2)	2	(삼선4)	4		
		길상(초지4)	4				
		내가(황청 1)	1	(황청1)	1		
		불은(넙성1)	1				
		선원(신정1/냉정4)	5				
		양도(도장1/삼흥2)	3				
		양사(인화1)	1				
		하점(장정3)	3				
		화도(장화1)	1	(여차4)	4		
	웅진군 14촌 27곡	대청(대청2/용천 출신1)	3				
		덕적(서포1)	1				
		백령(진촌3/남포1/가을3/연화1)	8				
		북도(장봉2/신도1)	3				
		연평(송림1)	1				
		영흥(내사5/외리1)	6				

문제의식 없이 기존 웹사이트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정보의 양적 확대와 공급방식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전산화의 측면에서는 답습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웹사이트 “한국구비문학대계”가 안고 있는 정보처리의 문제점은 한국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의 이어지는 사업 “한국민요대관 <http://yoksa.aks.ac.kr/jsp/um/Directory.jsp?gb=1>”을 통해 상당부분 극복된다. “한국민요대관”은 각 연구자들이 수집한 민요 자료를 모아서 공급한 앱이다. 연구자들의 민요 자료 처리가 각각 제각각인 점을 감안하여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노래명의 표준화를 시도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연구자마다 서로 달리 부여한 데이터 정보를 단일 기준으로 변환하여 전산화했다. 그 결과 같은 항목의 콘텐츠가 보고자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 값으로 처리되었던 자료들이 하나의 틀로 재조직 되고, 검색의 효율 또한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제는 원천자료에 제각각 다른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노래가 같으면 동일한 정보 값이 부여되어 탑재된 모든 정보를 함께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국민요대관”은 오로지 민요 정보의 관리와 공급을 위해 전산화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면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는 구비문학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에 자료는 설화와 민요를 모두 탑재하였다. 그러므로 “한국민요대관”은 전산화의 기본을 갖춘 최초의 민요 정보 전산망이자, 최초의 민요아카이브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텍스트 출판 환경에서 민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터넷 환경을 맞이하여 사이버 아카이브로 진화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요대관”이 민요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앱은 몇몇 민요학자들이 소장하고 있던 수집 자료를 모아 탑재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한국민요대관”의 민요 정보 전산화 범주는 극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요대관” 이후 이를 능가하거나 버금갈 만한 민요아카이브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요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웹페이지들이 없지 않으나, 그것들은 향토문화를 정리하거나 지자체의 자기 고장 소개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⁷⁾ 그런가하면, 아리랑만을 특화한 아카이브도 구축되어 있지만,⁸⁾ 역시 민

7) 몇몇 사례를 들면 이와 같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강원도 민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3_03_09

화순의 민요 <https://www.hwasun.go.kr/area/list.jsp?hi=100012&hn=%ED%99%94%E%99%94%EC%9D%98%20%EB%AF%BC%EC%9A%94&spage=1&page1=&page2=&t=>

영동의 민요 http://media.yd21.go.kr/_prog/fksg/?site_dvs_cd=media&menu_dvs_cd=010301

요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은 특화된 범주를 넘어서기 어렵다.

1920년대 이후 조사된 민요 자료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또 이 자료들의 미디어 형태는 텍스트, 음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하다. 그런가하면, 축적된 민요자료들의 보유와 관리의 주체는 개인 연구자로부터 유튜브 등 인터넷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제대로 추슬러 보존하고 관리하며, 동시에 두루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모와 성격의 민요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축적된 민요자료를 어느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해도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산재되어 있는 민요자료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하나의 틀로 조직하고, 이를 통해 민요정보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것이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이버민요아카이브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과 규모의 민요자료연계망 구축은 개인이나 특정단체, 또는 기관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은 국가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겠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민요 자료와 정보의 총체적 관리와 공급은 국가가 사이버민요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 정보망을 여기서는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로 부르고자 한다.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그 성격을 드러낸 명칭인데, 필요하다면 ‘국가민요정보센터’처럼 다른 명칭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가기관의 업무분장으로 보아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국립무형문화유산원의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 구축은 국립무형문화유산원이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Ⅲ.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기본 설계, 그 구축 대상과 범주

민요아카이브의 대상 범주는 분포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민요의 부류나 종류에 따라 전체적인 것과 특정한 것이 모두 가능하다. 이것들을 전국민요아카이브, 지역민요아카이브, 민요종합아카이브, 민요유별아카이브 등으로 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서로 범주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범주의 아카이브 유형을 설계할 수 있다.

8) 전통문화예술진흥재단, 아리랑 아카이브 <http://arirang.ihg.go.kr/service/index.nihg>
진용선, 아리랑 아카이브 <http://www.arirangarchive.com/>

1. 전국민요종합아카이브 : 전국에 분포하는 모든 민요 자료를 관리하고 공급한다.
2. 전국민요유별아카이브 : 전국에 분포하는 특정 부류나 종목의 민요 자료를 관리하고 공급한다.
3. 지역민요종합아카이브 : 일정 지역에 분포하는 모든 민요 자료를 관리하고 공급한다.
4. 지역민요유별아카이브 : 일정 지역에 분포하는 특정 부류나 종목의 민요 자료를 관리하고 공급한다.

기존 민요 관련 아카이브 및 민요 정보 공급 웹사이트들도 위에 제시한 민요 아카이브 유형으로 분별할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관”은 전국민요종합아카이브에 해당하고, 2개의 아리랑아카이브는 전국민요유별아카이브에 해당한다. 그리고 “강원도 민요”, “화순의 민요”, “영동의 민요” 등은 지역민요종합아카이브의 성격을 띤다. 이처럼 기존 민요 관련 아카이브들이 민요아카이브 유형에 고르게 관련되어 있음은 민요아카이브의 수요 또한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사례는 없지만, 지역민요유별아카이브도 그러한 수요는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호남지역에 강강술래아카이브, 영남지역에 어사용아카이브 등을 구축해 해당 종목의 문화적 수요에 특화된 정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요아카이브는 목적과 수요에 따라 그 설계를 달리 하며 알맞은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일정 지역이나 특정 종목의 민요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민요아카이브 유형 중 전국민요종합아카이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한국민요대관”이 그랬던 것처럼 전국에 걸쳐 조사된 기존 수집 자료를 수합하여 전산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민요대관”이 민요아카이브로서의 기본틀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 자료의 양적 빈곤으로 민요아카이브로서의 기능 수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자료 수집은 제한 없이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가 능동적으로 기존 수집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각 보유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에 자료를 탑재할 수 있는 루트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요자료를 수합하여 전산화하는 일을 직접관리라고 한다면, 사이버국가민요

아카이브는 웹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기존 사이버 민요 자료들의 정보망을 구축하는 연계관리를 또 다른 기본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연계관리를 통해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민요대관”을 비롯한 웹상에 놓여 있는 기존 민요 자료들을 하나의 틀로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직접 관리와 연계관리를 포함하면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축적된 기존 민요자료를 모두 망라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민요 정보의 국가관리시스템으로서 기능하면서 모든 민요자료를 망라하는 최상위 민요아카이브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가 민요 정보의 국가관리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료 범주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민요는 오랜 기간 맥을 이어 온 전승콘텐츠이지만, 동시에 다른 콘텐츠 생산을 위한 자료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민요 정보의 일차적 자료는 민요 자체로 존재하지만, 이차적 자료는 일차적 자료를 활용한 가공콘텐츠로 존재한다. 향토민요로 전승되다가 대중민요가 되고, 또 나운규 이후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어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 수없는 콘텐츠를 생산한 아리랑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처럼 민요는 상당부분 콘텐츠 클러스터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활용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종목일지라도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사이버민요아카이브가 민요 정보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온건히 취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전승자료 뿐만 아니라 이차적 활용자료까지 아울러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가 민요 정보를 총괄하며 민요 콘텐츠 클러스터의 정보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민요콘텐츠 클러스터의 정보를 모두 취급한 사례는 문화재청과 전통문화예술재단이 구축한 “아리랑아카이브”가 있다. 이 아카이브는 전승콘텐츠로서의 아리랑은 물론, 아리랑을 활용한 대중가요, 영화, 소설 등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 정보와 해당 지식을 정보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리랑아카이브”는 아리랑콘텐츠 클러스터의 정보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다. 이와 달리 전승콘텐츠만 취급한 “한국민요대관”의 정보 기능은 상대적으로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민요대관”은 단지 전승콘텐츠를 보여주는 역할에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직접관리와 연계관리를 통해 민요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관리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

민요아카이브는 텍스트, 음원,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양식의 미디어 콘텐츠를 취급해야 하며, 아울러 일차적 전송콘텐츠는 물론 이차적 가공콘텐츠를 포괄하여 취급해야 한다. 요컨대 민요 콘텐츠 클러스터의 정보센터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IV.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제적 문제의식

민요아카이브 구축은 실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다름 아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 공급기 지이다. 그런데 대량의 자료 관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 놓는 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민요대관”은 전산화의 기본을 갖춘 최초의 민요아카이브라고 했다. 그것은 “한국민요대관”이 연구자마다 서로 달리 부여한 데이터 정보를 단일 기준으로 가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류체계의 단일화와 노래명의 표준화를 통해 자료에 따라 정보 값을 일정하게 부여했던 것이다. 이른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요대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시도한 민요의 메타데이터 표준화는 몇몇 연구자들이 제공한 한정된 자료를 대상으로 수립한 것이다. 자료가 방대해지면, 한정된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국면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국민요대관” 메타데이터의 표준은 보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민요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 민요 자료를 거의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민요의 존재양상과 판도를 살핀 작업이 수행되었다. 필자의 저술 『한국 민요의 존재양상과 판도』가⁹⁾ 그것이다. 이 책은 가능한 자료를 많이 모은 다음, 소프트웨어 Access를 통해 민요분류의 체계를 세우고, 각 층위별 단위항목명을 표준화하여 30433편의 자료를 전산처리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류 체계에 따라 각 개체요의 분포와 정체성,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¹⁰⁾

『한국 민요의 존재양상과 판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채택한 메타데이터 표준은 현재 가장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수립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한국민요대관”의 메타데이터 표준 또한 필자의 분류체계와 노래명 표준화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한국 민요의 존재양상과 판도』의 작업은 스스로의 기존 작업을 보완한 작업

9) 강등학, 『한국민요의 존재양상과 판도』, 민속원, 2016.

10) 『한국민요의 존재양상과 판도』의 민요분류체계를 참고로 권말에 제시한다.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자료가 양적으로 크게 방대해진 바 『한국 민요의 존재양상과 판도』가 수립한 민요자료의 메타데이터 표준의 보편성도 그만큼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선례는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좋은 참고가 된다. 그런데 『한국 민요의 존재양상과 판도』는 민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수립해 그 체계와 해당 정보를 텍스트로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해당 자료들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제시된 메타데이터 표준은 전승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데이터베이스는 메타데이터 표준의 수립에 가공자료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기존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확장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요컨대 민요콘텐츠 클러스터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민요 정보의 국가관리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데이터베이스는 원칙적으로 민요콘텐츠 클러스터의 민요자료를 모두 수용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축적된 자료를 찾아내 데이터베이스에 수용하는 활동을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활동만으로 산재해 있는 민요 자료를 수습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은 실제 존재하는 관련 정보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을 통해 상사소리를 검색해보면, 동영상만 99400건이 도출되는 상황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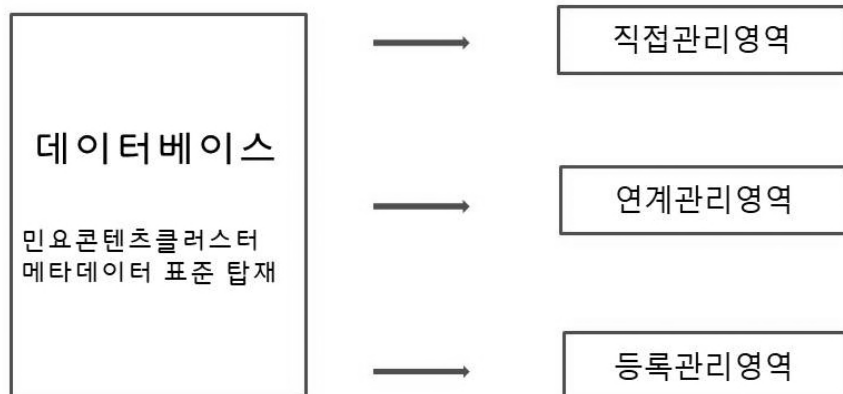
자료가 방대할수록 그것들을 수습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인력과 예산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주어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된다. 그 방안의 하나는 유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루트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민요 자료나 민요 관련 앱의 등록을 받고, 등록된 자료나 앱은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사이버 공간에서 스스로 각자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에 참여 공간을 제공하는 민요정보 플랫폼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된 자료나 앱은 ‘국가등록’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 동시에 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자료의 저장공간과 운영의 웹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는 자료의 양적 확충을 이루며, 민요콘텐츠 클러스터 정보센터로서의 기능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의 자료와 정보는 직접관리영역, 연계관리영역, 등록관리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축되며, 데이터베이스 또한 각 영역을 망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1) 2017년 11월 18일의 상황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국가민요아카이브 개념도



부록

한국 민요의 분류체계

1) 노동요

A. 농산노동요

a. 논농사요

논거름내는소리/ 논가는소리/ 논파는소리/ 농업용수품는소리/ 논고르는소리/ 논삶는소리/ 논가래질하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모심고돌아가는소리/ 모세우는소리/ 논매는소리/ 논매고돌아가는소리/ 논매고뒤풀이하는소리/ 새쫓는소리/ 벼베는소리/ 벼단묶는소리/ 벼단나르는소리/ 벼단세우는소리/ 벼집지는소리/ 벼단쌓는소리/ 벼단내리는소리/ 벼터는소리/ 기계탈곡하는소리/ 벼도리깨질하는소리/ 검불날리는소리/ 곡식말질하는소리

b. 밭농사요

밭일구는소리/ 밭거름내는소리/ 밭거름퍼는소리/ 밭가는소리/ 밭고르는소리/ 밭밟는소리/ 밭매는소리/ 보리베는소리/ 보리훅는소리/ 밭작물도리깨질하는소리

B. 수산노동요

a. 고기잡이요

배내리는소리/ 그물신는소리/ 닻감는소리/ 돛다는소리/ 샷대질하는소리/ 어부노젓는소리/ 고기모는소리/ 그물내리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 고기낚는소리/ 고기푸는소리/ 돈대질하는소리/ 고기터는소리/ 뱃간담는소리/ 어로뒤풀이하는소리/ 배올리는소리

b. 해물채취요

미역따러가는소리/ 미역신는소리/ 조개류캐러가는소리/ 조개류캐는소리/ 해녀노젓는소리/ 해녀해엄치는소리

C. 축산노동요

a. 소사육요

소떼모는소리/ 소부르는소리

b. 말사육요

말떼모는소리

D. 임산노동요

a. 원목생산요

나무베는소리/ 나무찍는소리/ 나무끌어내리는소리/ 산판목도하는소리

b. 임산물채취요

갈퀴는소리/ 갈집지는소리/ 나무하는소리/ 나무집지는소리/ 나무쪼개는소리/ 풀베는소리/ 풀집지는소리/ 풀씨는소리/ 채취뒤풀이하는소리/ 갈대베는소리/ 잣따는소리 / 나물채취하는소리

E. 공산노동요

a. 관망제조요

망건뜨는소리/ 양태뜨는소리

b. 길쌈요

삼삼는소리/ 물레질하는소리

c. 목재가공요

나무켜는소리/ 나무깎는소리/

e. 삭망제조요

그물뜨는소리/ 갈방아짙는소리/ 동아줄꼬는소리/ 줄사리는소리

d. 야장요

흙덩이바수는소리/ 풀무질하는소리/ 메질하는소리

g. 어물건조요

명태거는소리

h. 염장요

젓버무리는소리/ 젓독나르는소리

i. 용기제조요

질때리는소리

j. 잡화제조요

발엮는소리

k. 제분정미요

맷돌질하는소리/ 맷지게질하는소리/ 연자매돌리는소리/ 디딜방아짙는소리/ 매통돌리는소리/ 절구방아짙는소리

l. 제염요

염전가는소리/ 염전용수품는소리

m. 조선요

톱질하는소리/ 건조선옮기는소리

F. 토건노동요

a. 토목요

말뚝박는소리/ 독가래질하는소리/ 독다지는소리/ 공사판목도하는소리/ 흙집지는소리/ 철로노반다지는소리

b. 건축요

터가래질하는소리/ 터다지는소리/ 마당흙가는소리/ 흙이기는소리/ 흙뭉치올리는소리

G. 운수노동요

a. 수운요

강나루건너는소리/ 강배젓는소리/ 강배끄는소리/ 떼타는소리/ 떼꺼내는소리/

b. 육운요

우마차끄는소리/ 원목운반하는소리/ 연자방앗돌운반하는소리

c. 하역요

가마니메어주는소리/ 떼목도하는소리

H. 광산노동요

a. 채굴요

시추관박는소리/ 남뿔구멍뚫는소리

b. 제련요

풀무질하는소리

c. 사금채취요

세척용수품는소리

I. 상업노동요

a. 호객요

구걸하는소리/ 떡파는소리/ 약파는소리/ 엿파는소리

b. 산술요

고기말질하는소리/ 고기세는소리

J. 가사노동요

a. 살림요

바느질하는소리

b. 양육요

아기어르는소리/ 아기재우는소리

2. 의식요

A. 기원의식요

a. 안녕기원요

지신밟는소리 / 달집태우는소리/ 상량하는소리/ 서낭신맛이하는소리

b. 풍요기원요

고기부르기하는소리/ 굴부르는소리/ 나물바구니불리는소리/ 누에섬올리는소리/ 봉죽놀이하는소리/ 새미리쫓는소리
/ 잡초예방하는소리/ 타작미리하는소리

B. 벽사의식요

a. 축귀요

객귀물림하는소리

b. 축질요

감기떼는소리/ 다래끼없애는소리/ 버짐없애는소리/ 부스럼막는소리/ 안질없애는소리/ 아픈배살여주는소리/ 헛바늘
없애는소리

c. 축화요

동티없애는소리/ 주당막이하는소리

C. 제해의식요

a. 구충요

노래기없애는소리

b. 구수요

호랑이쫓는소리

c. 구파충요

뱀쫓는소리

D. 통과익요

a. 결혼요

가마메는소리

b. 수연요

잔치받는소리

c. 장례요

채비고하는소리/ 장례놀이하는소리/ 천구하는소리/ 출상하는소리/ 운상하는소리/ 묘가래질하는소리/ 묘다지는소리

3. 유희요

A. 동작유희요

a. 동작경기요

가위바위보하는소리/ 가위바위보놀이하는소리/ 꼬리따기하는소리/ 다리뽑기하는소리/ 대문놀이하는소리/ 술래잡기하는소리/ 숨바꼭질하는소리/ 씨름하는소리/ 편볼리기하는소리

b. 동작연기요

강강술래하는소리/ 기와밟기하는소리/ 너리기편지기하는소리/ 돈돌라리하는소리/ 월워리청청하는소리

B. 도구유희요

a. 도구경기요

고싸움하는소리/ 노름하는소리/ 윷놀이하는소리/ 종지놀이하는소리 / 줄다리기하는소리

b. 도구연기요

고무줄놀이하는소리/ 그네뛰는소리/ 널뛰는소리/ 줄넘기하는소리/ 팽이치기하는소리

C. 언어유희요

a. 말놀이요

단숨에외기하는소리/ 문답놀이하는소리/ 수수께끼하는소리

b. 말이음요

말꼬리잇는소리/ 말머리잇는소리

c. 말연음요

어휘연음하는소리/ 음운연음하는소리

d. 말풀이요

달풀이하는소리/ 돈풀이하는소리/ 숫자풀이하는소리/ 요일풀이하는소리/ 천자풀이하는소리/ 한글풀이하는소리/ 화투풀이하는소리

D. 놀림유희요

a. 신체놀림요

곰보놀리는소리/ 까까머리놀리는소리/ 똥보놀리는소리/ 버짐난아이놀리는소리/ 봉사놀리는소리/ 이빠진아이놀리는소리/ 입내나는아이놀리는소리/ 짱구머리놀리는소리

b. 행태놀림요

가마탄사람놀리는소리/ 겁쟁이놀리는소리/ 경기에진아이놀리는소리/ 말울기는아이놀리는소리/ 말탄사람놀리는소리 / 방정떠는아이놀리는소리/ 성난아이놀리는소리/ 오줌싸개놀리는소리/ 우는아이놀리는소리/ 코흘리개놀리는소리/ 함께노는남녀아이들놀리는소리/ 흉내쟁이놀리는소리

c. 인물놀림요

기생놀리는소리/ 나이적은삼촌놀리는소리/ 등짐장수놀리는소리/ 막동이놀리는소리/ 상주놀리는소리/ 서당아이놀리는소리/ 성씨놀리는소리/ 신랑놀리는소리/ 신랑신부놀리는소리/ 신부놀리는소리/ 양반놀리는소리/ 영감놀리는소리/ 중놀리는소리/ 친구놀리는소리/ 형놀리는소리

E. 자연물유희요

a. 잡기요

가재잡는소리/ 게잡는소리/ 나비잡는소리/ 다람쥐잡는소리/ 도마뱀잡는소리/ 매미잡는소리/ 메뚜기잡는소리/ 물고기잡는소리/ 박쥐잡는소리/ 반딧불잡는소리/ 불나방잡는소리/ 잠자리잡는소리

b. 부림요

가재부리는소리/ 고양이부리는소리/ 기러기부리는소리/ 까마귀부리는소리/ 다람쥐부리는소리/ 달팽이부리는소리/ 돈벌레부리는소리/ 말부리는소리/ 메뚜기부리는소리/ 무당벌레부리는소리/ 반딧불이부리는소리/ 방아깨비부리는소리/ 솔개부리는소리/ 이부리는소리/ 잠자리부리는소리/ 풍뎡이부리는소리/ 황새부리는소리

c. 채취놀이요

꽃가지고노는소리/ 나물뜯으며노는소리/ 도토리돌리며노는소리/ 돌배주으며노는소리/ 민들레씨날리며하는소리/ 송기뱃기며노는소리/ 입으로풀잎마는소리/ 풀뿌리문지르는소리

d. 완상요

개구리보고하는소리/ 거미보고하는소리/ 기러기보고하는소리/ 까마귀보고하는소리/ 까치보고하는소리/ 꿩꼬리보고

하는소리/ 평보고하는소리/ 메추리보고하는소리/ 별헤는소리/ 부엉이보고하는소리/ 비둘기보고하는소리/ 빠꾸기보고하는소리/ 소쩍새보고하는소리/ 제비보고하는소리/ 종달새보고하는소리/ 황새보고하는소리

F. 신비체험유형

a. 점술요

신부르는소리

b. 최면술요

춤추게하는소리

G. 생활유형

a. 상황요

날흐리면하는소리/ 놀다가가자고할때하는소리/ 놀이동무모으는소리/ 놀이판에끼어들며하는소리/ 더울때하는소리/ 말다툼말리는소리/ 말못알아들을때하는소리/ 메아리들고하는소리/ 모른다고할때하는소리/ 바람불때하는소리/ 방귀뀌며하는소리/ 방귀냄새날때하는소리/ 부딪친곳문질러주며하는소리/ 아기가똥쌌을때하는소리/ 알뜰게굴때하는소리/ 열탕에물담고그고하는소리/ 이른다고할때하는소리/ 이야기하랴할때하는소리/ 잠자리잡는것뒹방놓는소리/ 똥다뺐을때하는소리/ 추울때하는소리/ 친구와헤어지며하는소리

b. 장난요

거짓불러돌아다볼때하는소리/ 거짓으로주는체하며하는소리/ 남의귀잡아다니며하는소리/ 등맞대고엮으며하는소리/ 뛰어내릴때하는소리/ 말타기시늉하는소리/ 모래떨구며하는소리/ 미역감으며발장난하는소리/ 소꿉장난하는소리/ 어깨동무하는소리/ 장난걸음하는소리/ 지게상여놀이하는소리

c. 조절요

긁물빠는소리/ 나뭇집집게지게하는소리/ 눈티없애는소리/ 몸말리는소리/ 물맑게하는소리/ 비그치게하는소리/ 새이가는소리/ 서리한콩구으며하는소리/ 연기방향돌리는소리/ 피그치게하는소리

H. 조형유형

a. 그리기요

곰그리는소리/ 글자그리는소리/ 문어그리는소리/ 물고기그리는소리/ 사람그리는소리/ 새그리는소리/ 오리그리는소리/ 우산그리는소리/ 잠자리그리는소리/ 쥐그리는소리/ 토끼그리는소리/ 해골그리는소리/ 해바라기그리는소리

b. 만들기요

파리속파내는소리/ 돌다듬는소리/ 모래집짓는소리/ 풀각시만드는소리

I. 가창유형

a. 창곡향유요

마을곡향유하는소리/ 예인곡향유하는소리

b. 서사향유요

계모관련담말하는소리/ 부모관련담말하는소리/ 부부관련담말하는소리/ 사위관련담말하는소리/ 시집관련담말하는소리/ 신세관련담말하는소리/ 오누이관련담말하는소리/ 이성관련담말하는소리/ 일관련담말하는소리/ 처첩관련담말하는소리/ 친척관련담말하는소리/ 혼사관련담말하는소리

c. 정서향유요

가정관련정서표하는소리/ 계모관련정서표하는소리/ 부모관련정서표하는소리/ 부부관련정서표하는소리/ 사위관련정서표하는소리/ 사희관련정서표하는소리/ 살림관련정서표하는소리/ 시집관련정서표하는소리/ 유흥관련정서표하는소리/ 인생관련정서표하는소리/ 자식관련정서표하는소리/ 잔치관련정서표하는소리/ 죽음관련정서표하는소리/ 친정관련정서표하는소리/ 풍요관련정서표하는소리

d. 우스개향유요

개구리희화하는소리/ 개미희화하는소리/ 기자여성희화하는소리/ 두꺼비희화하는소리/ 땅개비희화하는소리/ 메뚜기희화하는소리/ 머느리희화하는소리/ 모기희화하는소리/ 빈궁희화하는소리/ 세태희화하는소리/ 습득행위희화하는소리/ 영감희화하는소리/ 오징어희화하는소리/ 이성관련희화하는소리/ 이희화하는소리/ 장모희화하는소리/ 장사꾼희화하는소리/ 졸음희화하는소리/ 중희화하는소리/ 쥐희화하는소리/ 진드기희화하는소리/ 패가희화하는소리/

e. 화제향유요

거미일컬어말하는소리/ 평일컬어말하는소리/ 닭일컬어말하는소리/ 담배일컬어말하는소리/ 사슴일컬어말하는소리/ 소일컬어말하는소리/ 승복일컬어말하는소리/ 장기일컬어말하는소리/ 할미꽃일컬어말하는소리

〈제1부〉
주제 : 한국 민요의 자료 구축과 아카이브

나요당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에 대한 요청

■ 발표 :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

■ 토론 : **김형관** (중국 무순직업대학교)

나요당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에 대한 요청

이소라(민족음악연구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나요당 민속 자료의 종류
3. 나요당 자료의 가치
4. 데이터 화 작업과 요청
 - 4-1. 한반도 자료.
 - 4-2. 해외자료.
5. 저작권 문제

1. 들어가는 말

요즈음 우리 사회는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인류문화도 제4차 산업혁명기에 들어섰거나 들어감을 알리며, 데이터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요당(羅謠堂)은 1984,5년도부터 본격적인 민요 녹음 작업에 들어갔다. 금년에도 부탄을 방문하는 길에 그곳 동요나 활쏘기 노래 등을 녹음하였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말랑에서는 농부들의 농요를 새로 녹음하였다. 말랑 농부의 녹음은 그 분들의 70평생 생애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봉화군의 민요들을 추가 녹음하였다.

나요당 자료에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가치 및 데이터화 작업에 있어서의 요청 등을 서술해 보려한다.

2. 나요당 민속 자료의 종류

민족음악연구소(민음연) 소장의 나요당 민속 자료로는 국내외 현장 녹음(카세트·MD·Edirol 혹은 소sony, PCM의 wav형 등), Video, 사진, 현장 기록 카드, 채보한 노트, 현지인들의 기록지, 사전 류 등 관련 서적,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의 20세기 초 인디언 민요테이프 복간 자료 일체와 캐년 레코드사(CR), Indian House 음원(IH), Smithsonian Folkways Recordings (FE)의 인디언 민요 관련 CD들, 일본 NHK(일본방송협회) 일본민요대관(CD음원 첨부)과 일본 雄山閣 발간 [일본민요 전집](CD음원 첨부), 1990년대에 구입한 중국의 음악 및 민속관계 서적들, 新疆音像出版社가 1992년에 발행한 일련의 카세트 등이 있다. 그밖에 30여년간 사용하였으나 폐물이 된 채보용 고정음 악기¹⁾ 등도 있다.

1984년 이래의 국내 농요중심 녹음은 그당시 170여개 시군의 읍면당 1개마을 이상씩 70세 전후(2017년 현재로는 100세 전후가 됨)되신 토박이 민초들을 찾아 그 읍면의 논매기소리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몇 개 마을을 탐문하여 방문 녹음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작업은 1989년 8월로써 일단락을 지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기획 있는 대로 보충녹음을 해온다.

농요 이외의 일노래, 동요, 흥민요, 의식요 등도 그 가창자가 아는 것은 원만큼 담아두고져 하였다.

1989년 8월로써 국내 녹음을 일단락 하자 일본의 모심기 노래를 파악할 필요가 생겨 1991년 7월부터 1994년의 기간에 세 차례 방문하여 이를 파악한 이후 중국의 插秧歌를 국소수민족음악학회의 도움을 얻어 1992년 ~ 1995년의 기간에 녹음 및 자료수집 여행을 하였다. 중국의 모심는 소리 이후로는 베트남, 미얀마(미찌나 등),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인도(앗삼과 남부 인도), 인도네시아(또라자, 발리, 말랑, 자카르타), 오스트랄리아 원주민,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 러시아의 알혼섬, 슬로바키아, 헝가리, 브라질, 페루(태양제 2010년도 실황 video, 아마존 원주민 노래 등) 등을 방문하고 민요를 녹음하였다. 2014년도 6월, 스페인의 Valencia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농부를 만나 대담하고 rice 박물관에서는 벼농사 관계 자료를 얻었으며, 고서점에서 [발렌시아 민요집 Cancionero Musical](995쪽)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해외 방문지역과 그 기간에 대하여는 [나요당 민요집] 참조.²⁾

1) 동아일보사의 일민 미술관에서 2017.9.15. ~ 2017.12.3 전시.

2) [나요당 민요집], 이소라, 프로방스, 2013. pp.295 ~ 297.

3. 나요당 자료의 가치

국내 녹음에 있어서는 녹음자가 민요의 장르 중에서도 일관성 있게 논매기소리에 중점을 두었던 고로 이 점에 있어서는 세계 유일의 자료이다.

또한, 1980년대에 전국을 각 읍면별로, 되도록 토박이 농민들을 찾아 고루 녹음된 자료이므로 이 점에서, 물론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한국학의 문화권 등을 일괄적으로 연구함에 있어 신빙성이 높은 최초의 자료이다.

경기도 지역을 예로 들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경기 지방(서울,인천 포함) 논매기소리의 조사자료.

(출처: MBC[한국민요 대전], [구비문학대계]의 음원자료, 민음연의 [경기도 논매소리 자료총서]제1~4권 및 서울, 인천 조사 자료.)

* 행정구역은 민음연 조사를 중심으로 편의상 조사당시의 것으로 정리하되
웅진군,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에 기입함.

도	시군	민음연 조사자료		구비문학 대계		MBC [대전]	
	합	366마을	1,081곡	18마을	61곡	20마을	30곡
서울	4촌 12곡	노원(상계5,노해1)	6				
		양천(마곡1)	1				
		서초(우면4)	4				
		은평(갈현1)	1				
인천	강화군 14촌 25곡	강화읍(관청1/대산1/남산2)	4	(남산5)	5	(남산1)	1
		교동(삼선2)	2	(삼선4)	4		
		길상(초지4)	4				
		내가(황청 1)	1	(황청1)	1		
		불은(넙성1)	1				
		선원(신정1/냉정4)	5				
		양도(도장1/삼흥2)	3				
		양사(인화1)	1				
		하점(장정3)	3				
		화도(장화1)	1	(여차4)	4		
	웅진군 14촌 27곡	대청(대청2/용천 출신1)	3				
		덕적(서포1)	1				
		백령(진촌3/남포1/가을3/연화1)	8				
		북도(장봉2/신도1)	3				
		연평(송림1)	1				
		영흥(내사5/외리1)	6				

도	시군	민음연 조사자료		구비문학 대계		MBC [대전]	
	4촌 7곡	옛 소래읍(1)	1				
		옛 영종(운소4)	4				
		옛 용유(을왕 1)	1				
		인천출신(시흥 군자동 거 주1)	1				
경기 도	가평 9촌 21곡	가평읍(금대3/산유3)	6				
		북면(목동2)	2				
		상면(임초3/상동1)	4	(상동2)	2		
		설악(선촌2)	2				
		청평(하천2)	2				
		하면(대보4/신상1)	5	(현리2)	2		
	고양 14촌 88곡	옛 벽제읍(목암1/선유1/ 성석14)	16				
		송포(대화12/법곶8)	20				
		신도(지축6/)	6				
		원당(식사15/)	15				
		일산(마두3/백석12/산향 1/일산4/)	20				
		지도(광내4/행정내4)	8				
		옛 화전(현천3)	3				
	과천 5촌 25곡	과천동(2)	2				
		과천7통 (별말5)	5				
		관문동(5)	5				
		막계동(5)	5				
		문원동(5)	5				
	광명 1촌 4곡	학운동(4)	4				
	광주군 10촌 33곡	광주읍(태전4)	4				
		남종(분원2/금사3)	5				
		도척(노곡2)	2				
		실촌(수양3)	3				
		오포(양벌5/추자5)	10				
		중부(광지월4)	4				
		초월(지월2)	2				
		퇴촌(광동3)	3				
	구리 5촌 14곡 군포 3촌 5곡	갈매동(담터3)	3				
		교문동(한다리3)	3	(3)	3		
		동구동(동창3)	3				
		사노동(두레목2)	2				
		아천동(아치울3)	3				
		둔대.속달(2)	2				
	김포 12촌 43곡	부곡(3)	3				
		김포읍(사우4)	4				
		검단(마전2/오류1)	3				
		고촌(신곡1)	1				
		대곶(약암4)	4				
		양촌(누산4)	4				

도	시군	민음연 조사자료		구비문학 대계		MBC [대전]	
		월곶(고양4/군하5)	9				
		통진(웅정4/서암7)	11				
		하성(마조3/하사4)	7				
	남양주 10촌 26곡	평내(2)	2				
		진전읍(장현3)	3				
		화도(마석우2/차산1)	3				
		별내(청학4)	4				
		수동(운수4/외방1)	5				
		와부(덕소2)	2				
		조안(송촌4)	4				
		진건(송능3)	3				
	동두천 4촌 14곡	탑동(3)	3				
		광암동(5)	5				
		지행동(4)	4				
		상봉암(2)	2				
	부천 2촌 4곡	소사(2)	2				
		약대동(2)	2				
	성남 2촌 6곡	분당(2)	2				
		북정(창말4)	4				
	수원 4촌 13곡	권선구(금곡4/고색3)	7				
		장안구(상광교3)	3				
		팔달구(이의3)	3				
	시흥 4촌 12곡	군자동(거모4)	4				
		방산동(4)	4				
		미산동(2)	2				
		안현동(2)	2				
	안산 9촌 25곡	신길동(능길3)	3				
		반월동(안골2/팔곡1)	3				
		본오동(5)	5				
		성포동(3)	3				
		수암동(3)	3				
		장하동(4)	4				
		대부동(동리3/남리1)	4				
	안성 19촌 62곡	안성읍(도기2)	2				
		고삼(신창3)	3			(신창1)	1
		공도(웅교5)	5				
		금광(상중2/현곡2/옥정3)	7				
		대덕(진현3/대농2/모산4)	9	(모산3)	3		
		미양(정동3/후평2)	5				
		보개(남풍4)	4			(남 풍 3/ 적가2)	5
		삼죽(내강6)	6				
		서운(동촌4)	4				
		양성(난실4)	4				

도	시군	민음연 조사자료		구비문학 대계		MBC [대전]	
		원곡(칠곡2/성은6)	8	(성은4)	4		
		죽산(매산3)	3	(죽산2)	2		
		일죽(화곡2)	2				
	안양 12촌 49곡	관양동(수촌4/마분6/중 촌3/이동6)	19				
		박달동(호현4)	4				
		비산동(4)	4				
		석수(일동3/화창3)	3				
		평촌동(별말4)	4				
		호계동(덕고개10/신기2/ 삼동3)	15				
	양주 18촌 58곡	광적(광적1/우고2/석우 4/효촌5)	12	(1)	1		
		남면(한산1)	1				
		백석(가업2/방성-고능7/ 웃태안4/산성2/홍죽3)	18				
		은현(용암3)	3				
		장흥(부곡4/삼하4/일영 4)	12				
		주내(유양3/광사3)	6				
		회천(옥정3/회암3)	6				
	양평 17촌 48곡	양평읍(백안2)	2				
		강상(병산2/교평6)	8				
		강하(왕창5)	5				
		개군(계전3)	3				
		단월(산음3)	3				
		서종(정배1)	1				
		양동(석곡5)	5			(매월2)	2
		양서(목왕2)	2				
	여주 13촌 35곡	옥천(아산3/이리1/삼리 1)	5				
		용문(덕촌3/다문4)	7				
		지제(지평3)	3				
		청운(갈운3/신론1)	4				
		가남(대신일리4/대신이리 2)	6				
		강천(도전2)	2				
		금사(궁리2/금사출신5)	7				
		능서(용은2)	2				
		대신(무촌2/대신출신1)	3	(도룡2)	2		
		북내(상교4/지내3)	7				
		점동(현수4/도리2)	6			(흔암1)	1
		흥천(효지2)	2				
	연천 20촌 45곡	군남(황지3/옥계1/군남 출신2)	6				
		미산(유촌5/백석2/아미 1)	8				
		백학(백령6/석장1/노곡)	8				

도	시군	민음연 조사자료		구비문학 대계		MBC [대전]	
		1)					
		신서(2)	2				
		왕징(노동2/왕징출신2)	4				
		장남(원당일리4/원당삼리3)	7				
		전곡(간파1/양호1/은대1)	3				
		중면(횡산2)	2				
		청산(궁평일리3/궁평이리2)	5				
	오산 1촌3곡	(3)	3				
	용인 16촌 50곡	구성(상하2/청덕5)	7				
		기흥읍(서천3/구갈4)	7				
		남사(완장7)	7			(아곡1)	1
		양지(일리1/오리2)	3				
		모현(매산6)	6	(매산5)	5		
		수지(상현3/신봉6)	9				
		용인읍(마평3)	3	(운학3)	3		
		원삼(사암6/원삼출신4)	10			(사암1)	1
		백암(백암4)	4			(백암1)	1
		이동(덕성4)	4				
		포곡(금여4)	4				
	의왕 1촌3곡	삼동(3)	3				
	의정부 3촌 9곡	낙양동(3)	3				
		민락동(궁촌3/본밀락3)	6				
	이천 17촌 52곡	대월(군량7/대대2/사동2)	11			(군량1)	1
		마장(장암3)	3				
		모가(진가4)	4			(송곡1)	1
		백사(내촌3)	3				
		부발(마암2)	2				
		설성(행죽3)	3			(신필1)	1
		신둔(도암2/수하3/용면5/장동2)	12				
		울면(고당3)	3				
		장호원(와현3)	3				
	파주 20촌 64곡	호법(매곡3/송갈1/유산4)	8				
		광탄(마장1/용미7)	8				
		교하(와동6)	6				
		금촌(야동2)	2				
		문산(마장이리2/마장사리1/선유4)	7			(이천2)	2
		법원(가야1/갈곡4)	5				

도	시군	민음연 조사자료		구비문학 대계		MBC [대전]	
		월룡(위전1/능산1)	2	(능산3)	3	(능산2)	2
		적성(식현1/여유지,장현8)	9				
		조리(오산1/죽원2)	3				
		탄현(금산14/대동2)	16	(금산12)	12	(금산5)	5
		파주읍(봉암1/부곡1)	2				
		파평(마산4)	4				
	평택 11촌 34곡	고덕(동청3)	3				
		서탄(금암3)	3				
		오성(숙성4/오성출신1)	5				
		옛 송탄(3)	3				
		진위(봉남6)	6				
		청북(어소2/현곡1)	3				
		팽성(평궁2)	2				
		포승(홍원6)	6			(방림1)	1
		현덕(인광 등3)	3				
	포천 30촌	가산(금현4/마산3/방축4/정교1)	12			(금현1)	1
		관인(사정1/삼울1)	2				
		군내(유교4/좌의3)	7				
	56곡	내촌(마명일리3/마명일리2/엄현3)	8				
		소흘(초가팔5/이가팔1/무봉1/이동교1)	8				
		신북(고일1/금동3/계류1)	5			(계류1)	1
		영북(운천1)	1				
		영중(거사1/양문1)	2				
		이동(연곡2/장암1)	3				
		창수(가양1/오가1/추동1)	3				
		포천읍(설운2)	2				
		화현(명덕1/지현2/화현1)	3				
	하남 5촌 16곡	감북(1)	1				
		춘궁(보고3)	3				
		하산곡(6/하산곡이리5)	11				
		정림(1)	1				
	화성 32촌 93곡	서신(전곡,궁평,매화,광평5)	5				
		남양(남양5/문호4/원천1)	10				
		동탄(반송3)	3			(석우1)	1
		마도(백곡5/청원2/해문3)	10				

도	시군	민음연 조사자료		구비문학 대계		MBC [대전]	
		매송(아목4/원리4)	8				
		봉담읍(분천2)	2				
		비봉(구포1/삼화5/유포2)	8				
		송산(천등,사강5/용포7)	12				
		양감(대양4)	4				
		우정(이화3)	3	(화수2)	2		
		장안(장안1)	1				
		정남(괘랑3/계향5/발산1)	9				
		태안(기안2/진안1/안녕3)	6				
		팔탄(구장7/가재2)	9	(구장3)	3	(구장1)	1
		향남(발안2/수직1)	3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요당 자료([경기도 논맴소리 자료 총서]4권 등)는 경기도 지방(서울, 인천 포함) 366마을에서 1,081곡을 수록하였음에 비해, 옛 정신문화원의 [구비문학대계자료]엔 18마을 61곡이, MBC의 [한국 민요대계-경기도편]에는 20마을 30곡이 게재되어 있다. 나요당 자료는 [파주민요론](첨부 CD)과 [고양민요론](첨부 CD), '하남의 민요CD' 와 '안양의 민요CD'로 음원이 일부 담아졌고, 나머지 경기 지방 카셋 280여개의 음원들은 아직 공개되어있지않다. 다만, 대전광역시나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상권(529쪽), 하권(679쪽)의 음원이 <http://wrice.kongju.ac.kr>로 공개되어 있으며, [충북 논매기소리 총서](613쪽)나 [전북 논매기소리 총서](955쪽)와 그 음원들은 시중에서도 구할 수가 있다.³⁾

[구비문학대계자료]는 일부를 www.yoksa.co.kr에서 들을 수 있다.

MBC자료는 CD가 첨부되어 있으며, 미 수록 곡도 있어 어느 시점에서의 미수록 곡 공개가 기대된다. MBC자료는 나요당 자료처럼 가창자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 지역성 연구에 도움을 주고, 신빙성을 높인다.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의하면, 광역적인 현상으로서 도작집약화는 청동기시대 중기(BC9-BC5세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하여도 큰무리가 없다.⁴⁾ 청동기시대 취락 내에 분포된 가옥 수는 소촌인 경우 10동 내외이며, 중심 취락인 촌의 경우에는 20~30여동, 많게는 60동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충청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환기는 초기 복합사회, 즉 수장사회(首長社會 chiefdom)가 등장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3) 경남 고성군의 민요 음원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 ([경남 고성군 민요집](첨부 usb).2017년)

4) 김범철, 『한국 청동기시대 水稻作과 정치경제』민속원, 2011. 20쪽, 63쪽, 226쪽.

5)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한국고고학회편- 학연문화사, 2002. 117쪽(이희준 2000, 2001)

있다.⁶⁾ 청동기시대 중기는 송국리 유형이라는 물질문화의 등장과 확산(복합적인 사회·정치적 조직의 등장과 특정 작물의 집약적 생산의 관계)의 시기로서, 수도작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시기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농요란 민중의 역사요, 해당 시군의 개성적 얼굴이다. 유사이전부터 취락을 이루고 땅에 붙박아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일노래이기 때문이다. 농요의 발생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논매기소리의 발생과 전파는 수장사회와 무관하지않다고 본다. 일반 민요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지만, 농요는 ‘민중사(史)’이기 때문에 가창자의 이력이 조사되지 않은 자료는 지역성을 논의하는 기초자료로 쓰기에 부적합하다. 토대부터 튼튼히 쌓아 올려야하기 때문이다.

나요당의 민족음악연구소(이하, 민음연) 자료에서 ‘시,군별 농요자원’이라 하면 조사 당시 해당 시,군의 토민인 거주자로부터 제보받은 농요와 타 시군 거주자로서 열살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서 살았던 가창자의 제보 농요 자원에 한정한다.⁷⁾

나요당의 농요자료에서 토민(土民)이란 토박이, 즉 그 지역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이다. 또한 A지역에서 출생하여 10세 이전에 B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1970년대 까지 살다가 다른 곳 C로 이주했다면 그의 가창농요는 원칙적으로 B지역의 것이다. 1970년대의 한반도에는 이미 제초제의 보급으로 더 이상 논매기소리를 들에서는 들을 수 없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4. 데이터 화 작업과 요청

전 세계의 문화집단에 대한 민족지들을 모아놓은 HRAF (Human Relation Area Files) 파일이 공개되고 있다. 미국 예일대학의 <http://www.yale.edu/hraf>에서 연결되나 보다. 한국에 대한 HRAF자료에는 1928년의 기록(Brunner.1928)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⁸⁾ 아시아 국가들은 A로 분류하였다 하니, 한국 분류는 AK가 되겠다.

나요당 자료의 데이터 화에도 세계적인 이러한 선행 분류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요당 자료는 소량이 아니니 만큼, 수집자 개별 Collection으로 모아짐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적 통합 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후세의 이용자도 <Nayodang> 또는 <Yisora> <Sora> <YSR> <SR>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바야흐로 현 시대는 플로렌 분자를 축구공만큼 키우면, 축구공이 지구만큼 커지는

6) 『한국 청동기시대 水稻作과 정치경제』 위의 책.232쪽.

8) 조옥라, <한국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와 HRAF> [민속기록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제37회 국립민속박물관 학술발표회 2000.8.23- , 국립민속박물관 65쪽.

효과를 바라보는 4차산업혁명 도래 시기이다.

나요당의 민음연 자료는 외국 발행처럼 그대로 소장한 채로 보이거나 들려줄 수 있는 것들과 nearly 100%의 직접 녹음·녹화 자료들이라 디지털로 음원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개별 Collection 안에서, 일반 도서관 식 보관과 열람이 요구된다. 중국 사천성 納氏族의 모심는소리의 동바문 가사같은 경우는 필자의 요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상형문자인 東巴文으로 작성되었다. 필자는 이때 다른 동바문 가사들도 여러권 구입해 왔다.

미얀마의 미찌나 자료, 인도의 앳삼 자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음킨도·헴베티 농요, 필리핀 북부의 농요, 인도네시아 농요 등도 HRAF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4-1. 한반도 자료.

① 도별로 분류한 다음, 시군별로 분류한다. 북한지역은 <북한>으로 모은 다음, 도별 분류를 한다.⁹⁾

1980년대의 시군별 분류에도 변화가 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 안에 옹진군이 포함되었고, 연기군은 신설된 세종시에 자리한다.

② 시군별 분류 뒤의 하위 분류로는 장르별 분류가 들어간다.

필자는 시군별 민요집을 집필할 때, 모찌고 심는 소리/ 논매기소리(장원질소리 포함)/ 타작요(벼타작,도리깨타작), 물품기, 나무꾼소리(목도,운재소리 등 포함), 터다짐(집터,못터다짐소리 등), 흙가래질소리 등 남성 일노래/ 밭매기, 길쌈노래, 방아짙는소리, 맷돌노래 등 여성 일노래/ 동요 내지 시집갈 무렵 처녀들의 유희요/ 일반 흥민요/ 의식요(비손, 지신밧기, 상부소리 등)을 실곤 한다.

③ 음원과 그 참고 악보를 넣고, 사진이나 해설, 동영상 등을 클릭할 수 있게 한다.

9) 제주도 자료 : 민음연 녹음의 제주민요 자료로는 1984년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민요와 북제주군 구좌면 동김녕 민요의 지정조사 작업에 참여하였던 고로 그 음원자료와 대담 자료, 1985년도의 대정읍 신평리와 하모리·조천면 조천리·애월읍 광령3리·애월읍 동귀리, 성산읍의 수산리와 신양리·서귀포시 신호동과 법환동·한경면 용수리·남원읍 하례리, 1986년도의 성산을 오조리, 1989년도의 남원읍 신례리·안덕면 덕수리·북제주군 추자도의 묵리와 신양리 및 영흥리, 1991년도의 남원읍 수망리·서귀포시 하예동·제주시 삼도2동·한림읍 동명리와 명월리·애월읍 수산리·성읍민요 보유자 조을선 보유 민요에 대한 보충녹음과 관계자들(조일수현순옥,송인선,이창순,이미생)의 보유 민요 녹음, 제주시 삼도2동, 2003년도의 가파도 가파리·구좌읍 종달리·우도·성산을 삼달리·애월읍 장전리, 2005년도의 애월읍 납읍리 등지가 있다.

4-2. 해외자료.

- ① 대륙 - 국가 별로 분류한다.
- ② 녹음 마을 또는 가창자의 소속 주(Province, 省,縣)를 밝힌 다음, Province 이름의 ABC순으로 나열한다.

5. 저작권 문제

나요당이 녹음한 국내외 자료와 집필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민족음악연구소]에 있다.
이후에는 나요당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농요단체에서 관리하여, 농요의 보존과 전승 사업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나요당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에 대한 요청」에 대한 토론문

김형관(중국 무순직업대학교)

이 글은 나요당의 민요자료 수집과 자료에 대한 저장방법(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글입니다. 먼저 토론자로서 민요음악의 전공보다 영상(방송 프로그램(교양, 다큐) 제작 프로듀서)을 직업으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아카이브란 무엇이며,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민속음악의 저장과 활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토론자의 신분으로 질문과 동시에 발표내용을 좀 더 애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위 글에 나요당의 채보(녹음)와 민속자료의 종류에서 농요, 일노래, 동요, 흥민요, 의식요 등 많은 것을 수집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84~5년부터 1989년까지 일단락 이 후 보충 녹음(작업)을 하고 계시고, 1991년부터 1995년에는 일본, 중국의 모심기 노래의 녹음과 자료 수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발표문의 들어가는 말에 요즈음 우리 사회는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인류문화도 제4차 산업 혁명기에 들어섰거나 들어감을 알리며, 데이터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그럼 아카이브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카이브란 영상과 음원을 디지털화 하여 많은 연구가와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저장 시스템으로 후손과 후배들이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과 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의 아카이브에 대한 발표문에는 선생님들의 개인의 입장과 개인의 소유 자료 찾기와 보관 방법에 대하여서만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채보하고, 발굴하고, 음원의 저장 방법은 선생님을 위한 것이지만 아카이브란 나 혼자가 아닌 대중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선생님의 저장 방법에서는 단계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나요당 민속자료의 종류에서 선생님은 국내외 수집과정과 채보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요당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에 대한 요청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사용 요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 자료 사용 시 매체별, 장르별 찾는 방법과 나요당 민요 찾기 아카이브 문제에서 매체별, 장르별 찾기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구분, 연도별, 지역별(각 시도, 군, 면별), 국가별(가나다순), 출판사별, 제작사별, 민요의 중요 단어별 나요

당 검색어 찾기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박물관, 학교 도서관에서도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바로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1) “한국방송(KBS KOBIS)” - 아카이브 Archive / 비디오 아카이브/ 방송콘텐츠 통합 검색/ KBS도서관/지역방송/지역 영상/아카이브 추천검색(ilike)/인물정보/지역음반 등 되어 있으며 검색어에서는 이름, 년월일, 지역, 주요단어, 전방적인 소개 등

예2) 최상일 국장의 “우리소리 연구소” 사이트
전체보기/ 민요박물관(13)/ 민요이야기(2)/ 민요특강(85)/ 국악 이야기(10)/ 세계의 전통 음악(29)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의 해외 자료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매우 잘 되어 있어, 박물관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장르별, 분야별 내용이 자료 데이터가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일부는 데이터를 찾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며, 외국의 자료를 찾는다고 해도 가창자의 이름과 지역의 검색어가 부족한 것(틀린 내용)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민족음악연구소의 음원 찾기와 오늘의 발표문에서 나요당 민속자료화 작업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저작권 문제입니다. 현재 모든 음원에 대한 저작권과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박물관과 개인 소장 자료(사이트)는 물론이고 방송용 자료(비디오, 음원, 사진)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시는 것은 음원과 비디오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비디오 경우 시간당 3,42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독일 등 외국의 가격(평균 4,000원~10,000원 이상까지)보다 적지만 적발되었을 시 학교, 교수(교사), 학생(대학원생부터 유치원생)까지 모두 저작권법에 걸려 사용료를 지불한 학교와 선생님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이 있기에 민요학회에서도 선생님들의 발표 내용과 논문집에 대한 대책이 필요로 한데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요당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에 대한 요청」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연구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부〉
주제 : 한국 민요의 자료 구축과 아카이브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분석과 구축 방안

■ 발표 : 서영숙 (한남대학교)

■ 토론 : 양영자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분석과 구축 방안

서영숙(한남대학교)

<목차>

1. 머리말
2. 한국 및 외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분석
 - 2.1.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 2.2. 영·미·유럽 발라드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3.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21세기는 디지털 정보 시대이다. 거의 모든 지식 정보가 디지털화하여, 디지털로 생산하고 디지털로 수용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인문학 자원과 정보 역시 디지털 기술과 융합, 가공됨으로써, 인문학 정보를 필요로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유비노마드(ubi-nomad) 족이 늘어남으로써,¹⁾ 구비문학의 자원 역시 이에 맞추어 디지털화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요의 수집과 채록은 근대 이후 엽필진의 『조선동요집』(1924), 김소운의 『조선구전민요집』(1933) 등을 필두로 선각적인 개인 연구자들에 이루어져오다가, 1971년 이후 10여 년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전국적인 민속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중의 일부가 각 지역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 민요편으로 수록되었으나 본격적인 민요 조사는 아니어서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²⁾ 이후 198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구비

1)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을 말한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기만 하면 최첨단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미래의 정보통신환경을 일컫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에 세계 각국을 자유로이 오간다는 노마드(nomad)를 합성한 용어이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3559&cid=40942&categoryId=31630>

2) 민요의 수집과 민요집 간행에 대해서는 임동권, 『한국민요연구』, 이우출판사, 1980, 53~62쪽; 조동일,

문학대계』 조사 사업을 통해 9,000편이 넘는 민요가 조사, 채록되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아직까지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대로 집대성되지 못하고 있어, 민요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이미 절판이 되어버린 오래된 자료집을 어렵게 뒤적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구비문학대계』 1차 조사 사업에서 채록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한국구비문학대계』 2차 증보사업에 포함돼 그 원문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서비스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민요 자료를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텍스트와 음원을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료가 지닌 내적 외적 요소들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배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민요 중 이야기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서사민요를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질이 떨어지거나 흩어져 일부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 이용,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³⁾ 서사민요를 비롯한 전통 구비전승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 글에서 민요 자료 중 우선적으로 서사민요(Narrative Song)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서사민요가 다른 민요 장르와 달리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민요들이 대부분 뚜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분류한 뒤 다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그 소속과 특질을 분명히 파악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비교적 용이한 반면, 서사민요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도 하고, 뚜렷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도 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분류 체계와 분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는 서사민요가 이야기와 노래라는 두 가지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각편에 따라 다양한 장르적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연구는 차후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 갈래와 서정적, 교술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노래 갈래 모두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방향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분석 연구의 대상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주 자료로 삼고, 『한국민요대전』과 필자 및 조동일의 자료를 보조 자료로 삼는다.⁴⁾

「민요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174~190쪽 참조.

3) 이남희, 「‘인문학 디지털아카이브’ 전망과 과제: 구축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6, 2013, 193쪽.

4) 『한국구비문학대계』(총8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민요대전』(총9권), (주)문화방송, 1993~1996;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역락, 2009; 조동일, 『서사민요 연

2. 한국 및 영미 유럽 서사민요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모색하기에 앞서 국내 및 해외의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어떤 방식으로 검색, 활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방향을 잡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1.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국내에서 서사민요를 포함한 민요 디지털 아카이브는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민요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민요를 포함하고 있는 아카이브는 국악 아카이브, 제주학 아카이브, 한국 유성기음반, 국악음반박물관 등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⁵⁾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어 그중 민요 중심의 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jsp/ur/Directory.jsp?gb=3>)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는 현재 국내에서 한국 민요를 포함한 구비문학 아카이브 중 가장 방대한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여기에는 현재 총 9,263편(본인이 산정한 것임)의 민요 중 대략 1,667편(본인 추산)의 서사민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또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증보사업의 일환으로 웹(<https://gubi.aks.ac.kr/web/Default.asp>)으로도 구축되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아카이브에서는 민요를 기능에 따라 노동요, 유희요, 의식요, 비기능요, 미분류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노동요(1,655편) - 길쌈 325편, 농업 728편, 벌채 153편, 어업 26편, 잡역 337편, 제분 86편

유희요(617편) - 경기 90편, 세시 173편, 언어 190편, 조형 23편, 풍소 141편

의식요(345편) - 세시 88편, 신앙 30편, 장례 227편

비기능요(2,341편)

미분류(4,305편)

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0 초판 1979 증보판.

5) 김정수, 「민요박물관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2016, 93~94쪽.

여기에서 보면 분류된 4,958편 중 비기능요가 2,341편으로 47.2%에 다다르고 있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민요가 비기능요로 처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사민요는 대부분 일정한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아 비기능요로 취급되므로, 아예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필요한 서사민요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제목이나 제보자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료 내 어휘 검색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해당 어휘를 지니고 있는 수많은 자료가 함께 제시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서사민요의 경우, 민요의 기능에 의한 분류와는 별도로 그 서사적 내용과 특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사민요 개별 각편들이 지닌 서사적 요소들을 찾아내 검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제주학 아카이브(<http://www.jst.re.kr/>)

제주학 아카이브는 제주학에 관련된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그중 민요는 분야별 정보 중 예술 분야 아래 음악으로 분류되어 총 759건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컴퓨터를 통해 직접 음원을 감상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다시 제목, 주제, 유형, 저자명, 소장처, 연도로 구별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각기 주제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있는지 등의 하위분류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검색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제목 검색의 경우, 해녀 노래라고 칠 경우 0건, 노젓는 소리라고 칠 경우 1건만이 검색되어 노래 제목을 어떻게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주제 검색의 경우 또한 무작위적으로 사랑, 이별, 죽음 등을 쳐보니 여러 건이 검색되나, 그 외에 어떤 주제를 쳐봐야 할지가 막연하다. 유형 검색의 경우도 방아소리, 땃돌방아노래를 입력해보자 모두 0건으로 나와, 어떤 방식으로 유형을 분류해 놓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제주도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구축하고 검색시스템을 마련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심도가 잘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보다 유용한 검색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 제목을 쳐도 모두 검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노래명 시소러스 작업이 필요하며, 주제 검색과 유형 검색의 경우 주제 리스트나 유형분류 카테고리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3) 국악아카이브(<http://archive.gugak.go.kr/ArchivePortal/index.jsp>)

국악아카이브는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및 창작국악에 이르는 국악자원을 탑재하고 있는데, 주로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하는 공연·연구·교육활동의 결과물과 민간의 자료를 망라하여 생산·수집한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자료 등 28만 여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민요의 경우 민속악의 하위분류로 총 834점의 관련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민요의 체계적 수집이나 조사에 의한 자료가 아니라, 대부분 공연영

상을 비롯해 서적 등 다양한 자료 등이 망라되어 있어, 민요 자체를 검색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리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분야별 자료의 특징에 따른 좀 더 상세한 하위분류가 필요하다.

4) 아리랑 아카이브(<http://www.arirangarchive.com/>)

아리랑 아카이브는 2만여 점의 아리랑관련 음원과 음반, 영상, 필름, 도서, 관련 자료를 분야별로 갖추고 있다. 그중에는 아리랑 관련 음원 200여점, 음반 3,000여점, 필름 15,000여점, 도서 6,000여권, 생활사 자료 1,000여점 등 약 20,000권(점)의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아리랑연구소가 25년 전부터 정선, 진도, 밀양, 문경, 영천, 대구, 인천 등 국내와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 해외에서 녹음한 음원을 주제별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 음원이나 음반 등을 이용자들이 디지털로 직접 감상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디지털화 작업이 요구된다.

5) 한국 유성기음반 (<http://www.78archive.net/v2>)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으로 제작한 아카이브로 1945년 이전에 출시된 음반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디지털로 제공하고 있다. 노랫말, 문헌, 음원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됐으나, 저작권 문제로 기사 자료 외에는 효율적인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음반에 표준화명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노래 제목, 노랫말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점은 저작권이 해결됐을 경우 매우 유용한 디지털 검색 시스템이 되리라 본다.

6) 국악음반박물관(<http://www.hearkorea.com/>)

1896~2016년 120년간의 국악 음반 95% 등 국악음반박물관이 수집 관리한 자료 63000종(세부 분류:20만점)의 DB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축된 국악 DB에 대한 정보 검색을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요의 경우 유형별, 내용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음원도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7)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http://archive.ntok.go.kr>)

국립극장 등에서 공연된 작품을 분류유형, 자료유형, 공연단체, 디렉토리 검색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에 대한 복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디렉토리 검색은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의 유형별 분류를 해놓은 것이나, 음악에서 서양음악, 한국음악, 세계민속음악 등 매우 범박한 분류만 해놓고 있어

서 자료의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공연의 영상이나 음향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감상이 불가능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2.2. 영·미·유럽 발라드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영·미·유럽 발라드의 한국 서사민요와는 달리 아카이브 구축이 개인 소장자, 박물관, 학교,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주관기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는 발라드가 16세기 이전부터 민중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구비전승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발라드를 종이에 인쇄해 판매한 브로드사이드 발라드 역시 활발하게 유통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구비전승되는 발라드를 현지 조사하는 작업이 여러 민요수집가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이들 발라드를 채록한 다수의 발라드집의 수집과 정리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근래에 와서 발라드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늘어나면서 발라드 자료를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검색하고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된 것은 발라드 연구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발라드 아카이브 중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발라드 디지털 아카이브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1) English Broadside Ballads Archive (<https://ebba.english.ucsb.edu/>)

영국 브로드사이드 발라드 아카이브(EBBA)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의 영어학과의 초기 근대 센터(the Early Modern Center in the English Department)에서 구축한 아카이브이다. 2017년 11월 현재 현존하는 17세기 발라드 중 69.1%에 달하는 7255편의 발라드 자료를 원본의 이미지와 함께 전사한 텍스트 파일, 음원 파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 검색 엔진에는 찾고자 하는 발라드의 제목이나 첫 행 등을 검색 엔진에 입력하면 해당되는 자료의 이미지, 텍스트, 음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목에 Barbara Allen을 해당 유형의 자료가 여러 편 뜨며, 그중 한 자료를 클릭해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그 자료의 이미지, 텍스트, 음원 등 다양한 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상세 검색란에는 각 발라드의 주제 분류를 통해 한정된 키워드를 제공함으로써 키워드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공하고 있는 키워드는 총 52개이며 이들의 복합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키워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BBA ID: 31228 - UCSB

ebba.english.ucsb.edu/ballad/31228/ci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English Broadside Ballad Archive

BALLAD SEARCH Citation Album Facsimile Ballad Sheet Facsimile Facsimile Transcription Text Transcription Recording

Advanced Search Search

ARCHIVE AREAS

- Home
- About Us
- Features
- Holdings
- Resources
- Use Policy
- Visualizations
- Contact Us
- Early Modern Center

EBBA ID: 31228

British Library - Roxburghe 3.522-523

BARBARA ALLEN's Cruelty; / OR, THE / Young Man's TRAGEDY.	
Date Published	1750?
Author	
Standard Tune	Barbara Allen
Imprint	
License	
Collection	British Library - Roxburghe
Pages	3.522, 3.523
Location	British Library
Shelfmark	C.20.f.9.522-523
ESTC ID	T21370
Keyword Categories	• affliction/ health • death • love
MARC Record	Click to View MARC-XML
Additional Information	
Part 1	
Title	BARBARA ALLEN's Cruelty; / OR, THE / Young Man's TRAGEDY.
Tune Imprint	
First Lines	IN Scarlet Town where I was bound, / There was a fair maid dwelling,
Refrain	And her name it was Barbara Allen [with variation] Young man I think you are dying. [with variation]
Condition	
Ornament	

- | | | |
|--|---|--|
| ☐ advice | ☐ gender | ☐ religious concepts |
| ☐ affliction/ health | ☐ holidays/ seasons | ☐ religious figures |
| ☐ alcohol | ☐ infidelity | ☐ religious groups |
| ☐ Americas | ☐ labor/ craft | ☐ royalty |
| ☐ animals/ nature | ☐ law | ☐ rural life |
| ☐ Bible/ biblical figures | ☐ London | ☐ servitude |
| ☐ buildings/ architecture | ☐ love | ☐ sex/ sexuality |
| ☐ catastrophe | ☐ maritime | ☐ supernatural/ magic |
| ☐ children | ☐ marriage | ☐ travel |
| ☐ class | ☐ military/ war | ☐ trickery/ deceit |
| ☐ clothing/ appearance | ☐ monstrosity | ☐ urban life |
| ☐ country/ nation | ☐ mythology/ Classical | ☐ vice |
| ☐ crime | ☐ news | ☐ violence |
| ☐ death | ☐ nobility/ court | ☐ virtue |

- | | | |
|--|---|---------------------------------------|
| ☐ economics/ commerce | ☐ politics/ government | ☐ vulgar humor |
| ☐ entertainments | ☐ procreation | ☐ youth/ age |
| ☐ family | ☐ punishment | |
| ☐ folklore | ☐ race/ ethnicity | |

또한 자료 제공자가 만든 다른 유형분류가 있을 경우 자료에 따른 멀티 검색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자료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단 발라드 아카이브 자체가 문헌으로 수록된 발라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구비 전승되어 오는 발라드의 생생한 음원을 접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2) Broadside Ballads Online(<http://ballads.bodleian.ox.ac.uk/>)

영국 옥스퍼드대학 보들레이안 도서관(the Bodleian Libraries)에서 제공하고 있는 브로드사이드 발라드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인쇄된 발라드 시트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EBBA 와 the English Folk Dance and Song Society에서 제공하고 있는 루드 브로드사이드 인덱스(the Roud Broadside Index)와도 연계돼 함께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노래 제목, 첫 행, 주제, 작가, 출판자 등에 의해 상세 검색이 가능하며, 주제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큰 항목 아래 다시 세부 항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찾고 싶은 주제를 클릭해 들어가 해당되는 노래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종교, 마법, 천문(Religion, magic, and astrology : 303 headings)

자연, 시간, 천상의 존재(Nature, Time, and heavenly bodies : 65 headings)

식물, 동물, 풍경, 기후(Plants, animals, landscapes and the weather: 392 headings)

인간(Human beings : 735 headings)

주거, 음식, 의류(Housing, food and fashion : 476 headings)

가족, 혼인, 장례(Families, marriage and burial : 186 headings)

여가 및 오락(Recreations and amusements : 252 headings)

국가, 법, 정치(The state, law and political life : 245 headings)

전쟁, 군인, 무기(War, military personnel and weapons : 176 headings)

사회, 경제, 교통, 통신(Society, economic life, transport and communication : 398 headings)

기술, 산업, 기계, 노동자(Craft and industry; machines and workers : 232 headings)

예술, 건축, 음악, 지식(Art, architecture, music and learning : 312 headings)

우화, 상징(Allegories and emblems : 66 headings)

역사, 역사적 인물(History and historical persons : 334 hea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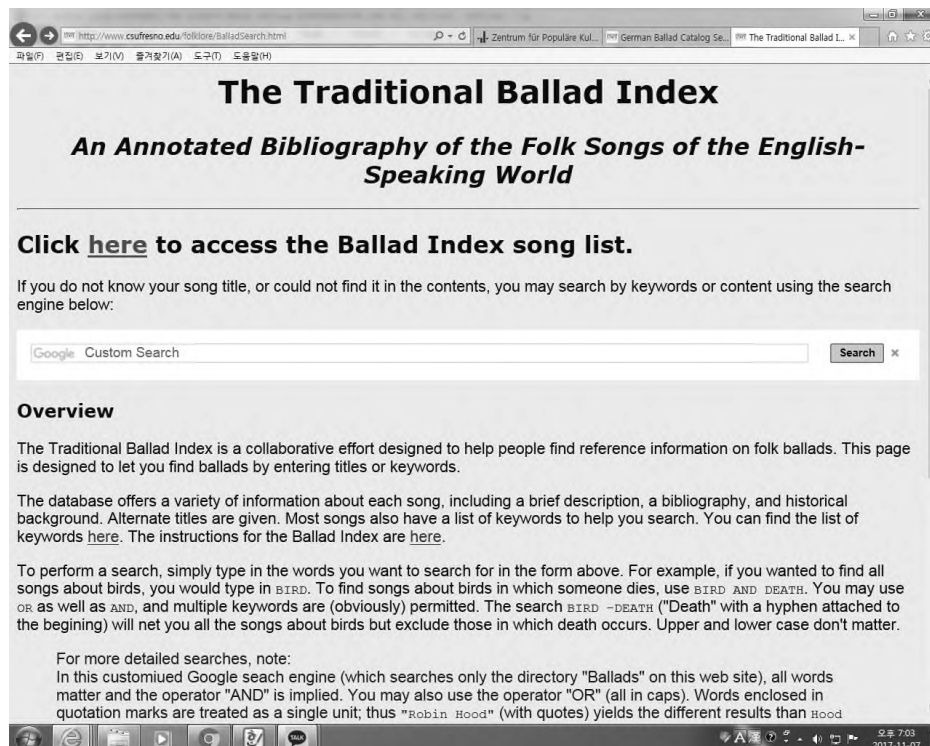
성경(The Bible : 229 headings)

문학, 문학적 인물, 속담(Literature, literary characters and proverbs : 127 headings)

고대 신화, 고대 역사(Classical mythology and ancient history : 130 headings)

이 아카이브는 발라드의 주제를 이와 같이 세분해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검색 결과가 브로드사이드 이미지만을 제공하고 워드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고체의 영자를 알아보기 어렵거나 이미지가 흐릿한 경우가 많아 효용성이 떨어진다. 워드로 전사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EBBA의 아카이브 방식이 원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제 키워드 검색에서 AND나 OR 검색이 가능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판단된다.

3) The Traditional Ballad Index: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Folk Song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http://www.csufresno.edu/folklore/BalladSearch.html>)



영어로 이루어진 전통 발라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프레즈노에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각 발라드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개요뿐만 아니라, 제목의 이칭, 주제어, 역사적 배경,

해당 발라드에 대한 연구 논문, 기사, 음원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검색의 편의를 위해 발라드의 주제, 노래 유형, 인물 유형 등 키워드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그 키워드를 지니고 있는 관련 발라드를 함께 검색할 수 있게 한 점은 매우 유용한 검색 조건으로 이용할 만하다.

발라드의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 검색자들은 주제, 노래 유형, 인물 유형 등으로 검색 조건을 결합함으로써 요구 조건에 근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검색자들은 이 키워드들을 And, Or, Without(-) 조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발라드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아카이브에서 특히 노래에 대한 개요 및 노래가 나오는 각종 문헌, 주제어 등을 제시하고, 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참고문헌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은 이를 단순한 아카이브가 아니라 학술적 연구 리뷰 수준에 이르고 있어, 발라드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실제 검색창에 영미 발라드 중 매우 많은 각편이 전승되고 있는 발라드의 제목 Barbara Allen을 입력하거나, 키워드 love and death를 입력했을 경우 No Result로 나오고 있어, 검색 엔진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검색자가 일일이 노래 제목 리스트나 키워드 리스트를 참조해 정확한 검색어를 치지 않을 경우 바라는 결과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들 주제의 카테고리나 유형 분류를 검색창에 제시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래 제목으로 검색할 때 제목의 일부분이나 다르게 불리는 제목을 입력했을 경우에도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 시소러스 작업이 필요하다.

4) The Dutch Song Database(<http://www.liederenbank.nl/index.php?lan=e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메르텐스 연구소(the Meertens Institute)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중세(13세기부터 20세기 초기)에 이르는 170,000편 이상의 노래에 대한 기록을 네덜란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종이에 기록되거나 녹음된 구비전승 민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천편에 이르는 노래의 전체 텍스트, 7,000편에 이르는 현장 녹음 원본(mp3 파일)과 악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래 검색은 텍스트에 나오는 단어, 노래 제목, 첫 행, 작가(구연자), 장르 키워드, 노래 형식, 악조, 소스(출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 연구기관에 의해 전국 모든 노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전체 텍스트와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주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노래의 내용이나 주제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점, 영어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기는 하나 텍스트에 대한 영어 번역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5) German Ballad Catalog or the German Folksong Archive
(<http://www.fresnostate.edu/folklore/balladenindex/balladsearch.php>)

German Ballad Catalog Search Page

- Select the Themes and Dramatis Personae from the pull down menus below.
- Refer to the List of Themes and Roles to learn more about the search criteria.
- The "add" button allows you select more than one Theme or Role from a particular menu.
- Once you have added up and reviewed your search criteria, conduct your search with the "Find" button on the new page.
- Or alternatively use the "Advanced Search" below to search directly for Themes, Roles, ballad titles or their call numbers at the [German Folksong Archive](#) (Deutsches Volksliedarchiv or "DVA")

Standard Search:

OFFERS, REQUESTS, DEMANDS Seduction & Courtship I (among lovers) [110]	OBLIGATIONS, COMMITMENTS, EXPECTATIONS None	DEPARTURES, QUESTS None
CONTESTS Verbal Contests [410]	TRUE ACCOUNTS, ORDEALS, ADVERSITY None	DEATH AND DISASTER None
SOCIAL EVENTS None	DISCOVERIES, INFORMATION AND CONNECTIONS None	JUSTICE None
METAPHORICAL NARRATIVES None	ROLE RELATIONSHIPS among the ACTORS None	

Add Reset

Your current search criteria:
,110,410

Find Reset

The Traditional Ballad Index를 구축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프레сно에서 개발한 독일 발라드 카탈로그이다. 특히 David Gray Engle이 연구한 서사단위(the narrative units)에 의해 검색 창을 설계해, 찾고자 하는 발라드의 주제와 인물의 역할을 조합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제와 인물의 역할 리스트를 참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문을 덧붙이고 있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dd” 버튼을 활용해 다양한 주제와 인물의 역할을 더해서 검색하면 훨씬 더 의도에 가까운 발라드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외에도 발라드 제목이나 the German Folksong Archive (i.e., Deutsches Volksliedarchiv or "DVA")에서 부여한 기호 등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서사적 주제와 인물의 역할에 의한 발라드 검색 메뉴를 마련한 것은 개별 발라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참조할 만하다. 서사적 주제와 역할 관계의 큰 항목들을 영어로 들면 다음과 같다.

Ballad Themes and Role Relationships:100 OFFERS, REQUESTS, DEMANDS, 200 OBLIGATIONS, COMMITMENTS, EXPECTATIONS, 300 DEPARTURES, QUESTS, 400 CONTESTS, 500 JOURNALISTIC ACCOUNTS, ORDEALS, ADVERSITY, 600 DEATH AND DISASTER, 700 SOCIAL EVENTS, 800 DISCOVERIES, INFORMATION AND CONNECTIONS, 900 JUSTICE, 000 METAPHORICAL NARRATIVES]

ROLE RELATIONSHIPS among the ACTORS: Lovers, Family, Occupational & Economic Figures, Institutional Figures, Victims (and Helpers and Wrongdoers), Religious and Supernatural Figures, Animals, Natural Things (Plants, Stars, Streams, etc.), Contestants, Gratuitous Figures

이 아카이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라드 주제별 분류 시스템은 1965년 독일 프라이버그(Freiburg)에서 열린 KfV(the Kommission für Volksdichtung)의 국제발라드학회에서 유럽 발라드의 각 국가별 전승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발라드와의 연관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주제 분류 인덱스를 만들자고 하는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검색 시스템은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영어 검색이 가능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독일어 검색 결과만 나오고 있다. 더 많은 이용자를 위해 영어 검색 시스템의 구동과 독일 발라드의 영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6) F.J.Child Ballad E-text (<http://www.sacred-texts.com/neu/eng/child/>)

영미 발라드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Francis James Child의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s(1882-1898) 전5권의 텍스트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s는 하바드대학 영어과 교수였던 차일드가 19세기 말 영미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발라드를 수집하여 편찬한 책으로서, 현장 조사보다는 발라드를 받아 적은 사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발라드 구전 자료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어권 발라드 연구에서 중요한 기본 텍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차일드는 수집한 발라드를 30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슷한 각편들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를 다시 8가지 부류로 구분함으로써 명확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발라드의 분류를 염두에 두었다고 판단된다. 차일드가 부여한 발라드 번호는 지금까지도 발라드 학자들에게 각 유형에 부여된 고유 번호처럼 이용되고 있다. 차일드가 구분해 편집한 초판(1860) 8권에 나뉘어 수록된 발라드 부류는 다음과 같다.

1권: 다양한 종류의 신앙 발라드(Superstitions of various kinds,--as of

Fairies, Elves, Water-spirits, Enchantment, and Ghostly Apparitions; and also some Legends of Popular Heroes.)

2권: 비극적 애정 발라드(Tragic Love-ballads.)

3권: 기타 애정 발라드(other Tragic Ballads.)

4권: 비극적이지 않은 애정 발라드(Love-ballads not Tragic.)

5권: 로빈후드 관련 발라드(Ballads of Robin Hood, his followers, and compeers.)

6권: 기타 일탈자 발라드(Ballads of other Outlaws, especially Border Outlaws, of Border Forays, Feuds, &c.)

7권: 역사적 발라드(Historical Ballads, or those relating to public characters or events.)

8권: 가벼운 소재, 유머, 풍자 발라드 등 기타(Miscellaneous Ballads, especially Humorous, Satirical, Burlesque; also some specimens of the Moral and Scriptural, and all such pieces as had been overlooked in arranging the earlier volumes.)

차일드 발라드의 텍스트 전체가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나 일반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중요한 기본 텍스트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디지털 검색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 의아스럽다. 이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어느 정도는 진척되어 책자로는 내용 개요 및 주제어 리스트를 담고 있는 Motif Index of the Child Ballad Corpus가 구축이 되었으나,⁶⁾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각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학적,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좀 더 섬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7) Philippine Epics and Ballads Archive (<http://epics.ateneo.edu/epics/>)

영·미·유럽 지역 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구전 서사민요를 아카이브화한 Philippine Epics and Ballads Archive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6개 지방어로 이루어진 필리핀 서사시와 발라드 아카이브로서, Ateneo de Manila University에서 구축한 것이다. 필리핀 지방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위한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love를 입력해 검색하니, 영어로 번역된 서사시 버전 한 편이 검색 결과로 나왔다. Family, Marriage 등을 입력했을 때에는 필리핀 관련 민속에 대한 영어 논문의 pdf 파일이 검색 결과로 나왔다. 이로 보아 서사시와 발라드 관련 다양한 자료가 아카이브화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검색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아쉽다. 비영어권 지역 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검색 방법에 관한 영어 설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영역을 통해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Natascha Würzbach, Simone M. Salz, *Motif Index of the Child Corpus: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3.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방안

앞 장에서는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사민요를 포함한 민요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및 영·미·유럽 지역 서사민요(또는 발라드)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서는 민요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각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배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 기능별 분류에 따른 검색이나 자료의 제목이나 자료에 포함돼 있는 어휘를 통한 검색에 그치고 있다. 제목에 의한 검색의 경우 정확한 자료 제목과 어긋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우며, 어휘 검색의 경우 역시 자료의 성격과는 관련 없는 수많은 자료들이 검색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서사민요의 경우는 기능에 의해 분류할 경우, 기능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하고, 아예 비기능요로 분류돼 있어 효과적인 검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영·미·유럽 발라드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발라드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돼 자료의 다양한 정보 및 가사, 음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발라드가 어느 한 국가만의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 및 영어권 국가에 확대 전승되어 온 공동 문화자산인 데다가 이미 16세기 이전부터 낱장으로 인쇄해 신문처럼 판매된 브로드사이드 발라드 사본이 수만 장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와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구전 또는 기록된 발라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들 발라드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점은 여러 아카이브가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다가, 거의 모든 자료의 원본 이미지와 음원을 무료로 검색해서 열람하거나 파일을 다운받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그 내용의 개요, 인물관계, 주요사건, 주제어, 자료의 출처 등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어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있는 것도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이제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및 기본 조건을 연구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 기관이 해결해야 할 사항, IT 기술이 해결해야 할 사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연구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우선 서사민요 각편에 대한 기본 지식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모든 자료들은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야만 이후 디지털화하는 데 오류를 최소

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다.

○ 표준명 설정 및 이칭 시소러스 작업: 서사민요의 경우 같은 유형의 노래인데도 노래명이 기능에 따라 <발매는 노래>, <베를 노래> 등과 같이 매겨져 있기도 하고, 주인공 이름에 따라 <이선달네 만팔애기 노래>, <이사원네 만팔애기 노래>, <김선달네 만팔애기 노래>, <만팔애기 노래> 등 제각기 붙여져 있기도 하며, 내용에 따라 <처녀 저주 노래>, <처자 과부 노래>, <청춘 과수 노래>, <저주로 죽은 신랑 노래>, <신랑 저주한 처녀 노래>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들 노래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검색자들은 이중 어느 하나의 명칭이라도 입력해야 그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겨우 결과로 얻을 수 있을 뿐이거나, 아니면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지 못해 한 편의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검색자들이 속칭 <이사원네 만팔애기 노래>에 속하는 서사민요 자료들을 모두 찾고자 할 경우, 이들 노래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인지할 수 있는 통일된 노래 명칭과 식별 부호를 부여하고, 각편별로 원래 매겨져 있는 각종 노래명이나 이용자들이 다르게 지칭할 수 있는 이칭을 시소러스로 만들어 그중 어느 한 명칭으로 검색하더라도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모든 자료들이 검색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 자료의 외적 정보: 각 자료별로 창자 정보, 마을 정보, 구연상황, 가창방식(선후창, 교환창, 독창), 기능, 출처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서사민요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관된 체계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되리라고 본다.

○ 자료의 내적 정보: 서사민요를 검색한 사람들이 해당 각편의 내적 특징을 쉽게 이해하고 노래를 감상하거나 노래에 대한 2차 콘텐츠(감상문, 해설, 논평, 논문, 기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지식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개요, 주인공-상대인물 관계, 유형, 하위유형, 핵심사건, 보조사건, 주제어(등장인물, 배경, 모티프 등 핵심어), 문학적 특징, 음악적 특징, 형식적 특징(율격, 행수, 연수) 등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세심하게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관련 기사, 해설, 논문, 문화콘텐츠 목록: 해당 노래 유형이나 각편에 관련되는 모든 2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해당 노래에 대한 기사, 해설, 논문 목록뿐만 아니라, 해당 노래를 대상으로 재창작된 노래, 해당 노래를 모티프로 해서 창작된 시, 소설,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목록을 구축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콘텐츠의 텍스트, 이미지나 음원, 영상 파일이 있다면 제공 또는 연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사민요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중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 소스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관이 해결해야 할 사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은 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공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기관은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마련한 자료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진을 구성하여 검토, 수정, 보완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사민요뿐만 아니라 민요 전반의 아카이브를 현재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민요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위원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자료 저작권 해결: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자료의 텍스트, 이미지, 음원, 영상 등의 검색과 공개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저작권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이들 각종 자료에는 새롭게 조사한 구비전승 자료뿐만 아니라, 기존 개인이나 기관이 발행한 민요 또는 구비문학 자료집의 텍스트, 이미지, 음원, 영상들을 모두 포함한다.

○ 디지털 아카이브 간의 연계: 디지털 아카이브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아카이브 자료들을 최대한 통일된 체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아카이브와의 연계 협약을 통하여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연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 검색 시스템 및 자료의 영역: 한국 서사민요를 비롯한 민요가 세계인들의 관심에 부합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훌륭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영어 버전 검색 사이트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한국어 검색 사이트에 대한 영어 검색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영역이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셋째, IT 기술이 해결해야 할 사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는 민요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서사민요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차후 IT 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방식과 체계를 갖추어 기술할 필요가 있다. IT 기술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민요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 멀티 검색 시스템: 이용자들이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고자 할 경우 검색시스템에서 이들 조건의 조합이나 배제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색자가 인물, 기능, 주제 등의 특별한 조건을 갖춘 서사민요를 찾고자 할 경우, ‘남편과 아내, 베틀 노래, 죽음’ 등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조합한 결과가 추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니면 ‘남편과 아내, 죽음’의 조합에서 ‘베틀 노래’는 배제한 노래들만 검색한다면 하는 AND, OR, WITHOUT 등의 명령이 가능한 멀티 검색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연관 단어로 검색 전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검색자들이 제일 당황하게 되는

경우는 정확한 단어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자료도 찾지 못하거나 전혀 엉뚱한 부지기수의 자료들을 결과로 받게 될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서 제목, 단어, 첫 행 등을 입력할 때 유사 단어나 철자로 입력했더라도 아카이브에 입력된 단어로 자동 전환되어 최대한 검색 요구 조건에 맞는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조정하는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맛팔애기’, ‘이사원네’, ‘한번가도 두 번가도 못볼레라’ 등과 같이 검색자가 알고 있는 수준의 단어나 구절을 입력하더라도 <이사원네 맛팔애기 노래> 자료들이 추출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 상호 작용이 가능한 설계: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는 일방적인 고정 시스템이 아니라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는 상호 작용이 가능한 유동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감상이나 논평들을 각주로 달 수 있게 한다든지, 이용자들이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의 등재할 수 있는 코너들을 마련해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에 의해 확장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 서사민요 및 영미 유럽 지역 발라드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사항 및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한국 서사민요를 포함한 민요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제 구축을 위한 출발 단계에 서있다.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제주학 아카이브가 그 선도적 위치에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 시스템을 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영미 유럽 지역 발라드의 경우 일찍부터 발라드의 수집 및 채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대학 및 공공 도서관 등에서 소장 자료의 원문 및 음원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수 갖추고 있다. 앞으로 인물, 주제, 모티프 등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멀티 검색 체계를 보강한다면 더욱 많은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서사민요를 비롯한 민요 디지털 아카이브는 해당 국가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누구라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국의 문화 자원을 알리고 세계화할 수 있는 자원의 저장 창고이다. 이 디지털 창고의 구축은 결코 한 개인 연구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계발과 공공 기관 및 정부의 구축 의지 및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총8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민요대전』(총9권), (주)문화방송, 1993~1996.

<논저>

강등학, 「서사민요의 각편 구성의 일면: 시집살이노래를 중심으로」, 『도남학보』 5, 도남학회, 1982.

강진옥, 「여성서사민요에 나타난 관계양상과 향유의식」, 『한국 고전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고혜경, 『서사민요의 일유형 연구: 부부결합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김정수, 민요박물관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2016, 89~105쪽.

김인숙, 토속민요 자료 수집을 위한 방안 : 디지털 민요박물관의 설계를 위한 논의에 부쳐,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2016, 143~169쪽.

김정수, 「민요박물관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2016, 89~105쪽.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서영숙, 「시집살이노래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시집살이노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6.

-----, 『우리민요의 세계』, 도서출판 역락, 2002.

-----,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역락, 2009.

-----, 「서사민요 이사원네 만팔애기 노래의 전승양상」, 『어문연구』 67, 어문연구학회, 2011, 63-87쪽.

-----, 「한국 서사민요에 나타난 지역문학의 창의와 융합 연구: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55-80쪽.

-----,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의 유형분류방안 비교」, 『한국민요학』 40, 한국민요학회, 2014, 57-93쪽.

-----, 『금지된 욕망을 노래하다: 어머니들의 숨겨진 이야기노래』, 도서출판 박이정, 2017.

이남희, 「‘인문학 디지털아카이브’ 전망과 과제: 구축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월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6, 2013, 189~216쪽.

임동권, 『한국민요연구』, 이우출판사, 1980.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0 초판 1979 증보판.

- Leach MacEdward, The ballad book, New York: A.S. Barnes & Company, INC., 1955.
- List, G., "Toward the Indexing of Ballad Texts",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1, No.319,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8.
- Wilgus, D. K., "Ballad Classification", Midwest Folklore Vol.5, No.2, Indiana University Press, 1955.
- , "A Type-Index of Anglo-American Traditional Narrative Songs", Journal of the Folklore Institute, Vol.7, No.2/3, 1970.
- Würzbach, Natascha, Salz, Simone M., Motif Index of the Child Corpus: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jsp/ur/Directory.jsp?gb=3>
- 한국구비문학대계 앱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분석과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문

양영자(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이 논문은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 서사민요 및 영미 유럽 지역 발라드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사항 및 조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멸기에 들어선 민요를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시사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유의미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민요[서사민요]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

민요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고자 할 때 구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형유산자료의 집적이 목적인가, 연구자료의 확충이 목적인가, 미래사회의 교육자료 집적이 목적인가, 국가 민속유산의 홍보가 목적인가, 이 모두를 통합하는 것이 목적인가 등등. 이에 따라 구축하고자 하는 자료의 대상, 자료의 질, 자료수집의 방법 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아카이브화 해두면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에 접근하는 자가 자료를 취사선택하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예컨대, 제주민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연구자나 교육자가 제주학아카이브 자료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민요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민요[서사민요] 아카이브 구축의 주체

한국 서사민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및 기본 조건을

연구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 기관이 해결해야 할 사항, IT 기술이 해결해야 할 사항 3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관이 해결해야 할 사항’ 하나로 수렴될 듯합니다. 개인 연구자가 ○ 표준명 설정 및 이칭 시소러스 작업, ○ 자료의 외적 정보, 내적 정보, ○ 관련 기사, 해설, 논문, 문화콘텐츠 목록 등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중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 소스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연구풍토에서 개인 연구자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IT 기술이 ○ 멀티 검색 시스템, ○ 연관단어로 검색전환, ○ 상호작용이 가능한 설계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해 확장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아카이브 구축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행되는 일일 뿐입니다. 결국 아카이브 구축은 기관이나 정부가 연구자나 IT기술자를 독려하고, 통제하고, 활용해야 할 문제로 귀결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무형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의 문제점과 지향점

맺음말에서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아카이브 구축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와 기본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의 프로젝트성 자료수집 관행의 극복, 정책적 접근을 통한 장기적인 사업추진, 민요의 존재양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발휘 등 다양한 모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의 현재적 문제점과 미래의 지향점에 대해 기억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서사민요의 아카이브 구축 가능성과 방향

서사민요는 (1) 다른 민요 장르와 달리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2) 이야기와 노래라는 두 가지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각편에 따라 다양한 장르적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 시스템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외국의 아카이브 사례에서는 German Ballad Catalog or the German Folksong Archive(독일 발라드 아카이브)의 응용과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한국 서사민요 구축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5. 다시 ‘목적’

맺음말에서 “서사민요를 비롯한 민요 디지털 아카이브는 해당 국가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누구라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국의 문화 자원을 알리고 세계화할 수 있는 자원의 저장 창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쪽에서 German Ballad Catalog or the German Folksong Archive 검색 시스템은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영어 검색이 가능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독일어 검색 결과만 나오고 있다. 더 많은 이용자를 위해 영어 검색 시스템의 구동과 독일 발라드의 영역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발라드에 접근하는 세계의 이용자들이라면 ‘비교연구학자’들이거나 단순 접속자(여행자 등)일텐데, 그들을 위해 영어 구동까지 하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었는데) 영어 구동으로 세계화가 가능한지, 한국적 풍토에서 생성된 서사민요 같은 무형유산의 세계화가 가능한지, 그 세계화가 가치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제1부〉
주제 : 한국 민요의 자료 구축과 아카이브

1945년 이전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試論 -유성기음반 · 라디오방송 소재 〈아리랑〉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선우 (성균관대학교)

■ 토론 : 유명희 (한림대학교)

1945년 이전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試論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 소재 <아리랑>¹⁾을 중심으로

김선우(성균관대학교)

목차

1. 서론: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 분류에 대한 재고(再考)
2. 유성기음반 <아리랑>과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관계
 - 2.1. 근대 초기 라디오방송에서 음악의 지위
 - 2.2. 라디오방송에서 (재)생산된 대중가요로서의 <아리랑>
3. 1945년 이전 라디오방송 <아리랑> 목록 제시와 그 특징
4. 결론: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의 협업과 공존

1.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 분류에 대한 재고(再考)

이 글의 목적은 1945년 이전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試論이자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 (재)생산된 <아리랑>의 성격과 특질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라디오가 개국한 1927년부터 1945년까지 소리미디어를 통해 확장·변화된 식민지조선의 대중문화 지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시작은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으로 (재)생산되었던 <아리랑>을 아카이브화 하는 작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아리랑>이라는 대중가요에 주목한다. 대중가요 <아리랑>의 성격과 특질은 기본적으로 유성기음반이라는 미디어로부터 촉발되었다. 그러므로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 <아리랑>이 소리미디어(유성기, 라디오)-테크놀로지 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조선에서 라디오방송은 1899년 조선에 최초로 소개된 유성기음반이 보편화되어 가는 1927년에서 등장했다. 일본 제국 내에서 근대 초기 라디오방송은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서 비중 있게 편성했다. 그 음악의 종류는 일본음악, 서양음악, 조선음악 등 다양했다. 아리랑은 유성기음반에 취입되어 대중가요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라디오방송의 시작과 더불어 라디오방송에서 송출되면서 대중가

1) 이 글에서 특정한 곡명·작품명 등을 지칭하거나 구체적 텍스트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아리랑을 지칭할 경우에는 ‘유성기음반 <아리랑>’, ‘<밀양아리랑>’ 등과 같이 ‘<>’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의미나 전체 아리랑을 지칭할 경우에는 특별한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요로서의 지위를 견고하게 했다.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 소재 <아리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성기라는 미디어, 라디오라는 미디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유성기와 라디오는 서로 협업과 공존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했고 식민지 시기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문화의 지형을 확장하고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협업과 공존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자 텍스트로 대중가요 <아리랑>에 주목한다.

아리랑은 식민지시기 근대미디어를 통해 수량과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반복과 변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축적된 아리랑의 연구 성과는 상당한 양과 수준에 이르고 있다.²⁾ 그렇지만 유성기음반 <아리랑>에 대한 연구는 전체 아리랑 연구 중에 미흡한 편이다. 유성기음반 <아리랑>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조선과 일본 제국 각지에서 발매되었던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목록화이며, 다른 하나는 그 목록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일본 제국 내에서 음반 <아리랑>의 전파 과정에 대한 텍스트 비교·분석이다.³⁾ 선행연구는 전무했던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구체적 양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전체 유성기음반 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리랑이 추구했던 지향점과 유성기음반이 맺고 있었던 라디오라는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술된 바 없다. 유성기음반 <아리랑>과 라디오방송 <아리랑>은 가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존재했다. 라디오 개국 초기에는 라디오가 유성기음반으로부터 <아리랑>을 제공받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리랑>은 점차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을 가로지르며 존재했다. 대중가요로서의 <아리랑>이 특정한 미디어를 벗어나 식민지조선 대중문화의 하나의 기호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텍스트(가사) 분석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이 글에서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가사, 인적네트워크, 유성기(음반)라는 미디어 그 자체 분석은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분석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반대도 같은 것이다.

-
- 2) 여기에서 아리랑 연구사의 전반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음의 연구서들은 아리랑 연구사에서 선구적 연구 성과의 상당수를 수록하고 있다. 아리랑 전반에 대한 이 글의 시각은 다음 연구들의 기반 위에 서 있다. 김시엽 외, 『근대의 노래와 아리랑』, 소명출판, 2009; 강동학, 『아리랑의 존재양상과 국면의 이해』, 민속원, 2011; 진용선,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계보』,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1.
- 3) 식민지시기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 <아리랑>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기미양, 「영화 주제가 <아리랑>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김선우, 「아리랑의 미디어 문화사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6; 이소영, 「<아리랑>의 문화적 변용에 따른 음악적 특징 -유성기음반의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학』 24권, 한국음악학학회, 2013; 이준희, 「‘대중가요’ 아리랑의 1945년 이전 동아시아 전파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제6집,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장유정, 「유성기음반(SP) 수록 대중가요 아리랑 텍스트의 반복과 변주-광복 이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예술』 제6집,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오빠는 풍각쟁이야-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민음in, 2006;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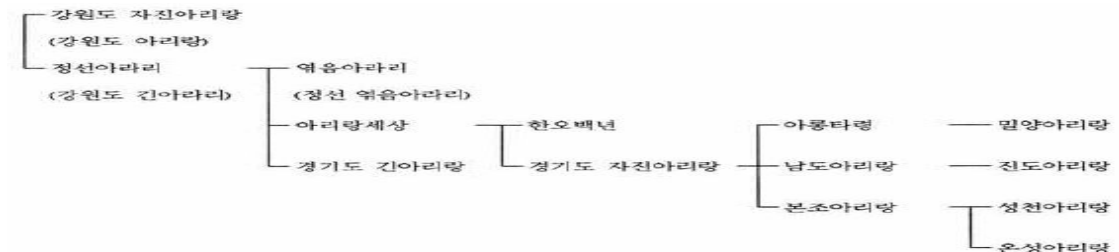
한편 이 글이 갖는 의문점 중 하나는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들'을 어떠한 분류 체계 속에 넣어야 할 것인가이다. 이 글 역시 동의하고 있는 이보형⁴⁾이 제시한 아리랑 계보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성기음반 <아리랑>'들'은 그 곡종과 가사의 내용에 따라 아리랑의 세부 갈래인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유정⁵⁾의 분류 방식처럼 음반의 레이블과 가사(시어), 작곡·작사가의 유무 등을 참조해 대중가요/전통가요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성기음반이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을 전통가요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통가요와 동일어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민요(民謠)'라는 개념은 '俚謠(俚歌)', '俗謠(俗歌)' 등과 경합하다가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민요'로 확정되어 식민지조선에도 유입된 개념⁶⁾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가요'라는 개념이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이다.

아리랑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을 통해 그 내연과 외연을 확장하기 이전에 이미 근대미디어(잡가집, 신문, 소설 등)에 의해 재생산⁷⁾되면서 레퍼토리가 고정화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경복궁중건 등의 사건을 계기로 잡가의 한 갈래로서 소리꾼들에 의해 반복·변이·확장된 바 있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아리랑은 대중음악적인 요소를 획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체 아리랑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의 방식은 유효하지만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과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경우는 그 분류체계를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유성기는 기왕의 미디어-테크놀로지를 축적한 위에서 등장한 미디어였다.⁸⁾ 유성기음반으로 발매된 <아리랑>'들' 역시 그것과 동일한 논리 위에서

4) 이보형, 「아리랑에 관한 음악적 고찰」, 『민학회보』 15호, 1987, 375쪽.



<그림 1> 이보형의 아리랑 분류체계

5) 장유정, 앞의 논문, 2010.

6) 임경화, 「식민지 조선에서의 창가, 민요 개념 성립사」, 『대동문화연구』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민족'의 소리에서 '제국'의 소리로」, 『일본연구』 제4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7) 아리랑이 근대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된 양상에 대해서는 김선우, 앞의 논문 참조.

존재하므로 유성기음반 <아리랑>은 ‘대중가요’라는 대분류와 레이블에 입각한 곡종이라는 중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실제 가사와 레이블, 즉 음반회사에서 부여한 곡종의 차이가 있는 곡도 존재할 것이지만 이는 그것에 해당되는 특정 <아리랑> 곡에 대한 당대 시각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전 미디어들의 새로운 특성이 축적된 결과물로서 등장한 유성기는 등장과 동시에 녹음·저장 방식/음반 재질과 유형 등 물리적 요소와 여러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광고, 제작에 참가하는 인적네트워크의 다양화 등 문화적 지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한 미디어였다. 유성기는 유성기 그 자체, 유성기음반, 가사지, 레이블 등 상이한 속성을 지닌 미디어들이 하나의 구성품으로 종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신문·책·잡지 등에 실린 광고와 기사에 소개되는 방식으로 다른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식민지시기 제국 내에서 유성기라는 미디어가 가졌던 지위는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이자 등장할 당시까지의 기술이 집약된 것이었다.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유성기의 지위는 유성기에 적합한 콘텐츠와 결합되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성기음반에 아리랑이 수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리랑 역시 기왕의 다양한 미디어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아리랑을 유성기음반 <아리랑>이 통괄하는 과정에서 가능했던 것이다.⁹⁾ 잡가 <아리랑>, 통속민요 <아리랑>, 문자미디어에 수록된 <아리랑>,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등 다양한 멜로디와 가사로 존재했던 것 중에서 특정한 곡이나 멜로디가 선택되어 유성기음반 <아리랑>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유성기음반에 수록되는 과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은 대중의 인기와 일종의 표준화된 결과물이었다.

이런 면이 유성기음반 <아리랑>에게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민요’ 중에서 아리랑은 유성기음반에 취입된 여러 장르 중의 하나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취입·발매되었으며, 상당수의 음반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더욱이 식민지시기 제국의 몇 안 되는 조선 민요들과 함께 유행가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도 했다.¹⁰⁾

유성기라는 미디어는 다면적 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성기는 최

8) 이 글에서 주장하는 대중가요 <아리랑>이라는 분류 체계는 라디오방송 <아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라디오는 유성기음반이 1899년 최초로 조선에 소개된 뒤 약 30년 뒤에 등장했던 미디어다.

9) 유성기에 적합한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임형택의 논의가 참조될 수 있다. 임형택은 “유성기+음반에는 미디어-테크놀로지에 적당한 목소리-‘레코-드 보이스’가 요청되었다(이는 라디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문학미디어론, 소명출판, 2016, 134쪽)고 지적하고 있다. 임형택의 논의는 춘향전이 유성기음반에 재매개되면서 양상을 추적하면서 특정한 가수의 ‘레코-드 보이스’가 유성기음반에 취입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임형택의 논의를 참고해보면 ‘아리랑’ 역시 ‘소리’로서 유성기음반에 취입하기 적합한 콘텐츠였다고 할 수 있다.

10) 1945년 이전 아리랑은 유성기음반을 통해 제국 곳곳으로 전파되었으며 유행가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1945년 이전 유성기음반의 전파 과정은 이준희, 앞의 논문, 참조.

첨단의 미디어-테크놀로지로써의 지위를 누리면서 새로이 등장하는 미디어-테크놀로지와도 밀접한 관계에 위치 지어지면서 끊임없이 식민지시기 제국의 대중문화 내에서 영향력이 확장되었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유성기가 새로운 미디어-테크놀로지와 발 빠르게 결합하는 지점은 라디오방송과 결합하는 것이 지목될 수 있다.

라디오방송은 유성기와 소리미디어라는 속성을 공유했지만 그 파급의 범위는 유성기를 넘었다. 라디오방송의 테크놀로지는 처음부터 유성기의 물리적 조건을 초과한 형태로 일본 제국 내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유성기음반이 3~4분 내외의 ‘소리’를 담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그 제약이 유연했다. 그렇지만 라디오방송의 경우 편성에 따라 시간의 제약을 받았다. 이때의 시간은 방송국에서 송출할 때에만 청취할 수 있었다는 시간과 특정 프로그램이 편성된 시간 내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소리’ 단위의 제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의 지배에서 더 자유로웠던 것은 유성기음반”¹¹⁾이었고 이러한 유성기와 라디오의 물리적 제약은 특정한 텍스트가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서 재생산되었을 때 다른 지향점을 두도록 만들었다. 소리와 몸짓 등 다양한 감각으로 구성된 공연예술인 춘향전의 경우 “유성기음반 기준으로 3~4분으로 분절된 텍스트는 서정성이 강한 대중음악의 일종으로, 30~60분으로 일정한 시간의 지속을 보장받으며 분절될 경우에는 서사성을 갖춘 드라마의 일종으로 수용”¹²⁾되었다. 반면 ‘아리랑’의 경우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은 일원적인 양상을 띠었다. 대중가요에서 두드러지는 서정성이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이라는 미디어의 차이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애초에 완결된 형태로 제작되었던 유성기음반 <아리랑>이 라디오방송에서 음반을 틀어주거나 불렀기 때문이다.

라디오 음악은 일본 제국의 근대 초기 라디오방송의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기능했다. 음악이 라디오방송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기능한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유성기음반으로 형성된 제국의 대중문화 내 대중음악(가요)의 지위였을 것이다. 라디오방송에서 유성기음반에 취입된 노래를 틀어주는 일은 라디오 개국 초기부터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점차 ‘라이브’ 공연이라는 형식으로 라디오방송 내에서 음악의 송출 형식은 변화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는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 가로 놓여 있는 음악이라는 텍스트의 유연성과 특성을 지목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것의 가장 두드러지게 규명할 수 있는 텍스트가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 <아리랑>이라는 것을 지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11) 임형택, 앞의 책, 146쪽.

12) 위의 책, 같은 곳.

2. 유성기음반 <아리랑>과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관계

2.1. 초기 라디오방송에서 음악의 지위

유성기음반은 소리를 물리화해 저장·보존·유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미디어였다. 그렇지만 유성기음반은 3분 내외의 소리를 저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재생 회수도 30회 내외로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미디어였다. 또한 그 가격 역시 “1매의 가격은 음반회사에 따라, 보급반과 정규반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했으나,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정규반 1매에 1원50전, 보급반 1매에 1원 정도”¹³⁾로 고가의 물건이었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은 유성기음반이 지닌 태생적 한계로 한정된 범위에서 유통될 수밖에 없었다. 즉 그 파급력과 도달범위가 일정 부분 이상 확대될 수 없는 한계적인 조건을 가진 미디어였던 것이다. 이는 유성기음반에 담겼던 내용(content)들 역시 유성기음반의 물리적 한계와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유성기음반은 ‘소리’를 저장하고 유동성을 기반으로 재현할 수 있는 첨단미디어였다. ‘소리’의 저장·재현이라는 유성기음반의 미디어 특성은 문화자본과 만나 유럽과 미주대륙을 거쳐 아시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성기음반이 가졌던 물리적 한계에 구속되었던 그 텍스트들은 유성기음반이 라디오방송과 만나면서 식민지시기 제국 내에서 일부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생 회수에 따른 한정된 대중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한계를 지녔던 유성기음반이 전파라는 무형·무한의 미디어이자 매질을 기반으로 하는 라디오방송과의 결합을 통해 그 한계가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국 일본에서 최초의 라디오방송은 ‘JOAK’라는 호출부호(コールサイン, call sign)를 가졌던 동경방송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경방송은 1924년 발족한 동경방송국으로부터 가방송을 거쳐 1925년 7월12일부터 본방송을 시작했다.¹⁴⁾ 이후 일본 내 중계망 건설 등을 통해 ‘JOBK’의 오사카방송국, ‘JOCK’의 나고야방송국에 이어 조선에도 ‘JODK’¹⁵⁾라는 호출부호를 부여받은 경성방송국이 설립되게 되었다. 그 후 동경을 시작으로 제국 내지와 외지 곳곳에 새로운 방송국이 들어섰고 제국 내의 전파 지형도도

13) 구인모, 『유성기의 시대, 유행시인의 탄생』, 현실문화, 2013, 300쪽. 1920년대 후반~1930년대까지 직업 별 월급이 의사 75원(병원 의사), 300원(개업 의사), 교원 85원, 학생용돈 30원, 경비원 35원, 농민 25~37원, 카페 여급 40원 정도였다. 구인모, 같은 책, 456쪽.

14) 日本放送協會, 『放送五十年史 資料編』, 日本放送出版協會, 1977, 3~35쪽.

15) 조선의 콜 사인에 대해서 엄현섭은 “경성방송국의 콜 사인은 도쿄의 JOAK, 오사카 JOBK, 나고야의 JOCK에 이어 네 번째의 콜 사인 “JODK”이었다. 본래 조선의 콜 사인은 JB**으로 정해졌으며 국내용(일본-인용자) JO**에서는 없는 것이었지만, “내선 일체” 정책에 어긋난다는 조선 체신국의 강한 주장으로 제국일본 4번째의 콜을 사용하게 됐”고 지적하고 있다. 엄현섭, 『근대 동아시아 라디오방송의 형성과 전파(電波)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일본학』 제42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200~201쪽.

확대되었다.

식민지시기 제국 일본은 “하나의 전파(電波)로 제국의 단일한 인식을 갖고자 했”¹⁶⁾던 기획 하에 일본 내지로부터 점차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 만주로 전파의 도달 범위를 확장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라디오방송은 전파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마련된 제반 시설의 가시적 형태였다. 제국 일본은 라디오방송,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은 아니다. 라디오방송의 확장은 제국 전파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정책의 선봉대와 같은 것이었다.¹⁷⁾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방송이 다른 정책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원된 미디어라는 것은 아니다. 전파의 확장이라는 사건에 포함되었던 복잡한 정책 중에 라디오방송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경으로부터 시작된 전파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그 제반적 시설들, 기지국·중계소·방송국 등 물리적 요소들을 필요로 했으며 방송(국)은 전파 확장의 다층적 층위를 단순화하는 ‘근대 미디어’였다. 전파 확장은 방송의 도달 범위가 확장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선통신기술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제국의 문화정치가 라디오방송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척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라디오에서 제국의 문화정치는 ‘황민화’, 프로파간다 등의 의도가 다분했지만 실제 제국 내에서 라디오로 파생된 문화와 그 산물들은 제국 권력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 단편적인 예가 조선인 청취자들이 ‘연예’라는 종목을 좋아했고 이는 편성에도 반영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¹⁸⁾

일본 제국은 세부적인 정책을 통해 라디오방송을 운영하고자 했다. 그 치밀한 운영의 욕망은 일본방송협회에서 다이쇼大正 15年(1926), 쇼와昭和 6年(1931), 7年(1932), 9年(1934)년 걸쳐 출판한 『ラヂオ年鑑』(라디오 연감)이라는 출판물을 통해 가시화되어 있다. 『ラヂオ年鑑』의 전반적인 구성 방식은 크게 ‘총람편總攬編’, ‘해설편解説編’, ‘참고편參考編’으로 구분한 각 편에 세부적인 글들이 실려 있으며 분량은 평균 700~800페이지에 육박한다. 또한 이 책에는 편성 지침, 여러 수취, 청취자 수 등

16) 엄현섭, 위의 논문, 210쪽.

17) 식민지시기 제국 내에서 라디오를 둘러싼 정치 논리와 문화 논리는 복잡했다고 할 수 있다. 라디오라는 미디어는 등장 초기부터 관영주도가 짙은 미디어였는데 식민지 제국 권력(일본과 조선총독부의 체신성)의 ‘총후(統後)’ 교육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정치 논리(주로 ‘보도’ 방송프로그램)에서 확인된다. 한편 정치 논리와는 달리 청취자들의 취향(주로 ‘연예’ 방송프로그램)으로 상정될 수 있는 문화 논리 역시 라디오라는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 논리와 문화 논리는 ‘식민성’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전쟁기 정치 논리는 문화 논리를 배제하려 하기도 했지만 일본어 ‘보도’ 프로그램의 번역을 통해 문맹률이 높았던 조선인들에게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속어(조선어)’의 사용을 지지했던 것과 청취자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경성방송국의 조선어 방송 프로그램 개발, 조선어 순화 운동 등은 서로 다른 의도가 모순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즉 라디오라는 미디어는 권력의 의도와 상반되는 식민지 문화적 근대성을 확립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서재길, 『일제 식민지시기 라디오 방송과 ‘식민지 근대성’』, 『사이間SAI』 창간호, 2006, 참조. 이 글은 서재길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면서 라디오를 통한 식민 권력의 의도가 ‘황민화’, 전쟁기 ‘총후(統後)’의 동원뿐만 아니라 라디오라는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문화적 산물에도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라디오를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정치·문화 논리가 착종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식민성’이 두드러지는 부분도, ‘문화적인 근대성’이 두드러지기도 할 것이며 그 둘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본다.

18) 방송 프로그램과 조선인 청취자에 관한 내용은 서재길, 앞의 논문, 191~193쪽. 참조.

라디오방송 운영과 관련된 보고·계획은 물론 무선통신기술, 라디오를 포함한 무선통신 장비와 관련된 제반의 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중에는 라디오와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은 쇼와 7년에 발간된 『ラヂオ年鑑』에 실린 「放送音楽の特異性」의 일부이다.

放送にせよ、蓄音機のレューディングにせよ、原音をありのままに傳送し或は複製するといふ所に建前があるのであるから、放送音楽は、特異性があつてはならないというのが、先づ以つて理窟であるべきだ。けれども實際と理論とは、いつの世にもびたりと一致するものではなくて、放送の音に、眞實の音との、多少の相異があるといふ事は、事實として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さうすれば、どうして此の事實を効果的に導いてゆがうがといふ事が、放送當事者の、當面の問題となつて来る。

しかし、根柢に於て、放送とうふものは、電氣の力によつて演奏を傳へるものであり、實演は空氣の波動によつて傳へるものである。空氣の傳達の間には、少しの誤差もなく、電氣の傳達の方だけにひどい誤差があると信じるのは、我々が何十年もの間、空氣の傳達ばら聽いてゐながらである。(밑줄-인용자)¹⁹⁾

위 글은 (라디오)방송의 음악과 “蓄音機のレューディング”, 즉 유성기음반을 ‘원음’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음’은 연주자가 악기를 실제 연주할 때 나는 소리나 가수의 목소리를 의미하며, “공기적 전달”은 녹음, 재생, 송출 등 전기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기를 매질로 해 실연되는 음악(노래)이 청자의 귀로 바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전기적 전달”은 연주자에 의해 연주된 음악이나 가수의 노래가 전기적 과정(녹음)을 통해 저장된 ‘소리’를 전기적 장치에 의해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방송음악의 특이성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레코드(レコード, 축음기·유성기음반)와 비교하며 방송음악이 ‘원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라디오에 효과가 있는 음악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 “レコードに比べれ、ラヂオの放送が効果が悪いといふ事(레코드와 비교해서 라디오의 방송이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²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라디오방송과 유성기음반의 비교는, 라디오 방송에 비해 기술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던 유성기음반이 ‘원음’을 전달하는 면에서는 앞선 상황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문제점으로 녹음과 송출에 문제가 없어도 라디오 수신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목하며 그것은 방송 관계자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 이외에도 쇼와7년에 발행된 『라디오 연감』에는 「音楽放送の將來」, 「音楽種目

19) 日本舗装協會 編著者, 『昭和七年 ラヂオ年鑑』, 日本放送出版協會, 1932, 214쪽.

20) 위의 글, 219쪽.

の位置」, 「放送音樂の聴き方」, 「主なる洋樂放送」 등의 글이 실려 있다. 또한 다른 해에 출간된 『라디오 연감』에도 라디오방송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글이 빠지지 않고 실려 있다. 일본라디오방송협회에서 발간한 글에 지속적으로 라디오방송과 음악에 대한 글이 실렸다는 것은 라디오방송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時刻表(편성표)와 ‘종목(種目, 番組, プログラム, 방송프로그램)’별 방송 횟수를 살펴보면, 음악은 중요한 방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다음은 1928년 12월의 동경방송의 편성표와 1925년 3월 22일부터 1926년 8월 20일까지의 ‘放送種目別放送回數及時間總計表’의 일부이다.

東京中央放送局放送時刻表 (昭和3年12月現在) 呼出符号 JOAK 波長 345m 空中線電力 10kW (周波数 870kc)			
	放送開始時刻	放送時間	放 送 事 項
平日	시 분	시간	
	오전 7.00	30	ラヂオ体操
	9.00	5	氣象通報
	9.05	5	經濟市況
	9.10	20	料理献立, 日用品値段
	9.30	10	經濟市況
	10.20	20	經濟市況
	10.40	30	家庭講座
	11.40	15	經濟市況
	12.00		時 報
	오후 0.05	35	演芸, 音樂
	0.40	20	ニュース
	1.30	10	經濟市況
	1.40	30	婦人講座
	2.30	15	經濟市況
	4.40	10	經濟市況
	3.40	10	氣象通報
	4.40	10	經濟市況
	6.00	30	子供の時間
	6.30	30	講 演
	7.00	25	ニュース
	7.25	135	講演, 音樂, 演芸
	9.40	20	時報, 氣象通報, プログラム予告, 告知事項
日 曜 ・ 祝 祭 日			
	午前 9.00	5	氣象通知
	9.30	30	子供の時間
	10.00	60	講 演
	11.00	15	料理献立
	11.15	45	演芸, 音樂
	午後 0.30	180	演芸, 音樂
	3.30	10	經濟市況
	3.40	10	氣象通知
	6.00	30	子供の時間
	6.30	30	講演・演芸
	7.00	25	ニュース
	3.25	135	演芸, 音樂, 講演
	9.40	20	時報, 氣象通知, プログラム予告, 告知事項

<표 2: 東京中央放送局放送時刻表>(밑줄·진하게·인용자)²¹⁾

21) 日本放送協会, 앞의 책, 1977, 280~281쪽.

<표1>을 살펴보면 ‘음악’이 ‘연예’, ‘강연’ 등과 함께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이 단독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135분의 시간 안에 함께 편성되어 평일과 일요일·축제일에도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방송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의 음악은 ‘위안慰安’이라는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방송되었다.²²⁾ 당시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의 위치는 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인접한 ‘강연’, ‘연예’ 등의 세부 프로그램과 함께 라디오방송의 중요한 ‘종목’으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放送五十年史 資料編』의 「放送種目別放送回數及時間總計表(大正14年3月22日~大正15年 8月 20日)」를 살펴보면 음악은 크게 ‘和樂’, ‘洋樂’으로 구분되어 방송되었다. 또한 음악은 다른 점차 방송횟수와 시간이 증가해 다이쇼14년 3월에 28회, 9.23시간 방송되었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94회, 51.07시간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이점은 ‘和樂’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에 비해 ‘洋樂’ 7월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감소했다는 것이다.²³⁾ 이는 일본 음악(‘和樂’)을 라디오방송을 통해 노출시키려는 전략과 ‘양악’보다 기술적으로 방송하기에 편리했던 것이라 추정된다.

2.2. 라디오방송에서 (재)생산된 대중가요로서의 <아리랑>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일본 제국 내에 라디오방송이 시작되면서 라디오방송 내에서 ‘음악’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해가고 있었다.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라디오방송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다른 미디어들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제국 내지에서 라디오방송이 시작되고 이후 1927년 경성방송국이 설립된 이후 유성기음반의 발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유성기의 보급과 일본 제국 내에서 유성기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라디오가 개국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상상은 지나친 것일까?²⁴⁾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경우 1927년 이후 발매량이 전시총동원체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다음은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유성기음반 <아리랑>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와 이 글이 조사한 것을 추가해 재구성한 것이다.

22) 위의 책, 274쪽.

23) 위의 책, 274쪽.

24) 춘향전의 경우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판소리·창극 춘향전의 비중이 중계 방송된 명창대회와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일정하게 유지”(임형택, 앞의 책, 144~145쪽)되기도 했다.

발매년	발매된 아리랑 음반 곡 수	
	조선	일본
1907년	1	-
1913년	1	-
1926년	1	-
1927년	8	-
1928년	1	-
1929년	4	-
1930년	3	-
1931년	15	1
1932년	15	7
1933년	17	4
1934년	23	3
1935년	28	3
1936년	19	5
1937년	13	4
1938년	11	1
1939년	6	1
1940년	4	5
1941년	6	1
1942년	2	-
1943년	5	2
연도 불명	7	2
합계	183	39

<표 2> 1945년 이전 발매된 연도별 유성기음반 <아리랑> 곡 수(단위: 곡)²⁵⁾

위의 목록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숫자는 1927년에 8곡²⁶⁾으로 증가했다가 그 수가 감소하며 1930년대에 이르면 다시 그 발매 수량이 증가한다.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발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유성기음반 시장의 일반적인 변화, 즉 음반 제작기술의 발전, 유통의 안정, 신문·잡지에 실린 광고 효과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또한 1920년대에 일본에서 <아리랑> 음반이 발매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리랑이 아직은 조선이라는 지역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7년 조선에서 <아리랑> 음반 발매량이 증가, 1930년대 일본에서 발매가 시작되었는데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영향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파급력에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930년대 유성기음반 <아리랑>이 지속적으로 발매되었던 것과 1950년대를 거쳐 현재

25) 일본 제국 내에서 일본과 조선을 제외한 대만, 만주국 등에서 발매된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수치가 제외되어 있고,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목록이지만 유성기음반으로 존재했던 <아리랑>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1945년 이전 음반의 경우 대부분 SP음반으로 제작된 것이 많아 그 물리적 특성상 현재까지 보존되어 전해지는 숫자가 많지 않다. 이 목록은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있는 목록이다. 이 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선행연구는 각주 3번을 참조.

26) 유성기음반은 한 매에 3분 내외의 소리를 앞면과 뒷면(레이블의 경우 보통 A/B 또는 1/2로 표기)에 저장할 수 있는 미디어였다. 한 매에 아리랑과 다른 곡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유성기음반의 개수가 아닌, 면을 기준으로 샘플 곡수로 제시했다.

1945년 이전 라디오방송의 ‘종목’에 대한 것은 『朝日新聞(아사히신문)』과 『조선일보』에 실린 편성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동경방송, 오사카방송, 나고야방송에 대한 편성표를 주로 ‘けふの放送(오늘의 방송)’라는 제목 하에 싣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경성방송의 편성표를 싣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실린 편성표를 통해서는 제국 내지에서 방송되었던 ‘종목’을, 『조선일보』에 실린 편성표를 통해서는 조선에서 방송되었던 ‘종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²⁷⁾ 기본적으로 동경방송이 제국 내의 ‘종목’을 총괄하는 형태였지만 때때로 경성방송국 등 지방의 방송국의 방송을 동경방송이 중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아사히신문』에 실린 경성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편성표이다.



<그림1> 海をへだてゝ聞く朝鮮民謡と正樂>²⁸⁾

27) 물론 실제 전파를 통해 방송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와 편성표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철저한 검열과 규격화된 '종목'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에 신문에 실린 편성표로 방송의 '종목'을 논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28) 『朝日新聞』, 1934. 4. 26.

물론 당시 <아리랑> 음반 취입에 참가했던 가수들은 전통가요는 물론 대중가요 <아리랑>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의 정악과 함께 ‘민요’로서 소개되는 방송에서 선택된 <아리랑>이 음반 「密陽아리랑」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전통가요’로 인식된 ‘민요’ 아리랑을 서양 악기에 맞게 변주한 것으로서 기사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조선의 ‘민요’ 그 자체는 아니었다. 이는 라디오방송이 점차 제국의 국민들에게 익숙해져가기 이전에 이미 음반으로 발매됨으로써 아리랑이 음반을 넘어서 라디오방송이라는 미디어에 진출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라디오방송의 주요한 ‘종목’으로서 기능했던 음악의 종류는 서양악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었다. 제국 권력으로부터 기획된 ‘취향’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라디오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제국 내의 사람들에게 서양음악이 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음반이 제국 내에서 보편화되는 것은 라디오방송의 내용과 시설 등이 점차 안정화되는 과정에 비슷한 맥락 속에 있었다. 그러므로 라디오방송에서 제공되었던 서양악기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과 유성기음반의 반주로 기능했던 서양음악은 같은 맥락 하에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민요로 소개되었던 「密陽아리랑」이 선택된 이유는 동경방송 혹은 제국 라디오방송의 편성을 담당했던 주체에게 있어 조선민요로서의 <아리랑>보다 당시 대중문화의 주체들에게 익숙한 것이 보다 중요했음을 시사한다.³²⁾ 그 선택의 기준에는 청취율, 검열, 가수의 신분, 재정 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1945년 이전 라디오방송 <아리랑> 목록 제시와 그 특징

이 장에서는 라디오방송 <아리랑>을 목록화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라디오방송 <아리랑> 목록은 실제 방송 음원을 확인할 수 없어 신문에 게재되었던 편성표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다음과 같다.

<표2> 1945년 이전 라디오방송 <아리랑> 목록

NO.	방송일시	프로그램명 ³³⁾	송출된 <아리랑>	출연진	출처
1	1929.3.2.오후9:40	西道雜歌李錦玉一, 山打令二, 難捧歌三, <u>아리랑</u> 外	아리랑	가야금 산조, 並唱歌數種散調(丁南希), 창(吳太石)	『동아일보』
2	1929.5.10.오후9:20	西道雜歌獨唱愁心歌寧邊歌山打令 <u>아리랑</u> 外	아리랑	李錦玉(伽倻琴), 大琴合奏·短歌·愛歌·獄中歌·散調·雜歌合奏歌(金海仙), 大琴(朴鍾基)	『동아일보』

32) 경성방송국의 경우 청취자의 취향이 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33) 특별한 프로그램명이 제시되지 않고 해당 시간 제시 후 송출되는 노래 제목을 나열한 경우에는 신문

3	1930.10.08.오후9:45	西道雜歌一, 愁心歌二, 船의歌三, 寧邊歌四, <u>아리랑萬調五</u> , 巫女歌李錦玉	아리랑萬調	이금옥	『동아일보』
4	1930.10.26.零時四十分	管絃樂(朝鮮民謠集), 二八青春歌, 白歌, 兩山道, <u>아리랑小唄</u> , 三人友, 洛花流水	아리랑 小唄	-	『동아일보』
5	1930.12.02.오후9:45	流行小唄와管絃樂一, 放浪歌二, 베니스歌三, 青年의노래四, 吳桐樹五, 薔薇花六, 閨路七, <u>아리랑姜石燕D,S管絃團</u>	아리랑	강석연, D,S관현단	『동아일보』
6	1930.12.14.零時 ³⁴⁾	脚本朗讀	郷土劇『春夏秋冬아리랑』	申不出, 外數名	『동아일보』
7	1930.2.19.오후8:00	朝鮮歌曲의略史紹介放送部	아리랑舊調	李映山紅, 李錦玉	『동아일보』
8	1930.3.2.오후1:30	西道雜歌와京城坐唱一, 愁心歌 二, <u>아리랑三</u> , 巫女歌金松竹	아리랑	김송죽	『동아일보』
9	1931.11.13.오후9:45	新作流行唄一, 新아리랑二, 鳴三, 君을憶하며泣한다四, 레뷰行進曲五, 리리아六, 廢墟李愛利秀全壽麟	新아리랑	이애리수, 전수린 ³⁵⁾	『동아일보』
10	1931.2.15.오후1:30	西道雜歌, 愁心, 難捧歌, <u>아리랑</u> , 巫女唄安錦花	아리랑	안금화	『동아일보』
11	1931.6.7.오후6:30	管絃樂=半生, 打鈴, 白打鈴, <u>舊아리랑打鈴</u> , 天女の舞	舊아리랑打鈴	-	『동아일보』
12	1931.8.15.오후9:45	레뷰春夏秋冬아리랑	레뷰春夏秋冬아리랑	-	『동아일보』
13	1931.9.9.오후9:45	雜歌와流行歌	아리랑	朴山紅, 金奇山(大箏)	『동아일보』
14	1932.1.19.오후9:45	西道雜歌愁心歌, 舟歌, 寧邊歌, <u>아리랑舊調李映山紅</u>	아리랑舊調	이영산홍	『동아일보』
15	1932.11.10.오후9:31	民謠一, 關山戎馬二, 寧邊歌三, 孔明歌四, 舟唄五, <u>아리랑舊調六</u> , 新調離別歌李山映紅	아리랑舊調	이영산홍	『동아일보』
16	1932.11.13.零時十五分	大琴과楊琴平調會像, 令佛, 靑聲曲, 白打令, 楊山道 <u>아리랑大琴金奇仙楊琴金相淳</u>	아리랑	대금(김기선), 양금(김상순)	『동아일보』
17	1932.2.14.오후6:30	雜歌와流行歌白打令릴리리야 <u>아리랑</u> 外朴山紅大琴金奇山	아리랑	김기산(대금)	『동아일보』
18	1932.2.19.오후7:45	京城坐唱勸酒歌, 小春香歌, 將棋打令 <u>아리랑舊調</u> , 巫女歌趙牡丹, 金蓮玉	아리랑舊調	김연옥, 조목단 ³⁶⁾	『동아일보』
19	1932.2.3.오후9:45	西道雜歌一, 愁心歌, 二, 舟歌三寧邊歌四, <u>아리랑舊調五</u> , 巫女歌李映山紅	아리랑舊調	이영산홍	『동아일보』

기사의 표기(‘, ’나 띄어쓰기 등)를 그대로 옮겨 적었으며 아리랑은 밑줄 그어 표시했다.

20	1932.2.7.오후6:30	管絃合奏, 念佛打鈴, 瀬戸의風景安南行進曲, 月花選, 軍艦行進曲沙窓, 嗚呼打令, 忠清道아리랑	忠清道아리랑	-	동아일보
21	1932.3.19.오후9:30	舊雜歌孔明歌舊調, 京城興打令, 도라지打令永同아리랑外柳開東李潤昌金承鎮	아리랑	유개동, 이윤창, 김승진	동아일보
22	1932.3.22.오후9:30 繼(第7)	管絃合奏 一, 靈山繪像中 二, 舊아리랑 三, 二八青春歌 四, 旅人の歌 五, 릴리리아短簫崔壽成, 平調洋琴尹泰炳, 同吳寅泳, 바이올린金鎮宇	舊아리랑	단소(최수성), 평조악금(윤태병), 동오인영, 바이올린(김진우)	동아일보
23	1932.3.26.오후9:30	西道雜歌와京城坐唱一, 遊山歌白牡丹二, 愁心歌金玉葉三, 舟歌四, <u>아리랑舊調</u> 五, 巫女歌	아리랑舊調	-	동아일보
24	1932.3.3.오후9:30	西道雜歌愁心歌沙鉢歌릴리리아新高山歌密陽아리랑二八歌李映山紅申海中目	密陽아리랑	이영산홍, 신해중목 ³⁸⁾	동아일보
25	1932.4.28.오후9:30	京城坐唱과畫聽一, 楊柳歌二, 二八青春歌三, <u>아리랑舊調</u> 四, 巫女歌金蓮玉一 □聽金成根	아리랑舊調	김연옥일, 김성근	동아일보
26	1932.7.17.六時冊分	朝鮮音曲一, 念佛打令二, 살프리曲三, 도라지打鈴四, 密陽아리랑□琴韓弄仙, 短簫韓妍香, 楊琴韓鳳仙, 伽倻琴韓素香長鼓韓成俊	密陽아리랑	□琴(한농선), 단소(한연향), 양금(한봉선), 가야금(한소향), 장고(한성준)	동아일보
27	1932.8.18.오후九時卅一分	京畿民謠一놀랑二, 山打令三, 바위打令四, 遊山歌五, <u>아리랑舊調</u> 金彩雲	아리랑舊調	김채운	동아일보
28	1932.9.4.오후1:30	民謠와雜歌白打鈴, 兩山道, 難逢歌, 開城難逢歌, <u>아리랑打鈴</u> , 白花打鈴, 金彩雲金松仙	아리랑打鈴	김채운, 김승선	동아일보
29	1933.1.11.오후9:45	俗謠와雜歌白打令, 兩山道, 開城難逢歌, 荒城의跡, 青春歌, <u>아리랑打令</u> , 金剛山아리랑, 도라지打令, 新高山打令, 新調離別歌, 獨身生活金錦仙金玉眞	아리랑打令, 金剛山아리랑	김금선, 김옥진	동아일보
30	1933.12.24.零時五分	俗曲	京아리랑	高載德(細笛), 池龍九(嵇琴), 崔壽成(楊琴)	동아일보
31	1933.2.19.오후2:40	大琴과洋琴合奏平調會相, 念佛打令, 吹打, 白打令, 兩山道 <u>아리랑</u> , 大琴金相根洋琴金相淳	아리랑	대금(김상근), 양금(김상순)	동아일보
32	1934.3.19.午後零時五分	俗曲	京아리랑	洋琴(崔壽成), 嵇琴(池龍九), 細笛(高載德) ³⁹⁾	동아일보

33	1935.2.3.오후8	山念佛과아리랑	긴아리랑, 景福宮 아리랑, 新아리랑, 咸鏡道아리랑, 密 陽아리랑, 江原道 아리랑	고재덕(세적), 최 수성(단소) ⁴⁰⁾	『동아일보』
34	1935.3.28.오후8	朝鮮新民謠(京城より中継) 鮮于一善外	懐かしきアリラン	전우일선, ポリ ドール・オーケス トラ(반주) ⁴¹⁾	『朝日新聞』
35	1935.4.11.오후8	俗曲	密陽아리랑	林明月, 伽야琴(李 日善), 奚琴(金奉 業)	『동아일보』
36	1935.5.3.零時五分	奚琴獨奏	各道아리랑	池龍九	『新民報』
37	1935.9.1.零時五分	아리랑, 京아리랑 나, 密 陽아리랑 다, 流行아리랑	京아리랑, 陽아 리랑, 流行아리랑	高載德(細笛), 崔 壽成(短簫)	『新民報』
38	1936.1.14.零時五分	俗曲 아리랑네가지	아리랑, 景福宮아 리랑, 咸鏡道아리 랑, 密陽아리랑	고재덕(세적), 최 수성(양금) ⁴²⁾	
39	1937.6.4.오후9시(京城)	一, 오봉산二, 벚가三, 애연 곡四, 密陽아리랑五, 도라지 打鈴六, 사랑가 高一心 細 笛 姜鶴洙 短簫 崔壽成	密陽아리랑	고일심, 세적(강학 수), 단소(최수성)	『동아일보』
40	1937.6.5.오후9(京城)	一, 오봉산二, 벚가三, 애연곡四, 密陽아리랑五, 도라지打鈴六, 사랑가 高 一心 細笛 姜鶴洙 短簫 崔 壽成	密陽아리랑	고일심, 세적(강학 수), 단소(최수성)	『동아일보』
41	1937.8.13.오후8:50	新民謠	密陽아리랑	고일심, 세적(강학 수), 단소(최수성)	『동아일보』
42	1937.8.2.오후10	南道民謠	珍島아리랑	鄭柳色, 吳翡翠, 曹弄仙, 大琴(朴鐘 基) ⁴³⁾	『동아일보』
43	1938.1.14.오후7:40	新民謠	아리랑	김인숙, DK관현단 (반주)	『동아일보』
44	1938.1.14.오후7:40	新民謠	아리랑	김인숙, DK管絃團 (伴奏) ⁴⁴⁾	『동아일보』
45	1938.1.15.오후7:40	新民謠 一, 사랑가 二, 아 리랑 三, 도라지打鈴 四, 에헤라青春아 五, 가슴에 피는꽃	아리랑	金仁淑, 伴奏(DK 管絃團) ⁴⁵⁾	『동아일보』
46	1938.2.3.오후8:40	俗謠	江原道아리랑	權蘭, 田山紅	『동아일보』
47	1938.9.21.오후8:30	新民謠	密陽아리랑	고일심, 단소(최수 성), 奚琴(李忠善)	『동아일보』
48	1940.5.30.오후8	女聲合唱	아리랑	春悲春興梨花女專 朝鮮民謠研究部員, 반주(李慶熙), 編 曲及指導(李鐘泰)	『동아일보』

34) 오후 00(12)시.

35) 유성기음반 <아리랑> 존재한다. 이하 목록에서 유성기음반 <아리랑>이 존재할 경우에는 출연자 이름
에 각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Victor49122-A, 「流行歌新아리랑」, 1932. 3.

36) 닛보노홍K192-A(Nipponophone 6170 재발매), 「아르렁타령-만경창파에떠가는배」, 1927. 4;

위에 제시된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목록은 『동아일보』, 『매일신보』, 『아사히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검토한 것이라 전체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목록이라 할 수는 없지만,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양상을 확인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위의 목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특정 곡으로서 <아리랑>에 대한 상위 분류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아리랑>의 연주와 가창이 동등한 위치로 배치되어 있었다. 셋째 대중가요 <아리랑>의 경우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의 인적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을 살펴보면, <아리랑>이 송출될 때 방송프로그램명은 특정한 시간에 송출되는 다른 음악들과 함께 나열되거나 ‘俗曲’, ‘俗謠’, ‘新民謠’, ‘女聲合唱’ 등의 상위 범주가 제시된 뒤에 실제 곡명이 제시되고 있다. <아리랑>과 더불어 라디오에서 청취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음악의 세밀한 범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유성기, 라디오라는 소리미디어에서 요구했고 그 소리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청취자)가 듣고 싶어했던 ‘레코-드 보이스’에 따라 프로그램에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기 있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와 연주 기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레코-드 보이스’의 레퍼토리가 프로그램 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파악된다. 이는 두 번째 특성과도 연결되는 논의이다.

이어서 두 번째 특성을 보면, 가수가 출연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많다. 앞서 제시된 목록을 통해 확인해 보면 <아리랑>이 방송된 횟수는 48번이다. 그 중 악기 연주만 송출된 경우는 15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수가 함께 출연하는 경우에도 연주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1930년대라는 시점에서 식민지 대중에게 특정한 곡에 대한 취향과 향유의 감각은 가수의 음성+연주자의 실력이 함께 고려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선우일선이 출연한 경성방송(JADK)의 프로그램이 동경방송(JOAK)에 중계되는 것을 소개한 「朝鮮の花形歌手が唄ふ六曲の朝鮮新民謡」(조선의 인기 있는 가수가 부른 여섯 곡의 조선 신민요)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Victor49106-A, 「긴아리랑」, 1935. 2.

37) 앞의 프로그램(時報, 氣象概況, 各地天氣實況)에 이어서 진행되었던 것 같다.

38) Taihei8060-A, 「密陽아리랑」, 1933. 9.

39) 박춘재(장고)·장금화(병창)·길진홍(병창), Victor49047-A, 「京卿々打令 경아리랑타령」, 1928. 12.

40) 고재덕(세적)·방용현(해금), Polydor19155-A(7308BF), 「긴아리랑」, 1934. 8; 고재덕(세적)·최수성(단소), Polydor19182-B(7889BF)/19182-B(7889BF), 「아리랑대회」, 1935. 2.

41) 선우일선·이준례(작사/작곡), Polydor19186-B, 「그리운아리랑」, 1935. 3.

42) 최수성(단소)·고재덕(양금), KirinC187-B, 「긴아리랑」, 1935. 9.

43) 오계선양악단·김소희(주창)·오택석(조창)·오비취(조창), OkehK1728(K1414)-B, 「진도아리랑」, 1934. 11; 신숙·오비취·신래동(현금)·박종기(대금, 해금, 장고), Victor KJ1138(KRE259)-B, 「珍島아리랑」, 1938. 1.

44) 김인숙·鮮洋樂, Columbia40753-B, 「民謠 아리랑」, 1938. 1.

45) Columbia40753-B, 「民謠 아리랑」, 1938. 1.



<그림3> 「朝鮮の花形歌手が唄ふ六曲の朝鮮新民謡」의 부분⁴⁶⁾

인용된 신문에서 선우일선의 사진 옆에 ‘鮮于一善’이라는 이름과 ‘自奏 ポリドル・オーケストラ(폴리돌 오케스트라)’라고 나란히 적혀있다. 선우일선이라는 조선의 유명 가수를 강조하면서 ‘폴리돌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自奏)한다는 것이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우일선이 “日本ポリドル専屬歌手”임을 강조하는 맥락과 비슷한 것으로 ‘폴리돌’이라는 유성기음반 회사의 유명세와 전문성을 동시에 청취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위의 목록에 ‘고재덕’, ‘최수성’, ‘강학수’ 등의 연주자 정보가 신문 편성표에 함께 제공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정한 시간대에 송출되는 프로그램명의 엄격하지 않은 분류에 비교했을 때 가수와 연주자를 신문이라는 한정된 지면에 제시한 것은 연주자와 가수가 라디오 청취자와 유성기음반 사용자들에게 동등한, 적어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특징은 유성기음반 제작 참여한 인적네트워크와 라디오방송에 출연 인적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2장에서 살펴본 「密陽아리랑」과 앞서 인용된 선우일선의 기사의 내용이 이를 반증하며 제시된 목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먼저 기사에서 선우일선을 소개하는 부분을 번역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鮮于一善嬢は朝鮮の京都の稱ある平壤の人、新民謡歌手として全鮮に壓倒的人氣を有する芳紀十七歳の麗人、日本ポリドル専屬歌手⁴⁷⁾

선우일선양은 조선의 교토라 칭하는 평양의 사람, 신민요가수로서 전 조선에서 압도적 인기가 있는 방년 17세의 여인(麗人), 일본 폴리돌 전속가수

선우일선을 소개하는 글에서 강조되는 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선의 평양사

46) 「朝鮮の花形歌手が唄ふ六曲の朝鮮新民謡」, 『朝日新聞』, 1935. 3. 28.

47) 앞의 글, 같은 곳.

람으로 조선 전국에서 인기가 있는 ‘스타’ 가수라는 점과 ‘일본폴리돌’의 ‘전속가수’라는 것이다. 조선인이자 일본 내지 회사의 전속가수라는 타이틀의 부여는 식민지조선과 ‘내지’ 일본에서 모두 검증된, 즉 제국에서 향유되는 문화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존재임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지’인 경성방송(JODK)로부터 동경방송(JOAK)로의 ‘중계’가 일정한 수준, 즉 대중으로부터 검증된 텍스트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JODK’에서 ‘JOAK’로 콘텐츠이자 텍스트의 이동(중계)이 가능한 결정적 이유는 이미 유성기음반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우일선이 방송했던 노래는 「그리운아리랑」⁴⁸⁾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에서 1935년에 발매된 바 있다. 인기를 끌었던 유성기음반 제작에 참여했던 인적네트워크가 ‘라이브’의 형태로 라디오방송을 통해 재현되었던 것이다. 선우일선이 부른 「그리운아리랑」⁴⁹⁾은 이후 1939년에 재발매되기도 한다. 경성방송국의 경우 일본어와 조선어의 이중 방송의 상황이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그리운아리랑」이 조선어와 일본어 중에 어떤 언어로 송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날 『동아일보』의 편성표에서는 ‘그리운아리랑’이라고 적혀 있고 『아사히신문』에서는 ‘懷かしきアリラン’이라고 제목과 가사를 번역·제시하는 것과 ‘중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어로 불렸을 것이라 파악된다. 조선의 ‘신민요’라는 소개와 폴리돌사(社)의 음반을 ‘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조선어 방송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우일선의 사례 외에 앞서 제시된 목록을 살펴봐도 이미 발매되었던 음반 제작에 참가한 인적네트워크가 라디오방송에서 그 음반을 ‘라이브’한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파악된다. 목록에서 제시한 ‘강석연’, ‘김인숙’, ‘오비취’, ‘신숙’, ‘고재덕’, ‘최수성’ 등의 방송은 실제 발매된 유성기음반의 ‘라이브’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의 협업과 공존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목표 하에 작성되었다. 첫째는 1945년 이전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 소재 <아리랑>의 아카이브(목록)화이며, 둘째는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서(재)생산된 <아리랑>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1927년 제국 내 라디오 개국이라는 사건이 식민지조선의 문화 지형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일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선행연구를 참고해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현황을 최신화하고, 현재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목록화를 시도했다.

이 글은 식민지조선의 문화 지형이 확장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유성기음반이라는

48) 선우일선·이준례(작사/작곡), Polydor19186-B, 「그리운아리랑」, 1935. 3.

49) 선우일선·이준례(작사/작곡), PolydorX562-B, 「그리운아리랑」, 1939. 6.

미디어가 라디오라는 미디어와 결합되는 지점을 지목했다. 식민지시기 ‘소리’를 둘러싼 텍스트들은 유성기라는 미디어를 통해 저장과 재현 그리고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성기는 물리적 전달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된 미디어였다. 그러한 물리적 한정은 전파를 기반으로 하는 라디오와 결합하면서 물리적 제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한편 이 글은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 텍스트인 <아리랑>의 성격을 대중가요로 규정했다. 유성기음반과 라디오에 재생산된 구체적 텍스트들을 ‘대중가요’라는 역사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 시도이다. 적어도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서 재생산되었던 <아리랑>은 ‘대중가요’라는 상위범주로 묶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중가요 <아리랑>’이라는 개념으로 정렬되는 특정 텍스트는 유성기, 라디오라는 근대미디어를 통해 해당 미디어의 제작자들의 시선으로 분류·명명(命名)된 바 있다. 그 이름 짓는 방식은 ‘신민요’, ‘속요’, ‘대중가요’, ‘유행가’ 등이었으나 실제 해당 노래의 가창자들이 불렀던 명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대중문화 내에서 근대미디어를 통해 향유·전파되었다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이 글은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에서 재생산된 <아리랑>을 ‘대중가요’라는 상위분류와 해당 텍스트의 제작(생산)자들이 명명한 것을 하위분류로 설정했다.

유성기(음반)라는 미디어와 라디오라는 미디어의 특성은 ‘소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서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식민지시기에 존재했다. 그 특징은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특성은 유성기음반 <아리랑>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디오라는 미디어가 유성기(음반)라는 미디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공존을 모색했고 라디오와 유성기(음반)의 관계는 ‘협업’과 ‘공존’의 관계에 있었다. 그 ‘협업’과 ‘공존’이라는 현상에 두드러지는 텍스트로 대중가요 <아리랑>이 지목될 수 있다. ‘소리’, 즉 ‘음악’으로부터 출발한 ‘아리랑’이라는 기호는 특유의 서정성이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으로 재생산되었을 때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근대 초기 일본 제국 내에서 라디오는 ‘음악’을 중요한 방송 종목(프로그램)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유성기음반(레코드)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디오가 유성기음반을 수용하는 방식은 크게 유성기음반(레코드)을 직접 송출하는 방식⁵⁰⁾과 유성기음반 제작에 참여한 인적네트워크를 ‘라이브’의 형태로 ‘재현’하는 방식이었다.

이 글에서 1945년 이전 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목록화는 이루어지지 못 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50) 1933년 12월 23일 라디오 편성표를 살펴보면, “一時二〇分레코-드音樂”(『동아일보』)으로 유성기음반 그 자체를 송출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참고문헌>

- 기본자료

日本舗装協會 編著者, 『昭和七年 ラヂオ年鑑』, 日本放送出版協會, 1932.

『동아일보』

『매일신보』

『朝日新聞』

- 논문

강등학, 『아리랑의 존재양상과 국면의 이해』, 민속원, 2011.

기미양, 「영화 주제가 <아리랑>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9.

김선우, 「아리랑의 미디어 문화사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6.

김시업 외, 『근대의 노래와 아리랑』, 소명출판, 2009.

서재길, 「일제 식민지시기 라디오 방송과 ‘식민지 근대성」, 『사이間SAI』 창간호, 2006.

엄현섭, 「근대 동아시아 라디오방송의 형성과 전파(電波)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일본학』 제42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이보형, 「아리랑에 관한 음악적 고찰」, 『민학회보』 15호, 1987, 375쪽.

이소영, 「<아리랑>의 문화적 변용에 따른 음악적 특징 -유성기음반의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학』 24권, 한국음악학학회, 2013.

이준희, 「‘대중가요’ 아리랑의 1945년 이전 동아시아 전파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제6집,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임경화, 「식민지 조선에서의 창가, 민요 개념 성립사」, 『대동문화연구』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임경환, 「‘민족’의 소리에서 ‘제국’의 소리로」, 『일본연구』 제4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장유정, 「유성기음반(SP) 수록 대중가요 아리랑 텍스트의 반복과 변주-광복 이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예술』 제6집,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진용선,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계보』,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1.

- 단행본

강등학, 『아리랑의 존재양상과 국면의 이해』, 민속원, 2011.

구인모, 『유성기의 시대, 유행시인의 탄생』, 현실문화, 2013.

김시업 외, 『근대의 노래와 아리랑』, 소명출판, 2009.

日本放送協會, 『放送五十年史 資料編』, 日本放送出版協會, 1977.

임형택, 『문학미디어론』, 소명출판, 2016.

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민음in, 2006.

진용선,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0.

진용선,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계보』,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1.

「1945년 이전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試論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 소재 <아리랑>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유명희(한림대학교)

발표자는 이 글의 목적을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 (재)생산된 <아리랑>의 성격과 특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대중가요 <아리랑>에 주목”하는 이유를 “대중가요 <아리랑>의 성격과 특질은 기본적으로 유성기음반이라는 미디어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협업과 공존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자 텍스트로 대중가요 <아리랑>에 주목한다”고도 한다. 이어서 이를 위해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목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성기음반의 유행과 라디오방송의 시작이 아리랑과 관계가 깊다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에 이의는 없다. 다만 논의를 전개하는 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이 글은 앞에 제시한 것처럼 목적을 ‘아카이브 목록화와 유성기음반과 라디오 방송에서 (재)생산된 <아리랑>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2쪽의 “그러므로 구체적 텍스트(가사) 분석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이 글에서 유성기음반 <아리랑>의 가사, 인적네트워크, 유성기(음반)라는 미디어 그 자체 분석은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분석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반대도 같은 것이다.”라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또한 그 바로 아래 “한편 이 글이 갖는 의문점 중 하나는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들’을 어떠한 분류 체계 속에 넣어야 할 것인가이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어서 “그렇지만 유성기음반이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을 전통가요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통가요와 동일어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민요(民謠)’라는 개념은 ‘俚謠(俚歌)’, ‘俗謠(俗歌)’ 등과 경합하다가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민요’로 확정되어 식민지조선에도 유입된 개념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가요’라는 개념이 유성기음반에 수록된 <아리랑>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이다.”

-> 그렇다면 발표자는 유성기음반에는 향토민요, 통속민요와 같은 흔히 말하는 ‘전통민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발표자가 각주에서 언급했듯이 장유정은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아리랑은 크게 토속민요와 통속민요를 포함하는 전통가요 아리랑과 대중가요 아리랑으로 나눌 수 있다”⁵¹⁾고 하였다. 이런 분류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것은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아리랑은 대중음악적인 요소를 획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3쪽)”라는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서론 마지막에 “지금까지 논의는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 가로 놓여 있는 음악이라는 텍스트의 유연성과 특성을 지목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것의 가장 두드러지게 규명할 수 있는 텍스트가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 <아리랑>이라는 것을 지목하고자 하는 것이다.”에서 유연성과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6쪽 “라디오에서 제국의 문화정치는 ‘황민화’, 프로파간다 등의 의도가 다분했지만 실제 제국 내에서 라디오로 파생된 문화와 그 산물들은 제국 권력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 단편적인 예가 조선인 청취자들이 ‘연예’라는 종목을 좋아했고 이는 편성에도 반영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연예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황민화의 한 방편으로 ‘연예’를 편성했고 이것을 제국 권력의 의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선인 청취자가 원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해서 제국의 황민화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조정하고 이용하는 것도 의도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발표자는 15쪽에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목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라디오방송 <아리랑>의 특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특정곡으로서 <아리랑>에 대한 상위 분류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을 살펴보면, <아리랑>이 송출될 때 방송프로그램명은 특정한 시간에 송출되는 다른 음악들과 함께 나열되거나 ‘俗曲’, ‘俗謠’, ‘新民謠’, ‘女聲合唱’ 등의 상위 범주가 제시된 뒤에 실제 곡명이 제시되고 있다. <아리랑>과 더불어 라디오에서 청취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음악의 세밀한 범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유성기, 라디오라는 소리미디어에서 요구했고 그 소리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청취자)가 듣고 싶어했던 ‘레코-드 보이스’에 따라 프로그램에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기 있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와 연주 기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레코-드 보이스’의 레퍼토리가 프로그램 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파악된다. 이는 두 번째 특성과도 연결되는 논의이다.”

51) 장유정, 「유성기음반(SP) 수록 대중가요 아리랑 텍스트의 반복과 변주-광복 이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학과예술』 제6집,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72쪽.

-> 그렇다면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자들이 청취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음악의 세밀한 범주화를 해야 한다는 말인지 발표자의 의견이 듣고 싶다. 범주화를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범주화가 불가능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현상이 범주화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위 질문은 아래와 관련이 있다.

결론에서는 “한편 이 글은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 텍스트인 <아리랑>의 성격을 대중가요로 규정했다. 유성기음반과 라디오에 재생산된 구체적 텍스트들을 ‘대중가요’라는 역사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 시도이다. 적어도 유성기음반과 라디오방송에서 재생산되었던 <아리랑>은 ‘대중가요’라는 상위범주로 묶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중가요 <아리랑>’이라는 개념으로 정렬되는 특정 텍스트는 유성기, 라디오라는 근대미디어를 통해 해당 미디어의 제작자들의 시선으로 분류·명명(命名)된 바 있다. 그 이름 짓는 방식은 ‘신민요’, ‘속요’, ‘대중가요’, ‘유행가’ 등이었으나 실제 해당 노래의 가창자들이 불렀던 명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대중문화 내에서 근대미디어를 통해 향유·전파되었다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이 글은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에서 재생산된 <아리랑>을 ‘대중가요’라는 상위분류와 해당 텍스트의 제작(생산)자들이 명명한 것을 하위분류로 설정했다.”

-> 그렇다면 11쪽에 제시한 <표2> ‘1945년 이전 라디오방송 <아리랑> 목록’ 중에서 프로그램명으로 제시한 것을 하위분류로 설정한다는 것인지, 유성기음반·라디오방송에서 재생산된 <아리랑>을 ‘대중가요’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근대 미디어를 통한 재생산 하나뿐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제1부〉
주제 : 한국 민요의 자료 구축과 아카이브

제주학아카이브와 민요자료 구축

- 발표 : **좌혜경**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토론 : **이성훈** (송실대학교)

제주학아카이브와 민요자료 구축

좌혜경(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목차>

- I. 서언
- II.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축 현황
- III. 제주민요 자료의 구축
- IV. 『제주민요사전』 발간
- V. 결어

I. 서언

제주학연구센터가 2011년 8월에 개소하여 제주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받아온 것도 거의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 관련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여러 사업 중에서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은 제주학 신진 연구자 양성과 더불어 연구기반 조성, 제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큰 의의가 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현재의 제주는 제주인의 삶과 자연,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제주 세대들에게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전해줌으로써,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제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위해 도·내외 산재해 있는 제주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집대성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각 지역의 현대화는 지역의 생활사 혹은 구술사, 개인이나 특정인들의 Life Story 등 사라져가는 현장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수집 연구가 시급하고, 관련 연구물이나 고문서, 고문헌, 도서, 구술자료나 영상자료, 사진 등의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응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귀중한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 최적화를 위한 공간, 시설, 장비 구성이나 다양한 기록자료(연구물, 사진, CD롬, 녹음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를 수집하고 보존, 분석하여 자료 가치 발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

히 요청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분류, 전시, 연구, 열람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전문 제주학아카이브(관) 설립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디지털화한 자료들을 영구보전하고, 제주학의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2013부터 2017년 현재까지 44,000여건의 문헌과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아카이브’란 용어는 정부나 관공서 및 기타 조직체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소장하여 보관하는 문서관을 뜻하고, 기록보존서를 의미하는 보존문서관을 뜻한다. 이 용어는 프랑스어 ‘Archives’에서 유래하였는데,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는 소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대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있다¹⁾.

또 디지털 아카이브는 수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로 보관, 자료간의 관련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며, 동영상, 음향, 텍스트, 사진, 화상정보, 음악 등 각종 유형의 디지털 정보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에 제주학 아카이브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향(사운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료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확대 뿐 만이 아니라, 21C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학자원의 가치창조와 콘텐츠화 및 산업화를 위한 지식 자원 제공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II.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축 현황

제주학연구센터는 2012년 8월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름대로 관공서, 신문방송사 등이 소장한 자료 수집으로, 2013년 4월 온라인 인터넷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를 오픈하였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제주학 아카이브의 표준 메타데이터 설정을 국가기록원 국제표준기록관리(ISO23081) 메타데이터와 기록관리시스템(RMS)에 의해 정리하였다.

가. 메타데이터 상·하위 요소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객체를 기술하는 표준 요소로 연관된 객체를 배열하기 위하여 권한 통제를 사용하고, 디지털 객체를 위한 조건의 명료한 명시와 용어 사용을 포함

1) 이희재, “아카이브 효율적인 운영과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

하고 있다. ISO 23081-1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국제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호완성을 확보하고 상호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며, 적용 가능한 수준의 자료관리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보존을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 오늘 중점적으로 관련하여 자료구축에 대해 논의할 민요자료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표1> 표준 메타데이터 상.하위요소 설정

상위요소	하위요소 영문명	하위요소 한글명	이행여부
1. Agent (행위자)	1.1 Agent Type	1.1 행위자유형	필수
	1.2 Corporate Name	1.2 소속기관명	필수
	1.3 Corporate Code	1.3 기관코드	해당시 필수
	1.4 Person Name	1.4 개인명	필수
	1.5 Person ID	1.5 개인ID	필수
	1.6 Section Name	1.6 부서명	필수
	1.7 Position Name	1.7 직급	재량
	1.8 E-mail	1.8 이메일	재량
2. Mandate(관련법규)	2.1 Mandate Reference	2.1 법규규정	재량
3.Identifier(고유식별자)	3.1 Main ID	3.1 등록번호	필수
	3.2 Reference ID	3.2 청구기호	해당시 필수
4. Title(표제)	4.1 Main Title Word	4.1 대체목	필수
	4.2 Sub Title Word	4.2 중제목	해당시 필수
	4.3 Alternative Title Words	4.3 소제목	해당시 필수
5. Description(기술)	5.1 Description Type	5.1 기술 유형	재량
	5.2 Description Text	5.2 기술내용	재량
	5.3 Production Period	5.3 제작주기	재량
	5.4 Physical Condition	5.4 물리적 특성	재량
	5.5 Audience	5.5 사용자	재량
6. Type(유형)	6.1 Record Type	6.1 기록유형	필수
	6.2 Alternative Record Type	6.2 기타기록유형	해당시 필수
7. Format(포맷)	7.1 Media Format	7.1 매체포맷	필수
	7.2 Data Format	7.2 데이터포맷	필수
	7.3 Medium	7.3 저장매체	필수
8. Extent(크기)	8.1 Size	8.1 용량	재량
	8.2 Specification	8.2 규격	필수
	8.3 Price	8.3 가격	재량
	8.4 Counter	8.4 등록건수	재량

상위요소	하위요소 영문명	하위요소 한글명	이행여부
9. Classification(분류)	9.1 Classification Name	9.1 분류체계명	해당시 필수
	9.2 Classification Level	9.2 분류단계	해당시 필수
10. Subject (주제어)	하위요소 없음		
11. Date(일시)	11.1 Date Time Created	11.1 생산일시	필수
	11.2 Date Time Receipted	11.2 수집일시	해당시 필수
	11.3 Date Time Registered	11.3 등록일시	필수
12. Business History(생산이력)	12.1 Creation Agent	12.1 생산자정보	재량
	12.2 Contributor	12.2 기여자	필수
	12.3 Source	12.3 출처	재량
	12.4 Addition Number Type	12.4 부가번호유형	재량
	12.5 Addition Number	12.5 부가번호	재량
	12.6 Collection Type	12.6 수집형태	재량
	12.7 Assessment Information	12.7 평가정보	재량
	12.8 Taking Over Agent	12.8 인계자	재량
	12.9 Under Taking Agent	12.9 인수자	재량
	12.10 Taking Over History	12.10 인계이력	재량
13. Preservation (보존)	13.1 Action Type	13.1 보존처리유형	필수
	13.2 Action Date	13.2 보존처리일시	필수
	13.3 Action Description	13.3 보존처리세부정보	필수
14. Location (위치)	14.1 Current Location	14.1 소장처	재량
	14.2 Storage details	14.2 보관위치	재량
15. Retention (보존기간)	15.1 Retention Period	15.1 보존기간	필수
	15.2 Retention Reason	15.2 보존기간책정사유	재량
16. Rights (권한)	16.1 Copyright Status	16.1 저작권 유무	해당시 필수
	16.2 Right Basis	16.2 권한근거	해당시 필수
	16.3 Access Type	16.3 열람형태	재량
	16.4 Internal Access Control	16.4 열람범위	필수
	16.5 External Access Control	16.5 공개여부	필수
	16.6 External Access Authority	16.6 비공개사유	필수
	16.7 Limited Contents	16.7 공개제한부분	필수
	16.8 Related Mandate	16.8 관련근거	재량
17. Management History(관련이력)	17.1 Event Type	17.1 관리유형	필수
	17.2 Event Description	17.2 관리유형세부정보	필수
	17.3 Event Date Time	17.3 관리행위일시	필수
	17.4 Event Mandate	17.4 관련근거	재량
18. Use History (이용이력)	18.1 Use Date Time	18.1 이용일시	재량
	18.2 Use Description	18.2 이용세부정보	재량

상위요소	하위요소 영문명	하위요소 한글명	이행여부
19. Relation (관계)	19.1 Relation Type	19.1 관계유형	필수
	19.2 Relation Description	19.2 관계자료세부정보	재량
20. Aggregation Level (기록계층)	하위요소 없음		
21. Language (언어)	하위요소 없음		

나) 표준 디지털 메타데이터 분류²⁾

메타데이터를 생산맥락에 근거해서 연구물의 집합을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계층으로 나누어, 디렉토리 형태로 제공하여 전체적으로 기록물의 구조와 내용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계층별 검색에서 기록물 조직과 기능에 근거한 군(group)/ 하위군 /계열(series)로 분류하고 해당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을 기술규칙에 의거하는데, 기술(記述, description)은 대량의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 된 기록물 관리방법이다.

다) 제주학 디렉토리 설정

한국십진분류법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듀이십진분류법(DDC: Dewey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의 주류를 바탕으로 모든 지식 분야를 총류(總類)(0), 철학(1), 종교(2), 사회과학(3), 순수과학(4), 기술과학(5), 예술(6), 언어(7), 문학(8), 역사(9) 따위 열 가지 주류(主類: section) 강목(綱目)으로 구분된다.

KDC는 계층적 분류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학문이나 주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점차 구체적인 것들로 전개되고 있다.

제주학 아카이브 연구자료 상, 중, 하 계층별 분류의 근간이 될 것이나 아카이브 구축시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2> 디지털 메타데이터 필수 요소들

구분	요소	하위요소	비고
수집정보	수집구분		기증, 구입, 위탁 내부제작
	입수처		기증자, 판매자, 위탁자, 제작자(촬영자, 기술자)
	수집일자		기증일, 구입일, 제작일(촬영일, 면담일)

2) 국립민속박물관 분류안.

	구입금액		(구입시 등)
	장소	촬영장소/ 면담장소	필요시(내부제작 등)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기증자 · 판매자 · 기타
	소장처		
기본정보	식별번호		
	명칭	이명칭/ 영문명칭/ 원어명칭	
	분류체계 아이디		다중 분류 (제주학 체계)
	분류명		
상세정보	자료번호		필요시(표준자료관리시스템 연계)
	자료설명문		
	주제어		
	공개여부		디지털정보의 공개가부
	공개범위		공개 가능한 범위
	저작권정보	저작권자/ 연락처/ 이용허락 범위/ 저작권 세부사항	
원본정보	원본형태		실물, 필름, LP · VHS · CD · DVD 등 매체형태, 문서, 도서, 디지털자료
디지털정보	파일형식(Format)		
	파일크기(Size)		
	상영시간		필요시(동영상)
	파일		텍스트(PDF포함), 이미지, 동영상, 음향
	디지털정보 공개여부		
관리자 정보	일련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부서명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용여부		
	권한		

라. 분야별 분류 및 통계(2017)

분야별 분류			
총류	142	제주학	85
		연보	7
		학술조사	35
		기타	15
철학	4		
종교	784	무속	761
		기타	12
		불교	11
사회과학	6853	여성	1413
		문화	2389
		민속	626
		사회	902
		교육	172
		행정·법	390
		관광	284
		경제	466
		정치	208
		기타	3
순수과학	2263	동물	453
		식물	536
		환경	453
		해양	536
		지질	272
		기타	13
기술과학	924	의·식·주	306
		건축	38
		농축업	214
		수산업	177
		의학	72
		산업	105
		기타	12
예술	861	음악	759
		미술	53
		기타	49
언어	232	제주어	224
		기타	8
문학	707	구비문학	602
		현대문학	27
		기타	78
역사	24404	고고	375
		지리	53
		제주사일반	22922
		사회	84
		문화	626

		4.3	48
		인물	234
		항일운동	21
		기타	41

마. 유형별 분류 및 통계(2017)

유형별 분류			
제주학DB		4491	
고문헌		66	
해외문헌		7	
고지도		8	
사진	7390	버섯	200
		야생화	163
		노루	31
		곤충	163
		새	114
		목축	128
		포구	267
		해녀	996
		무속	550
		오름	141
		지역사회	2211
		원담	86
		성읍	355
		문화재	1513
		역사기사	242
		해녀음식	165
동영상	756	한라산	3
		자연유산	4
		제주인	30
		해녀	16
		문화상징	102
		대한뉴스	141
		민요	97
		제주어	101
		무속	161
		기타	66
구술(음성)	758	구비전승	37
		민요	618
		생애사	57
		제주어	5
		기타	40
신문기사	4234	제민일보	215

		한라일보	593
		제주신보	424
제주역사	19484	역사신문	3002
		신증동국여지승람	3
		고려사	258
		조선왕조실록	1754
		비변사등록	279
		승정원일기	16123
		일성록	1067

Ⅲ. 제주민요 자료의 구축

제주민요는 현대에 오면서 기계문명의 발달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가창자의 고령화 및 타계로 제주민의 사고와 정서, 제주전통의 맥이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즈음하여 제주민요를 전도적으로 수집하여 디지털화하고 가사 채록 및 음악채보를 통해 전승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했다.

특히 제주민요는 제주사람들의 사고와 정서를 반영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의 토속 음악으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예술적인 승화를 통한 자원화 가능성이 크다. 자료의 구축 과정을 보면

2014년 제주민요 자료 중 MBC나 KCTV 등 기존 소장 자료 및 현장조사 화 한 영상 97건, 구술음성 자료 618건을 아카이브 탑재했다. 종목은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 제주민요 전반으로 채록, 채보를 진행했는데, 조사된 자료 중 원형성 및 희귀성 등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자료를 선정하고, 사설채록과 악보 채보를 통해 『제주민요사전』을 발간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은 제주문화의 원형질과도 같은 문화적 요소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제주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도민의 역량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영상 등을 통해 과거의 민속적 현상을 살필 수 있고 음향(구술) 자료를 구축하여 대내외로 서비스함으로써 제주학 자원의 지적 자산화와 세계화 지향을 목표로 했다.

현재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준 포맷을 준수하고 표준 포맷으로 변환 및 보정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색인 입력이 되어야 한다. 이를 디지털 메타데이터(핵심어, 중심어, 키워드와 같은 구실) 다섯개의 분류항 확보가 가능한데, 민요 분류에서 다섯개의 메타언어와 하위분류가 검색되도록 했다.

다음의 민요 분류³⁾나 노래명을 기준으로 메타언어들을 적용했음을 밝혀둔다.

1. 노동요

1) 농업요

- (1) 따비질노래(따비질소리, 새왓이기는소리)
- (2) 밭가는노래(밭가는소리)
- (3) 곰베질노래(곰베질소리, 흑병에부수는소리, 흑병에두드리는소리)
- (4) 씨레질노래(씨레질노래, 설메질소리, 설메쉐이끄는소리)
- (5) 밀레질노래(밀레질소리)
- (6) 밭밟는노래(밭밟는소리, 밭불리는소리, 조팃불리는소리)
- (7) 김매는노래(김매는소리, 검질매는소리, 사대소리, 아웨기, 농부가, 흥애기, 밭매는소리, 짝른사대)
- (8) 진사대
- (9) 추침사대
- (10) 마당질노래(마당질소리, 도깨질소리, 타작소리)
- (11) 마소모는소리(텃ㅁ쉬모는소리, 거름실어가는소리, 흑불리는소리, 쉼모는소리)
- (12) 돛거름불리는소리(돼지거름밟는소리, 거름밟는소리)

2) 어업요

- (1) 해녀노래(해녀노젓는소리, 줌녀노젓는소리, 노젓는소리, 네젓는소리, 줌녀소리)
- (2) 해녀항쟁가
- (3) 출가해녀의노래
- (4) 태왁춤해녀노래
- (5) 테우젓는노래(선유가)
- (6) 테우만드는소리
- (7) 멸치후리는노래(멸후리는소리, 멸치잡는소리)
- (8) 갈치낚는노래(갈치낚는소리)

3) 임업요

- (1) 대톱질노래(대톱질소리, 나무베는소리, 낭꾼치는소리, 나무켜는노래, 낭싸는소리)
- (2) 나무내리는노래(나무내리는소리, 낭내리는소리)

3) 제주연구원, 『제주민요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15.

- (3) 나무오리는노래(낭깹는소리, 낭오리는소리, 도끼질소리, 귀자귀질소리)
- (4) 낭깹는소리(나무쫓개는소리)
- (5) 꿀베는노래(출비는흥애기, 출비는소리, 출비는흥애기, 흥애기소리)

4) 제분요

- (1) 맷돌가는노래(ㄱ레ㄱ는소리, 맷돌노래, 맷돌돌리는노래)
- (2) 방아노래(남방애소리, 방엿노래, 방아짚는소리, 방아질소리)

5) 관망요

- (1) 양태노래(양태쫓는소리, 양태몬는소리, 양태걸는소리)
- (2) 탕건노래(탕건몬는소리, 탕건걸는소리)
- (3) 망건노래(망건몬는소리, 망건쫓는소리, 망건걸는소리)

6) 잡역요

- (1) 방앗돌끌어내리는노래(연자맷돌끌어내리는소리, 성벽돌굴리는소리, 낭글세왕)
- (2) 똑딱불미노래
- (3) 디딤불미노래(디딤불미소리)
- (4) 집줄놓는노래(집줄놓는소리, 집줄비는소리)
- (5) 흙이기는노래(흙이기는소리, 질뚝림소리, 망데기질드리는소리)
- (6) 집터다지는노래(원달구소리)
- (7) 새벽질노래(흑질소리, 흑불르는소리)
- (8) 실뿔는소리(물레노래, 브르는무르애소리)

2. 의식요

- (1) 행상노래(행상소리, 상여소리, 상여노래)
- (2) 진토긋파는노래(솔기소리, 진토긋소리)
- (3) 달구질노래(달구소리, 평토소리)
- (4) 꽃염불소리
- (5) 무속의식요(탐벌소리)

(6) 회심곡

3. 유희요

- (1) 서우제소리(산신서우제소리, 요왕서우제소리, 영감서우제소리)
- (2) 오돌또기
- (3) 산천초목
- (4) 봉지가
- (5) 동풍가
- (6) 용천검
- (7) 신목사타령(관덕정앞)
- (8) 중타령
- (9) 너영나영(느영나영, 너녕나녕)
- (10) 영주십경가
- (11) 계화타령
- (12) 사랑가(삼마둥둥)
- (13) 이야홍
- (14) 성주풀이
- (15) 질군악

4. 동요, 자장가

가. 동요

- (1) 고무줄노래(고무줄놀이요, 고무줄하는소리, 줄놀이노래)
- (2) 풀각시만드는소리(각시놀이요, 풀각시놀이요)
- (3) 소꿉놀이요(소꿉장난하는소리)
- (4) 꿩노래(꿩놀래)
- (5) 우렁삼촌
- (6) 까마귀노래(가마귀놀래)
- (7) 옛날뒹날
- (8) 매미잡는노래(주열재열)

- (9) 잠자리잡는노래
- (10) 방아깨비잡는노래
- (11) 뱀쫓는노래
- (12) 비노래
- (13) 맹꽁이노래
- (14) 별세는노래
- (15) 말잇기놀이요(끝말이어가기)
- (16) 꿈쫓꿈쫓(고사리노래)
- (17) 다리세기놀이요
- (18) 쇠비름노래
- (19) 이빠진애를놀리는노래
- (20) 기러기노래
- (21) 반딧불잡이 노래
- (22) 달팽이(곤각시노래)

나. 자장가(윙이자랑, 아기구덕흥그는소리, 애기흥그는소리, 아기재우는소리)

IV. 『제주민요사전』 발간

자료는 아카이브에 탑재 후 검색이 필요한데, 검색을 위한 관련어 사전을 시소러스(Thesaurus)라고 한다. ‘검색어집’, ‘컴퓨터에 기록된 정보의 색인’, 혹은 ‘유사어사전’ (類似語辭典)라 할 수 있다.

DB추가에 따라 새로운 경우의 수 등장에 따른 업데이트가 수시로 진행되어야 하고 입력된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의 집합, 관련어사전 (關聯語辭典)을 컴퓨터에 입력⁴⁾ 해서 검색어로 입력된 단어뿐 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단어 동등, 계층, 연관 관계를 인식해서 검토, 보완, 용어 추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우선 민요를 모델로 해서 기존 채록된 영상이나 음성(구술) 디지털자료를 바탕으로, 제주 전역의 창자들의 수집된 600여 편 중 가장 원형성이 잘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정한 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가사채록과 음악 채보를 진행하였다.

4) 김시덕, “박물관 정보화를 위한 기초정보 생산과 DB구축”『박물관학보3』, 한국박물관학회, 2000.

노래명의 표기는 표준어명을 내세우고 창자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지는 제주어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노래가사 정리는 음보별로 구분하되 각 음보 안에서 띄어쓰기를 했다.

음악적으로는 제주민요의 노동기능에 맞는 음악적 특성이 잘 나타난 곡을 선정하여 채보하고 제주민요의 전승이나 후세교육에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민요에 드러나는 제주어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노래 속에 고정되어 널리 전해지는 관용구(절)를 선정하고 그 뜻을 현대어로 풀이하여 민요속의 전통적인 정서와 그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용구(절)와 제주민요 어휘는 문헌들⁵⁾에 나타난 자료들을 활용하여, 어휘와 어석(語釋)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 실린 음성, 구술 및 영상자료는 ‘제주학아카이브(www.jst.re.kr)’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 이용이 가능하다.

V. 결어 : 제주학아카이브관 건립

앞에서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체계성, 대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자료 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 제공으로 통합 교류 및 글로벌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특히 제주의 민요를 비롯한 전통문화 관련 신화, 해녀, 돌문화 등 문화 콘텐츠 확대 재생산을 통해 문화자원화가 가능하고, 구축된 자료를 교육, 연구, 창작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기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아시아 최대의 제주지역학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LAM: Libraries, Archives, Museums)의 기능을 갖춘 제주학아카이브관 건립으로 한국과 세계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최대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동아시아 최대 역량을 갖춘『제주학아카이브관』 건립

- 제주학 자료 관리의 기능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 전자기록물 보관 및 온라인시스템으로 정보전달의 기능

5) 진성기, 『오돌또기』, 우생출판사, 1960.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제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제주문화방송, 1992.

좌혜경편, 『제주섬의노래』, 국학자료원, 1995.

- 기록매체 유형별 보존과 환경에 맞는 과학적·다기능 시설
- 제주학 자료를 대내외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 교육관 기능
- 기록관리 기능대비 공간구성(작업, 사무, 서비스)과 동선체계 구체화
- 재난 시 복구기능, 분산 보존대책, 전자기록물에 대한 수장고 저장계획

○ 유관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 분담

- 관련단체·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계사업 방안 도출
- 도청·시청 등 공공기관과 통합관리 운영체계 마련

○ 시민소통과 정보공유의 공간 활용을 위한 운영

- 제주학 자료의 공개 및 열람프로세스 설계 및 운영방안 제시
- 아카이브의 현대적 기능에 대한 학계 연구 성과⁶⁾와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기능을 도출하여 방향을 제시
- 현대적 아카이브 전시 기본방향 및 상설·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 정책기획, 관리 프로그램 기획

- 정책개발, 대외교류협력, 홍보 등
- 자료 보존 계획 수립
- 표준 모델 개발
- 협력망 구축

○ 자료 수집 및 등록

- 수집 총괄, 자료 수집기획 및 방법 운영, 자료 분류, 자료DB 등록
- 귀중본 지정 및 고서 등 보존 관리 업무, 기증문고 설치 및 관리이용

○ 자료 연구 분석

- 수집,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 기획운영

6) 김시덕, 2008, “민속아카이브 구축”, 『민속연구』17,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김시덕, 2000, “박물관 정보화를 위한 기초정보 생산과 DB구축” 『박물관학보3』, 한국박물관학회.

김시덕, 2010, “민속아카이브와 사진민속학”, 『생활문화연구』26, 국립민속박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즈 구축 기본계획 (안)」, 2010. 12.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연구 사업수행계획서,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기록과 경영연구원, 2013.

- 분류체계 수립 및 보고서 발간
- 콘텐츠 개발

○ 정보화 업무

- 소장 유물 DB 구축, 관리, 전시운영
- 표준아카이브시스템 개발 운영
- 디지털 변환, 아카이브 자료통합 관리

○ 이용자 서비스

- 디지털 콘텐츠 정보 유통 관리 및 정책 수립
- 멀티미디어 활용 기반 구축

「제주학아카이브와 민요자료 구축」에 대한 토론문

이성훈(송실대학교)

이 글은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축 경위와 경과, 제주학아카이브의 구축현황과 제주민요 자료의 구축, 제주민요사전의 발간경위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자는 문헌정보학이나 전산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메타데이터 설계와 작성에 대해서는 과문하다. 제주학아카이브(www.jst.re.kr)에 탑재된 제주민요 자료의 구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민요 분류의 문제이다. 제2장의 ‘1. 노동요 2) 어업요’에서 ‘(2) 해녀항쟁가’와 ‘(3) 출가해녀의 노래’, ‘(4) 테왁춤해녀노래’를 어업요의 하위분류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제2장의 ‘2. 의식요’에서 ‘(4) 꽃염불소리’와 ‘(5) 무속의식요(탐벌소리)’, ‘(6) 회심곡’을 의식요의 하위분류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 제주학아카이브의 ‘HOME> 유형별정보> 구술(음성)> 민요’에 탑재된 자료의 검색과 분류 문제이다. 탑재된 자료의 검색 기능이 있지만 탑재된 자료를 쉽게 접하기 어렵다. 자료의 제목을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지 않고 자료를 탑재한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 “HOME> 유형별정보> 구술(음성)> 민요(618번 계화타령, 617번 자탄가, 616번 해녀노젓는소리~)”가 그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민요대관’의 분류 체계를 따르는 게 어떨지 묻고 싶다.

HOME> 음성자료> 한국민요대관> 기능별> 노동요> 농산노동요> **논농사요**(가래소리~논가는소리~도리깨질하는소리~)//**밭농사요**(검질메는소리~긴사데소리~).

HOME> 음성자료> 한국민요대관> 기능별> 노동요> 수산노동요> **고기잡이요**(가래소리~노젓는소리~이여도사나소리)//**해물채취요**(노젓는소리~해녀노젓는소리~해녀소리)

3. ‘제주학아카이브의 ‘HOME> 분야별정보> 문학> 구비문학’의 경우에도 무가 동영상, 사진, 설화텍스트, 논문, 단행본 등이 혼재되어 탑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면 어떨지 묻고 싶다. ‘HOME> 분야별정보> 문학> 구비문학> 무가(동영상/ 사진). ‘HOME> 분야별정보> 문학> 구비문학> 설화(텍스트/ 사진). ‘HOME> 분야별정보> 문학> 구비문학> 논문(무가/ 민요/ 설화). ‘HOME> 분야별정

보> 문학> 구비문학> 도서(단행본/ 정기간행물).

4. 제주학아카이브의 'HOME> 유형별정보> 구술(음성)> 민요'에 탑재된 자료의 문제이다. 성악가와 창민요 소리꾼이 부른 '해녀노젓는소리(해녀노래)'와 해녀들이 부른 '해녀노래'가 구분 표지 없이 탑재되었다. 테너 현행복이 부른 '해녀노젓는소리(해녀노래)'는 노동요 해녀노래를 편곡하여 가곡으로 부른 것이고, 창민요 소리꾼인 김주산이 부른 '해녀노래'와 혼소리예술단 양순옥이 부른 '해녀소리'는 장구 장단에 맞춰서 창민요 방식으로 부른 것이다. 이것을 해녀 김경성이 부른 '해녀노젓는소리'와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이 '해녀노래'의 원형과 변형을 구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2부〉
주제 : 지역 민요의 지속 보전과 자원화 방안

아리랑 아카이브와 자원화

- 발표 : 정우택/한진일 (성균관대학교)
- 토론 : 이영식 (강릉원주대학교)

아리랑 아카이브와 자원화

정우택·한진일(성균관대학교)

<목차>

1. 머리말
 - 1) 삶의 소리 아리랑과 아리랑 연구
 - 2) 노래를 넘어선 아리랑이라는 상징 혹은 미디어
2. 종합적 학술연구와 아리랑 문화원형의 축적을 위한 아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 1) 정선아리랑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아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 2) 아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결과
3. 아리랑 DB 기반 웹사이트 개발
 - 1) 아리랑 웹사이트 개발 방안
 - 2) 아리랑 웹사이트 메뉴 구성

1. 머리말

1) 삶의 소리 아리랑과 아리랑 연구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만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가 정선아리랑을 대표하는 노랫말로 자리잡은 것은 1960년대이며 여기에는 근대문학적 관점이 개입되었다. ‘고려 유신-거칠현동’ 기원설에는 정선아리랑이 양반 사대부에게서 유래한 ‘고급’한 노래라는 상층기원설과 관련이 있다. 정선아리랑을 상층-사대부 기원설을 통해 문자라는 리터러시의 권위 속에 등재시키려는 세력(관, 유식자, 유지)과 실제 아리랑을 노동과 생활 속에서 소리와 구전으로 전승 전파하며 부르는 민중들, 그 사이에는 ‘문자성/ 구술적 현장성’의 인정투쟁이 벌어졌다.¹⁾

민요와 아리랑은 근대문학이라는 제도 성립의 자장 속에서 발견되고 연구되었다.

1) 정우택, 「정선아리랑의 정립과 기원의 창조」, 『국제어문』 제65집, 2015.6, 38쪽.

근대문학은 눈으로 읽는 문자의 권위와 학제, 매체, 도시, 언어 등의 제도를 통해 형성되었다. 민요는 조선어문학과, 문단, 문자미디어, 구비문학 속에 수렴되고 어문학 속에서 연구되었다. 조선총독부 조사 『俚謠俚諺及通俗的讀物等調査』,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 출신들의 민요 채집과 민요집 발간, 문단의 민요집 발간 등이 이어졌다.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구비문학대계의 민요 채록 등은 주로 민요를 문자로 채록하는 것이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선아라리 연구조사팀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정선군에서 61개 노래판에서 조사한 2,600편의 아라리를 모아 『정선의 아라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란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²⁾ 책 편집의 핵심 방향은 아라리의 현장성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사내용을 각 판별로 ‘조사지역, 조사일시, 마을 개관, 구연 상황, 제보자, 제보자별 노래현황표’를 정보로 제시하여 현장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또 <대답판>을 실어 주요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선아라리의 역사적, 사회적 현장성, 개인 삶과 아라리의 구체적 관련성, 정선아라리에 대한 그들의 생각 등을 소개하였다. ‘부록’에는 <노랫말 어휘풀이>를 실어 지역어 및 생소한 어휘에 대한 풀이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로서의 아라리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소리를 문자로 환원하는 한, 이는 불완전한 보고일 수밖에 없다. 정선의 사람들은 아라리 혹은 소리라고 한다. 이를 온전한 소리로 복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선에서는 정선아리랑을 소개하는 수많은 테이프와 CD를 발매했다. 하지만 이 또한 소리의 현장성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장성을 100%로 복원할 수는 없다.

이제 소리와 문자, 영상을 대중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과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었다. 단순히 소리의 현장을 풀샷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연구자와 대중이 듣고 보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데이터를 상호 교차할 수 있는 환경의 개발도 필요한 것이다.

2) 노래를 넘어선 아리랑이라는 상징 혹은 미디어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영화’라는 근대적 미디어와 결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영화의 서사와 기법, 주제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아리랑의 미학이 형성된 것이다. 영화 아리랑의 흥행 결과 주제가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다른 장르로도 확산되었다.

2) 정우택, 「정선아라리의 조사 현황과 데이터 정리 및 활용 전망」, 『한국민요학』 14집, 한국민요학회, 2004. 6

아리랑은 노래, 映畵, 연극, 舞踊, 댄쓰곡. 무엇에든지 그 勢力을 폐게 되었다. 노래는 金蓮實 嬢이 朝鮮서 몬저 불넛다.³⁾ 영화는 羅雲奎 씨가 主演 製作한 것이다. 연극은 朴承喜 씨가 著作 演出하였다. 무용은 襄龜子 女史가 案舞 발표하였다. 댄쓰곡은 시에론 레코-드에서 編曲 吹込하였다. 新아리랑은 筆者가 作詞 李애리스 嬢이 불넛다.⁴⁾

이후 아리랑은 노래를 넘어 영화, 연극, 무용, 대중가요, 상품명 나아가 민족의 상징이 되었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아리랑이 편곡되고 재창작되고 실연되었다. 이제 아리랑은 소리, 민요와 별개의 다양한 장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존재하고 생성되고 있다. 아리랑 아카이브 역시 이런 아리랑의 존재양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리랑 아카이브는 콘텐츠의 나열이나 보여주기를 넘어 콘텐츠의 배열과 검색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아리랑 아카이브가 아니라 접속자가 이 아카이브 안에서 자료를 마음대로 재배치하고 결합하고 검색함으로써 경향성과 새로운 의미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문 기사와 잡지 기사 속의 아리랑을 검색함으로써 아리랑과 사회 문화, 시대와의 관련성을 추출하고 추상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본 아카이브의 특징은 세계의 아리랑을 망라하려고 노력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각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아리랑이 생성되고 있는 현장도 추적해 보고자 했다. 하여 중국 조선족, 일본 자이니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아리랑을 조사하고 인터뷰 하여 아리랑의 세계적 존재방식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나아가 미주와 유럽 등 세계 속의 아리랑의 존재 형식과 존재 방식을 확인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주로 아리랑 음원 및 콘텐츠, 음반과 공연, 인터뷰 등을 통해 구현할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이 아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도 조금씩 시도하고 있다.

3) 김연실이 레코드 취입한 것보다 최동원이 한 달 앞선다. 채동원(채규엽), <아리랑(유행가)>(콜럼비아 40070A, 1930년 2월 발매), 김연실, <아리랑>(빅타 49071, 1930년 3월 발매).

4) 이서구, 「조선의 유행가」, 『삼천리』, 1932.10, 85면.

2. 종합적 학술연구와 아리랑 문화원형의 축적을 위한 아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정선아리리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아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1980년대 초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채록된 정선아리리는 대부분 카세트테이프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 카세트테이프는 답사를 마치고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 반복하여 듣고 그 노랫말을 문자로 기록하여 정리한 뒤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카세트테이프에 담긴 ‘소리’의 보존에 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리작업이 끝난 카세트테이프들은 음향보존을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보관되었다.

하지만 카세트테이프는 매체 특성상 재생 빈도와 습기, 자기 등에 의해 음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이다. 카세트테이프에 담겨 있는 소중한 현장의 ‘소리’들을 훼손 없이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카세트테이프를 모두 디지털 음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현재 정선아리리 현지조사에서 채록된 카세트테이프 144개, 비디오테이프 36개, MD 10개와 제천, 단양, 충주 지역에서 아리리 컨텍스트 차원에서 조사한 MD 15개를 모두 디지털 음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음원 훼손 없이 현지조사 자료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셈이다.

디지털 전환 작업은 1단계로 아날로그 음원인 카세트테이프 녹음자료를 디지털 음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이어 2단계로 판 단위의 디지털 음원을 각각의 노래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60여 개의 판 단위 소리덩어리가 7,200여 개의 노래로 분리된 것이다. 이로써 20여년 동안 수집·채록되어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문자텍스트(의미)만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수천 편의 정선아리리가 ‘소리’와 ‘의미’를 동시에 지닌 문화원형으로서의 자격을 비로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음원으로 분리된 각각의 노래는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이다.

각각의 노래 단위로 음원을 분리하는 2단계 작업을 통해 당시 노래판에서 불렀던 정선아리리 이외의 <베틀노래>, <따북네>, <어랑타령> 등의 다양한 소리에 대한 음원을 분리·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판에서 불려졌던 노래와 노래 사이에 조사자와 제보자, 혹은 제보자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 제보자들의 인생사, 생활정서, 노랫말의 의미 등 아리리 생산의 생태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정선아리리 연구나 정선아리리의 생태환경을 복원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선아라리 디지털 전환 2단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된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지원사업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는 3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선아라리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지원사업에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집성 및 세계적 DB 구축> 과제로 신청·선정되어 3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과제에는 1980년대 정선아라리 조사·연구를 수행해 왔던 기존의 성대 연구자들에 30여 년간 국내외 아리랑을 현장에서 조사·수집·연구해 왔던 연구자들이 합류하여 팀을 구성했고,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의 연구를 진행했다.

아리랑의 집성과 DB의 구축이라는 목표는 한민족 공동체의 표상으로 자리잡으며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아리랑의 학제적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아리랑 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는 문화원형을 축적하는 데 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 DB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첫째, 아리랑 및 아리랑 관련 자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포괄적으로 집성하는 데 주력했다.

아리랑이 전승·확산·변용·재창조되는 전 면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리랑의 근간인 향토민요 아리랑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영화, 연극, 문학,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아리랑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되던 향토민요 아리랑이 20세기 근대 미디어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전파되었고, 나아가 디아스포라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주, 유럽 등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아리랑 및 아리랑 관련 자료 또한 수집·정리해 왔다.

둘째, 아리랑 및 아리랑 관련 자료에 대해 현장론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수집·정리하고 있다.

아리랑은 삶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전승되어 왔다. 때문에 아리랑 조사는 삶을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가사, 음원, 구연상황, 조사자, 가창자, 조력자의 처지, 가창방식, 기능, 청중의 반응, 노래에 얹힌 일화, 조사자의 생애담 등 최대한 많은 정보들이 함께 전달되는 현장론적 조사방법을 통해 아리랑이 생산되는 생태환경에 대한 정보까지 DB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리랑 DB의 현장 정보는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의 등의 형태로 공급하되, 음성자료, 영상자료를 기본정보로 삼고, 여기에 텍스트 자료를 보충정보로 하여 아리랑의 생태환경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구축되고 있다.

셋째, 수집된 모든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해설정보를 제작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음성과 문자, 영상 등을 연동하거나 보정하여 제시한다. 1980년대 녹음기 상태나 노인들의 발음 상태, 사투리, 구연현장의 혼란 등으로 인해 인지

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해설정보를 제작하여 DB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음성, 영상 등의 원자료를 DB 검색을 통해 재현하려면 자료의 집적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1980년대부터 현지 조사를 통해 채록·보관되어 있는 결과물들은 모두 아날로그 녹음테이프, 아날로그 비디오테이프, 아날로그 필름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날로그 자료들을 아리랑 DB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모두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하여 정보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구축된 아리랑 DB를 기반으로 하는 아리랑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팀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 서버에 그동안 구축해 왔던 아리랑 DB를 아리랑 웹사이트 내에 구축하여 웹서비스 하기로 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의 학술서버에는 ‘한국경학자료시스템’, ‘한국족보자료시스템’ 등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 웹사이트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아리랑 DB 기반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아리랑 관련 웹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웹사이트 설계,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

2) 아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결과

(1) 향토민요 아리랑

현지조사 및 현지조사 기반 문헌자료를 통해 수집·정리된 아리랑 자료는 노랫말 하나하나마다 노래의 종류, 성격, 가창자, 채록자, 채록지역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일시, 장소, 조사자, 마을개관, 구연상황이 담긴 노래판정보와 가창자 성명, 나이, 성별, 개인특성 등을 담고 있는 가창자정보를 하위 정보로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수집·정리된 향토민요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향토아리랑	노랫말 (문자텍스트)	노래 음원 (MP3)	노래판정보	제보자정보
강원권지역 아리랑 +정선아라리	채록:8,263편 문헌:7,474편	7,155개	412판	1,467명
경상권지역 아리랑 +밀양아리랑	채록:574편 문헌:1,479편	553개	55판	81명
전라권지역 아리랑 +진도아리랑	채록:115편 문헌:3,109편	115개	1판	9명
경기권지역 아리랑	문헌:1,141편	-	-	-
북한 아리랑	문헌:3,100편	424개	-	-
중국 조선족아리랑	채록:460편 문헌:1,641편	-	54판	60명
러시아 고려인아리랑	채록:192편 문헌:148편	-	27판	27명

(2)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 정보

인쇄매체 소재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목록화하였다. 총 1,142개의 작품을 작품명, 장르, 필(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등의 정보와 함께 목록화하였으며 아리랑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해설정보를 제작했다.

(3)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

신문 잡지 소재 아리랑 관련 기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목록화하였다. 해방 전 기사 421개와 해방 후 1999년까지의 기사 3,432개 등 총 3,853개의 아리랑 관련 신문 기사를 기사제목, 필자, 개재일시, 개재지, 개재면수, 지면, 기사성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목록을 만들었으며, 각 기사마다 아리랑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해설 정보를 제작했다.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의 목록화는 현재 인터넷 기사검색을 허용하고 있는 일부 신문을 대상만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다른 국내 언론 매체에 대한 조사 연구와 함께 국외의 언론 매체에 대한 확장적 연구가 보완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4) 아리랑 관련 음반 정보

아리랑 관련 음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일본에서 제작·발매된 아리랑 SP음반 총 84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목록화하였는데, 1945년 이전의 음반 43종, 1945~55년에 발매된 SP음반 19종, 1960~80년대에 발매된 SP음반 22종 등이다. 국내에서 제작·발매된 아리랑 음반에 대한 정보도 수집·정리했는데, 우선 1950년대 후반에 제작·발매된 정선아리랑 SP음반 3종, 1970년 이후에 발매된 정선아리랑 LP음반 3종 및 정선아리랑이 수록된 10인치 LP음반 4종과 12인치 LP음반 65종에 대한 정보와 식민지시기 발매된 187종의 아리랑 SP음반에 대한 정보를 목록화하였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45년 이후 제작·발매된 368개의 아리랑음반에 대한 정보도 목록화하였다.

(5) 아리랑 관련 문학 작품

인쇄매체 소재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목록화하였다. 총 1,142개의 작품을 작품명, 장르, 필(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등의 정보와 함께 목록화하였으며 아리랑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해설정보를 제작했다.

(6) 유튜브 소재 아리랑 관련 자료

다양한 아리랑 관련 미디어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유튜브를 검색하여 총 8,014개의 아리랑 관련 콘텐츠를 확인하였다. 이들을 분류하면 개인창작물(플래시몹, UCC 등)은 1,245개, 게임(게임음악, 음악게임 등)은 36개, 현장에서 녹화된 공연물은 3,790개,

광고 2개, 방송(음악방송, 뉴스 등) 1,096개, 영화(영화음악 등) 30개, 음반(음반이 확실히 명기된 것. SP, LP 플레이 영상 포함) 228개,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미분류 1,587개 등이다.

각 콘텐츠들은 제목, 원매체, 지역, 분류 등의 기본 정보를 담아 목록화하였으며, 개별 콘텐츠를 수집·정리하는 동시에 각 콘텐츠에 대한 해설정보를 제작했다.

3. 아리랑 DB 기반 웹사이트 개발

1) 아리랑 웹사이트 개발 방안

성균관대학교 아리랑 연구팀은 아리랑 DB 토대사업을 통해 축적된 아리랑 DB의 결과물(문서, 이미지, 영상, 오디오)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학술 서버에 웹서비스로 개발하여 공개함으로써 아리랑 관련 콘텐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아리랑 연구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아리랑 웹사이트 시스템 개발 개념도>

아리랑 웹사이트의 시스템 개발 단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단계	요건정의	DB/화면구성	상세화면설계	프로그래밍	테스트/디버깅
절차 내용	실무책임자/담당자 PM/개발자	PM/디자이너	PM/디자이너	PM / 개발자	실무책임자/담당자 PM/개발자
	• 단계별, 항목별 개발 일정 수립 • 구체적인 업무협의 및 요구조건 반영	• 정의된 요건에 적합 한 DB 설계 • 요구사항을 적용한 메뉴구성 및 화면구성	• 디자인 시안제작 • 디자인 시안 및 화면구성을 기반으로 상세 화면 설계	• HTML 코딩 • 웹 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된 웹 서비스 테스트 • 오류 및 수정사항 반영

<아리랑 웹사이트 시스템 개발 단계>

현재 ‘상세화면설계’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2월 완성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아리랑 웹사이트 메뉴 구성

(1) 아리랑 노랫말 검색

아리랑 노랫말 검색메뉴는 현지채록 아리랑(9,509건), 문헌소재 아리랑(16,667건), 미디어소재 아리랑(1,294건) 등의 노랫말을 검색할 수 있는 2차 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1차메뉴	2차메뉴	검색목록 결과	상세자료보기
아리랑 노랫말	현지채록 아리랑	검색결과 항목 순서/연번/가창자/ 노랫말/자료성격/아 리랑 분류	1. No. : “연번” 2. 자료성격 : “자료성격” 3. 아리랑 종류 : “중분류” / “소분류1” 4. 채록일시 : 노래판구분=>노래판정보 탭에 포함된 같은 노래판구분의 “채록일시” 5. 채록장소 : 노래판구분=>노래판정보 탭에 포함된 같은 노래판구분의 “채록장소” 6. 가창자 : “가창자”(가창자정보탭에 포함된 “성별”, “채록당시 연령”) 7. 노랫말 : “노랫말 전절” / “노랫말 후절” * 음원 연결 재생(음원공개 Y만)

문헌소재 아리랑	검색결과 항목 순서/연번/가창자/ 아리랑 노랫말/자료성격/아 리랑 분류	1. No. : “연번” 2. 자료성격 : “자료성격” 3. 아리랑 종류 : “중분류 ” / “소분류1” 4. 채록문헌명 : 문헌정보구분=>자료소재문헌정보 탭에 포함된 “자료소재문헌명” 5. 문헌간행일 : 문헌정보구분=>자료소재문헌정보 탭에 포함된 “출간년도” 6. 가창자 : “가창자”(가창자정보탭에 포함된 “성별”, “채록당시 연령 ”) 7. 노랫말 : “노랫말 전절 ” / “노랫말 후절 ” * 음원 연결 재생, 이미지 보여주기(이미지 공개 Y만)
미디어소재 아리랑	검색결과 항목 순서/연번/가수/아 리랑 노랫말/음반명/성격	1. No. : “연번” 2. 자료성격 : “자료성격” 3. 아리랑 종류 : “노래성격 ” / “음반명 ” 4. 음반발매일 : “발매(연월)” 5. 음반제작사 : “회사” 6. 가창자 : “가수 ” 7. 노랫말 : “노랫말 전절 ” / “노랫말 후절 ” * 음원 연결 재생(공개 Y만)

○ 현지채록 아리랑 노랫말 검색

현지채록 아리랑의 검색결과 화면은 ‘가창자’, ‘노랫말’, ‘자료성격’, ‘아리랑 분류’ 등의 기본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순서	연 번	가창자	노 랫 말	자료성격 아리랑 분류
1	RC_JSAR001-012	이태욱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가 질라나 / ~	현지채록 강원지역아리랑
2	RC_JSAR002-072	미상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역수장마 질라나 / ~	현지채록 강원지역아리랑
3	RC_JSAR002-093	미상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가 질라나 / ~	현지채록 강원지역아리랑
4	RC_JSAR002-098	미상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가 질라나 / ~	현지채록 강원지역아리랑
5	RC_JSAR002-101	미상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역수장마가 질라나 / ~	현지채록 강원지역아리랑
6	RC_JSAR006-011	이금옥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 질라나 / ~	현지채록 강원지역아리랑
7	RC_JSAR007-015	송남순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 질라나 / ~	현지채록 강원지역아리랑

1 2 3 4 5 6 7 8 9 10

<현지채록 아리랑 검색결과화면 예시>

현지채록 아리랑의 상세보기 화면은 ‘아리랑 종류’, ‘채록일시’, ‘채록장소’, ‘가창자 정보’, ‘노랫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각 아리랑 노랫말의 음원이나 영상이 웹 상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될 것이다.

1. No. : RC_JSAR002-072

2. 자료성격 : 현지채록 아리랑

3. 아리랑 종류 : 강원지역 아리랑 / 정선아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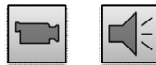
4. 채록일시 : 1983년 1월 22일

5. 채록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김병하씨 집

6. 가창자 : 이태옥(남, 48)

7. 노랫말 :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가 질라나

/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현지채록 아리랑 상세보기 화면 예시>

아리랑 DB를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 구축 과정에서 특기할 점은 웹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아리랑 연구를 확장·심화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정보를 함께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웹서비스의 상세정보 화면에는 가창자의 이름, 성별, 나이 등의 정보만 제공되지만 자료를 입력·수정하는 관리자 화면에는 가창자의 특이 정보, 구연 태도 등의 정보와 함께 노래판의 마을 개관, 구연상황 같은 현장정보도 누적적으로 입력하고 있어 향후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rirangDB Admin		아리랑 DB 관리자 화면		LOGOUT	
노랫말 관리 ▶ 현지 채록 ▶ 문헌 소재 ▶ 미디어 소재 매체 관리 ▶ 문학작품 ▶ 신문기사 ▶ 음반 인터뷰 관리 ▶ 아리랑관련 인터뷰 WEB 콘텐츠 관리 ▶ 유튜브 상세 DB 정보 ▶ 가창자 정보 ▶ 노래판 정보 ▶ 문헌 정보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악보선택 찾아보기...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동영상선택 찾아보기...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이미지선택 찾아보기...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대분류 향토민요 * 중분류 강원지역아리랑 아리랑 종류 - 중분류 / 소분류1 * 소분류1 정선아리랑 아리랑 종류 - 중분류 / 소분류1 소분류2 간아라리 소분류3 본노래 * 자료성격 현지채록 아리랑 조사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민요반 등록 삭제			

성균관대학교
Copyright © 200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All Rights Reserved
[110-745] 서울시 용도구 명분종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08호

<현지채록 아리랑 관리자 화면>

○ 문헌소재 아리랑 노랫말 검색

문헌소재 아리랑의 검색결과 화면은 ‘가창자’, ‘노랫말’, ‘자료성격’, ‘아리랑 분류’ 등의 기본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순서	연 번	가창자	노 랫 말	자료성격	아리랑 분류
1	DC_KWAR001_001-093	미상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 ~	채록문헌	강원지역아리랑
2	DC_KWAR002_001-121	미상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질라나 / ~	채록문헌	강원지역아리랑
3	DC_KWAR002_001-122	미상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옥수장마질라나 / ~	채록문헌	강원지역아리랑
4	DC_KWAR002_001-233	미상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 ~	채록문헌	강원지역아리랑
5	DC_KWAR005_003-022	양동욱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 ~	채록문헌	강원지역아리랑
6	DC_KWAR008_001-004	백귀녀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 장마 질라나 / ~	채록문헌	강원지역아리랑
7	DC_KWAR008_004-006	김은려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가 질라나 / ~	채록문헌	강원지역아리랑

1 2 3 4 5 6 7 8 9 10

<문헌소재 아리랑 검색결과화면 예시>

문헌소재 아리랑의 상세보기 화면은 ‘아리랑 종류’, ‘채록문헌명’, ‘문헌간행일’, ‘가창자 정보’, ‘노랫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1. No. : DC_KWAR008_004-006
2. 자료성격 : 채록문헌 소재 아리랑
3. 아리랑 종류 : 강원지역 아리랑 / 점선아라리
4. 채록문헌명 : 강릉어문학 제5집
5. 문헌간행일 : 1988. 12. 31.
6. 가창자 : 김은려(여, 72)
7. 노랫말 :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가 질라나 / 난데없는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드네



<문헌소재 아리랑 상세보기 화면 예시>

○ 미디어소재 아리랑 노랫말 검색

미디어소재 아리랑의 검색결과 화면은 ‘가수’, ‘노랫말’, ‘음반명’, ‘성격’ 등의 기본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순서	연 번	가수	노 랫 말	음반명	성격
1	ABM_ARSN00002	미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에 꽃을 심어 / ~	넋두리아리랑	잡가
2	ABM_ARSN00003	미상	아리랑 아리랑 아 라리요 아리랑고개에 햇불 밝혀 / ~	넋두리아리랑	잡가
3	ABM_ARSN00004	미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타령을 뉘라 냇나 / ~	넋두리아리랑	잡가
4	ABM_ARSN00005	미상	아리랑 아라리로구려 아리랑 아리알수 어리얼너주마 / ~	넋두리아리랑	잡가
5	ABM_ARSN00006	미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 ~	舊아리랑	잡가
6	ABM_ARSN00007	미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넘어간다 /~	아리랑	잡가
7	ABM_ARSN00008	미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햇살은 찢어서무엇하나 / ~	아리랑	잡가

1 2 3 4 5 6 7 8 9 10

<미디어소재 아리랑 검색결과화면 예시>

미디어소재 아리랑의 상세보기 화면은 ‘아리랑 종류’, ‘음반발매일’, ‘음반제작사’, ‘가창자 정보’, ‘노랫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1. No. : ABM_ARSN00002
2. 자료성격 : 음반소재 아리랑
3. 아리랑 종류 : 잡가 / 넋두리 아리랑
4. 음반발매일 : 1938년 1월 22일
5. 음반제작사 : 00 레코드
6. 가창자 : 미상
7. 노랫말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고개에 꽃을 심어



<미디어소재 아리랑 상세보기 화면 예시>

(2) 아리랑 관련 매체 검색

아리랑 매체 검색메뉴는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1,143건),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3,853건), 아리랑 관련 음반(636건)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2차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1차메뉴	2차메뉴	검색목록 결과	상세자료보기
아리랑 관련 매체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	검색결과 항목 순서/연번/제목/장르/필(저)자/출전/발행년도/발행처	1. No. : “연번” 2. 자료성격 : “자료성격” 3. 작품명 : “제목” 4. 장르 : “장르” 5. 작가 : “필(저)자” 6. 출전 : “출전” 7. 발행정보 : “발행처” / “발행년도” 8. 해설정보 : “해설정보”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	검색결과 항목 순서/연번/제목/게재지/게재일시/기사성격	1. No. : “연번” 2. 자료성격 : “자료성격” 3. 기사제목 : “제목” 4. 필자 : “필자” 5. 게재지 : “게재지” 6. 게재일시 : “게재일시” 7. 기사성격 : “기사성격” 8. 해설정보 : “해설정보”
	아리랑 관련 음반	검색결과 항목 순서/연번/제목/음반종류/발매일시/음반제작사	1. No. : “연번” 2. 자료성격 : “자료성격” 3. 음반명 : “제목/표제” 4. 음반종류 : “음반종류” 5. 음반발매일 : “발매(연월)” 6. 음반제작사 : “음반제작사” 7. 가수 : “노래” 8. 해설정보 : “음반내용”

○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 검색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의 검색결과 화면은 ‘제목’, ‘장르’, ‘필(저)자’, ‘출전’, ‘발행년도’, ‘발행처’ 등의 기본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순서	연 번	제 목	장르	필(저)자	출전	발행년도	발행처
1	LT_AR00001	천희당시화	수필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1909.11.21	대한매일신보사
2	LT_AR00002	아라리	수필	최영년	해동죽지	1925.4.25	경성장학사
3	LT_AR00003	고향	소설	현진건	조선일보	1926.1.4	조선일보사
4	LT_AR00004	아리랑	수필	이경손	문예시대	1926.11.10	문예시대사
5	LT_AR00005	아리랑	(영화)소설	문일	아리랑	1929.11.15	박문서관
6	LT_AR00006	아리랑고개	시	김동환	조선지광83	1929.2.00	조선지광사
7	LT_AR00007	신 아리랑	시	허문일	조선농민	1929.8.00	조선농민사

1 2 3 4 5 6 7 8 9 10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 검색결과화면 예시>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의 상세보기 화면은 ‘작품명’, ‘장르’, ‘작가’, ‘출전’, ‘발행처’,

‘발행년도’ 등의 정보를 ‘해설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1. No. : LT_AR00001

2. 자료성격 :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

3. 작품명 : 천희당시화

4. 장르 : 수필

5. 작가 : 신채호

6. 출전 : 대한매일신보

7. 발행정보 : 대한매일신보사 / 1909. 11. 21.

8. 해설정보 :

단재 신채호가 애국 계몽기 시가의 원리를 정리하고 민족주의 이념으로 승화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글이다. 이 글에서 신채호는 <아리랑>, <영변가>와 같은 민요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여 국시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 상세보기 화면 예시>

○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 정보 검색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의 검색결과 화면은 ‘제목’, ‘게재지’, ‘게재일시’, ‘기사성격’ 등의 기본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순서	연 번	제목	게재지	게재일시	기사성격
1	ATCL_AR00001	新映畫—‘아리랑’을 보고	매일신보	1926. 10. 10.	비평
2	ATCL_AR00002	朝키네脫退俳優團體組織計劃 촬영소를만들고자	동아일보	1927. 02. 01.	기사
3	ATCL_AR00003	연예와 음악「아리랑」風雲兒 조선영화 일시	동아일보	1927. 02. 09.	기사
4	ATCL_AR00004	朝鮮晝夜二回興行	동아일보	1927. 02. 11.	기사
5	ATCL_AR00005	朝키네四回作 野鼠撮影開始	동아일보	1927. 03. 11.	기사
6	ATCL_AR00006	名畫舞蹈大會	동아일보	1927. 04. 19.	기사
7	ATCL_AR00007	夏夕 黃昏詩	동아일보	1927. 07. 11.	기사

1 2 3 4 5 6 7 8 9 10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 검색결과화면 예시>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의 상세보기 화면은 ‘기사제목’, ‘필자’, ‘게재지’, ‘게재일시’, ‘기사성격’ 등의 정보를 ‘해설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1. No. : ATCL_AR00001

2. 자료성격 :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

3. 기사제목 : 新映畫—‘아리랑’을 보고

4. 필자 : 抱水

5. 게재지 : 매일신보

6. 게재일시 : 1926.10.10.

7. 기사성격 : 비평

8. 해설정보 :

조선 시네마의 상영작인 ‘아리랑’의 후기이다. “가뭄에 콩나기로 나오는 것의 작품이다.”, “이것은 서양작품의 대작이 나올때와의 다른 맛이였다”, “아리랑 고개는 밑에서 땀과 피를 흘리는 서민적 내용이다”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 상세보기 화면 예시>

○ 아리랑 관련 음반 정보 검색

아리랑 관련 음반의 검색결과 화면은 ‘제목’, ‘음반종류’, ‘발매일시’, ‘음반제작사’ 등의 기본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순서	연 번	제목	음반종류	발매일시	음반제작사
1	ABM_COL_CHO_0001	경성란란타령(경성아리랑타령)	SP	1913. 6.	日本蓄音機商會
2	ABM_COL_CHO_0002	넛두리아리랑	SP	1913. 6.	Chieron
3	ABM_COL_CHO_0003	아리랑	SP	1935. 5.	Chieron
4	ABM_COL_CHO_0004	아리아리랑	SP	1932. 6.	Chieron
5	ABM_COL_CHO_0005	舊아리랑	SP	1932. 6.	Chieron
6	ABM_COL_CHO_0006	무-란투-쥬 (新아리랑)	SP	1932. 8.	Chieron
7	ABM_COL_CHO_0007	아리랑	SP	1932. 1.	Chieron

1 2 3 4 5 6 7 8 9 10

<아리랑 관련 음반 검색결과화면 예시>

아리랑 관련 음반의 상세보기 화면은 ‘음반명’, ‘음반종류’, ‘음반발매일’, ‘음반제작사’, ‘가수’ 등의 정보를 ‘해설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1. No. : ABM_COL_CHO_0002

2. 자료성격 : 아리랑 관련 음반

3. 음반명 : 냇두리아리랑

4. 음반종류 : SP

5. 음반발매일 : 1935. 5.

6. 음반제작사 : Chieron

7. 가수 : 나선교

8. 해설정보 :

미상

<아리랑 관련 음반 상세보기 화면 예시>

(3) 아리랑 관련 인터뷰 검색

아리랑 인터뷰 검색메뉴는 아리랑 노랫말에 대한 현지채록 과정에서 아리랑에 대한 해박한 경험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제보자들에게 아리랑 노랫말에 대한 설명이나 아리랑 전승, 향유과정에 대한 경험과 견해 등을 묻고 답하는 88인의 인터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차메뉴	2차메뉴	검색목록 결과	상세자료보기
아리랑 관련 인터뷰	아리랑 관련 인터뷰	검색결과 항목 순서/연번/대담구분 /제보자/조사자/대 담일시/대담장소	1. No. : “연번” 2. 자료성격 : “자료성격” 3. 대담구분 : “대담구분” 4. 제보자 : “제보자”(“성별”. “연령”) 5. 조사자 : “조사자” 6. 대담일시 : “대담일시” 7. 대담장소 : “대담장소” 8. 해설정보 : “해설정보” * 인터뷰자료 연관 구동 : PDF파일, 음원, 동영상 재생(공개여부 Y만)

아리랑 관련 인터뷰의 검색결과 화면은 ‘대담구분’, ‘제보자’, ‘조사자’, ‘대담일시’, ‘대담장소’ 등의 기본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순서	연번	대담구분	제보자	조사자	대담일시	대담장소
1	INTV_AR00001	정선의 아라리 소재	연규한	김시업	1987. 1. 25.	강원도 정선군
2	INTV_AR00002	정선의 아라리 소재	김병하	김시업 외	1985. 1. 28.	강원도 정선군
3	INTV_AR00003	정선의 아라리 소재	최순녀	정우택 외	1994. 10. 8.	강원도 정선군
4	INTV_AR00004	정선의 아라리 소재	윤용산	강등학 외	1994. 2. 25.	강원도 정선군
5	INTV_AR00006	성대 6차 정선탍사	김춘래 외	정우택 외	1989. 7. 30.	강원도 정선군
6	INTV_AR00007	성대 6차 정선탍사	심재열 외	정우택 외	1989. 7. 31.	강원도 정선군
7	INTV_AR00008	성대 6차 정선탍사	이재석 외	정우택 외	1989. 7. 31.	강원도 정선군

1 2 3 4 5 6 7 8 9 10

<아리랑 관련 인터뷰 검색결과화면 예시>

아리랑 관련 인터뷰의 상세보기 화면은 ‘대담구분’, ‘제보자’, ‘조사자’, ‘대담일시’, ‘대담장소’ 등의 정보를 ‘해설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이때 각 인터뷰의 음원이나 영상이 웹상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될 것이다.

1. No. : INTV_AR00004

2. 자료성격 : 아리랑 관련 인터뷰

3. 대담구분 : <정선의 아라리> 소재

4. 제보자 : 윤용산(여, 77)

5. 조사자 : 강등학, 정우택

6. 대담일시 : 1994-02-25

7. 대담장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 1리 6반 신촌 손석열 씨 대

8. 해설정보 :

마을 잔치와 농번기에 방문하여 아라리를 부르는 일, 개인적인 근황과 과거사에 대해 대담을 나누며 아라리를 구연함.



<아리랑 관련 인터뷰 상세보기 화면 예시>

(4) 유튜브 소재 아리랑 검색

유튜브 소재 아리랑 검색메뉴는 유튜브를 검색하여 수집한 총 8,014개의 아리랑 관련 콘텐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차메뉴	2차메뉴	검색목록 결과	상세자료보기
유튜브 소재 아리랑	유튜브 소재 아리랑	검색결과 항목 순서/연번/제목/원 매체/지역/아리랑분 류	1.No. : “연번” 2. 자료성격 : “자료성격” 3. 제목 : “제목” 4. 원매체 : “원매체” 5. 게시지역 : “지역” 6. 아리랑분류 : “아리랑분류” 7. 해설정보 : “해설정보” * 하이퍼링크로 유튜브 자료 연결

유튜브 소재 아리랑의 검색결과 화면은 ‘제목’, ‘원매체’, ‘지역’, ‘아리랑분류’ 등의 기본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한다.

순서	연 번	제 목	원매체	지 역	아리랑분류
1	WEBV-YTAR00001	뉴욕 필 아리랑 공연	방송	미국	
2	WEBV-YTAR00002	NGUYỄN CAO BẢO UYÊN - ARIRANG ALONE	방송	베트남	
3	WEBV-YTAR00003	[This is Arirang] Ssamji-gil Orchestra flash mob	개인창작	한국	본조아리랑
4	WEBV-YTAR00004	[HIT] 홍경민&송소희(해금: 김유나) - 홀로 아리	방송	한국	
5	WEBV-YTAR00005	아리랑 (Arirang) - Korean Folk Song	방송	한국	본조아리랑
6	WEBV-YTAR00006	[HIT] 불후의 명곡 - 소향, 부드럽고 강렬하게 ...	방송	한국	
7	WEBV-YTAR00007	송소희 홀로 아리랑 설기희 이산가족 콘서트 꿈엔 ...	방송	한국	

1 2 3 4 5 6 7 8 9 10

<유튜브 소재 아리랑 검색결과화면 예시>

유튜브 소재 아리랑의 상세보기 화면은 ‘제목’, ‘원매체’, ‘지역’, ‘아리랑분류’ 등의 정보를 ‘해설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이때 각 인터뷰의 음원이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통해 유튜브 자료에 직접 연결시킬 것이다.

1. No. : WEBV-YTAR00003

2. 자료성격 : 유튜브 소재 아리랑 관련 미디어

3. 제목 : [This is Arirang] Ssamji-gil Orchestra flash mob playing in Insa-dong

4. 원매체 : 개인창작

5. 게시지역 : 한국

6. 아리랑분류 : 본조아리랑

7. 해설정보 :

March 1, 2013, In Ssamji-gil, Insa-dong, Seoul, South Korea. Korean university student organizations have been working on a project called 'This is Arirang'."



<유튜브 소재 아리랑 상세보기 화면 예시>

4. 아리랑 아카이브 기반 조성을 위한 제언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따라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창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아리랑을 수집하고 디지털데이터로 전환하여 아리랑 DB를 구축하는 작업은 자료조사·분석, 수집, 디지털데이터화, 해설정보 제작, DB입력 등의 다단계 작업을 통해 수행된다. 완전한 아리랑 DB를 구축하는 작업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전문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일정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향토민요 아리랑의 생산현장인 전통적인 생활공동체가 해체되고 아리랑 생산주체들이 사망하고 고령화하여 아리랑의 현장 채록이 매우 어려워진 현재 더 이상의 손실 없이 아리랑의 원형을 보존하는 작업은 시급하다. 아리랑 DB구축 사업은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아리랑 자료들을 집성하여 문자 텍스트와 음원, 이미지, 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로 가공하고 이를 일관된 DB체계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리랑의 과거와 현재 상을 확인하고 이후 아리랑의 보존과 발전,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아리랑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생산될 아리랑 관련 자료들을 모두 통합 관리하고, 아리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손쉽게 자료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아리랑 정보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리랑 DB구축 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적 차원의 아리랑 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모델이자 토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리랑에 대한 국내적·세계적 가치 평가는 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아리랑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리랑을 세계문화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지식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융합·통섭 학문으로서의 아리랑학 정립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비해 고립분산적인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체계로는 아리랑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리랑 및 전승·확산·변형·재창조된 아리랑 및 아리랑 관련 자료의 축적, 수집된 자료의 정리 체계화, 학문, 교육,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아리랑정보센터의 구축은 융합·통섭학문으로서의 아리랑학의 기초를 설계·수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리랑은 형성 초기부터 단순한 노래 형태가 아니라 삶과 노래, 개인과 집단이 결합된 복합 문화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것은 아리랑이 갖고 있는 집단적·문화적 원형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21세기 들어 한류가 중요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현실에서, 아리랑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 브랜드이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적 원천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토민요, 대중가요, 영화, 연극, 공연, 축제 등의 다양한 장르와 문화를 통합하고 있는 아리랑 DB는 한민족의 창조적 브랜드로서 아리랑 관련 문화콘텐츠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아리랑의 아카이브 구축과 실행 및 자원화를 위한 문제점 또한 많다. ①저작권의 문제 ②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콘텐츠의 확보 문제 ③지속적인 업그레이드의 문제 ④사라지는 세대에 대한 시급한 조사 ⑤미주 유럽 등에 대한 조사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리랑 아카이브와 자원화」에 대한 토론문

이영식(강릉원주대학교)

갖가지 방법 및 효율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자료의 집적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료의 집적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르지만, 토론자 또한 발표자와 같은 기간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강원도 산간마을 전통지식의 문화지도’ 구축을 위한 DB작업을 경험한 까닭에 그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한 작업의 결과물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니 고마움을 표한다.

발표문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아리랑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집적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과 운영할 웹사이트 개발 및 메뉴 구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토론자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책무를 핑계로 발표 내용 중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한다.

1. 먼저 단순한 편집의 착오로 생각되는데, 2장의 ‘아리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결과’에서 향토 아리랑,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 정보,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 아리랑 관련 음반 정보, 아리랑 관련 문학 작품, 유튜브 소재 아리랑 관련 자료 등 아리랑 DB구축과 관련된 아리랑의 원천자료 6가지 항목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 아리랑 관련 문학작품 정보’와 ‘(5) 아리랑 관련 문학 작품’은 항목 자체의 이름도 비슷하지만 그 설명은 동일하다.
2. ‘(3) 아리랑 관련 신문기사’에서 “해방 전 기사 421개와 해방 후 1999년까지의 기사 3,432개 등 총 3,853개의 아리랑 관련 신문 기사를 기사제목, 필자, 게재일시, 게재지, 게재면수, 지면, 기사성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목록을 만들었으며”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도 아리랑과 관련된 많은 기사가 있을 텐데, 굳이 해방 후 신문 기사를 1999년까지 제한하여 수집·정리한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3. ‘(4) 아리랑 관련 음반 정보’에서 1945년 이전의 음반, 1945~55년에 발매된 SP 음반, 1960~80년대에 발매된 SP음반, 1970년 이후에 발매된 정선아리랑 LP음반 등 아리랑 관련 음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목록화하였다고 했다. 1970년

대~90년대까지 길게는 2000년대까지도 아리랑 관련 카세트가 많이 발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세트테이프와 관련해서는 설명이 없다. 혹시 설명에서 빠진 것인지 목록화에서 제외한 것인지 알고 싶다.

4. 아리랑 노랫말 검색에서 “아리랑 노랫말 검색메뉴는 현지채록 아리랑(9,509건), 문헌소재 아리랑(16,667건), 미디어소재 아리랑(1,294건) 등의 노랫말을 검색할 수 있는 2차 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약 27,000여 건의 아리랑 노랫말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자료이다. 그런데 “노랫말 전절”/ “노랫말 후절”과 같이 노랫말 전체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휘, 곧 노랫말을 구성하는 특정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는지 알고 싶다.

현재 운영 중인 몇몇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수백 편의 아리랑 사설이 정리되어 있으나 노랫말의 특정 단어로는 노래를 검색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아카이브 구축 목적은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어떠한 학문이든 첫 번째 목적은 자료검색의 편리함을 위해서일 것이다. 그리하여 아리랑 및 아리랑 노랫말과 관련된 키워드라면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으면 한다.

〈제2부〉
주제 : 지역 민요의 지속 보전과 자원화 방안

악구와 속성 중심의 민요 자료 창작 자원화 방안

■ 발표 : 장인종/김병오 (전북대학교)

■ 토론 : 허정주 (전북대학교)

악구와 속성 중심의 민요 자료 창작 자원화 방안

장인종·김병오(전북대학교)

<목차>

- I. 서론
- II. 민요 디지털 데이터 현황 분석
 - 1. 창작소재 분야 사례 검토
 - 2. 아카이브 분야 사례 검토
 - 3. 전통음악자원 디지털화를 위한 방안 도출
- III. 창작 자원 지향의 전통음악 DB개발
 - 1. 자료 단위에 대한 재고
 - 2. 악구 발굴 및 가공
 - 3. 악구 메타데이터 개발
 - 4. 민요 자료 창작자원화 사례 결과물
- IV. 결론

I. 서론

전통문화유산을 향한 사회적 관심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최근 들어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산업화되어 사람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유형적 대상에 대한 관심에 치중해왔던 과거와 달리 공연예술과 전통지식, 공동체 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무형유산을 향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유네스코에서는 2003년 10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고 47개 당사국의 비준을 얻어 2006년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협약과 법제가 기존의 것과 차별화되는 데에는 대표적으로 ‘전형’ 개념이 등장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법제가 지지하던 ‘원형’이라는 개념을 대

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유산 변화와 재창조의 당위를 표방하는 ‘전형’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엄밀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으나 그와 별개로 ‘원형’에서 ‘전형’으로의 용어 교체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¹⁾ 이처럼 전통문화유산이 공동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변화되고 재창조되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은 ‘활용’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생활, 즉 산업의 논리와 접속하게 마련이다. 이때 흔히 ‘콘텐츠’라는 용어가 흔하게 등장하는데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영단어에는 디지털 환경을 전제하는 경향이 담겨있다.²⁾ 전통음악과 민요도 예외는 아니어서 창작활동을 비롯한 후속 세대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화 사업이 다수 펼쳐진 바 있다. 특히나 민요는 오늘날 창작음악의 자원으로서 비교적 중요한 장르로 꼽을 만 하다.

민요는 주지하다시피 헤르더에 의해 민족정신의 체현물로 여겨진 이래 세계 곳곳 여러 국면에서 민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유럽에서 19세기 후반 민족국가 수립 운동 시기 국민악파 작곡가들에 의해 그들의 작품에 사용된 민요들이나 해방 이후 <아리랑>을 모티브 삼은 한국의 여러 악곡들은 그 수많은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여전히, 혹은 새로운 맥락에서 ‘민족’이라는 관념이 의미가 있다면 민요는 그것을 ‘음(音)’으로, 언어로, 감각과 정서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개 중 하나라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한 민요는 민족이라는 사회적 맥락 외에 음악적 차원에서도 적절한 창작음악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전통음악과 비교해 볼 때 민요가 지닌 음악적 단순성과 단락감은 민요를 창작 작품의 모티브나 변주 소재로 쉽게 사용될 수 있게 하고 새로 창작된 악구들과도 수직수평적 결합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요는 오랜 기간 민간에서 민중들 간에 소통되어 온 결과이기에 대중 감성에 친숙한 선율을 갖고 있다. 다수의 수용자들을 염두에 둔 음악 창작에서 전통음악을 활용하려 한다면 민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태도는 매우 자연스럽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음악 및 민요장르의 활용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 음악 창작을 위한 한국전통음악과 민요의 자원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 한국무형유산학회는 2016년 춘계학술대회의 제목을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한 무형유산의 전형의 양상 및 변화>로 삼은바 있으며 학회장의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가입국으로서 유네스코의 개념에 맞게 무형유산법을 2015년 3월 27일에 개정하고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법에 의하면 구법의 원형 대신에 전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전형에 대한 해당 학계의 전향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 ‘콘텐츠’라는 용어는 1999년 5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 운영되면서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콘텐츠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 3항 참조)

II. 민요 디지털 데이터 현황 분석

전통문화유산의 디지털화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 사업으로 만들어져 비교적 긴 시간동안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창작활동 분야에서 다른 문화예술 장르들에 비해 전통문화유산, 특히 전통음악 분야는 상대적으로 디지털화 수준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 디지털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요로 대상의 범위를 좁힐 경우 적극적 대응의 필요는 더욱 커진다. 한반도에서 ‘민요’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주체와 방법에 의해 민요 채록 작업이 수행되어 왔고, 그중 일부는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저장,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날로그 민요 자료는 물론 디지털 데이터 역시 음악창작자에 의해 활용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민요를 창작 재료 혹은 원천으로 삼은 음악작품들은 교과서에 실릴 만큼 널리 알려진 민요나 아니면 작곡가 스스로가 직접 채집한 민요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전통음악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작업은 2차적 창작물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고전적 실물 원천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1차 변환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고 이는 대략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창작소재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서비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카이브를 만들어 보관, 서비스하는 일이다.⁴⁾ 이하에서는 한국 전통음악 및 민요 관련 기존의 디지털화 사업 현황들을 통해 음악 창작자의 요구와 접근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창작소재 분야 사례 검토

1)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문화콘텐츠닷컴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과거에 수행했던 문화원형 사업의 결과물들을 모아 서비스하는 사이트이다. 사이트의 표제로 ‘콘텐츠의 가치 창출 창작소재의 보고’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 및 교육 등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저작물의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3)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등 문화예술 10개 분야를 통틀어 창작 과정에서 디지털매체 활용 비율은 국악계가 맨 아래인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를 통한 작품 발표 경험 비율에서도 역시 유일하게 한자리 비율을 기록하며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부(2012) 60~62쪽 참조

4) 전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02년~2010년까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의해 수행된 문화원형사업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사업으로는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국민요대관을 들 수 있다. 이상 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4쪽 참조, 후자는 <http://yoksa.aks.ac.kr>의 한국민요대관 항목 참조

안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⁵⁾ 전통음악분야의 창작소재개발 사업은 총 14건이 시행되었고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통음악분야에서 수행된 문화원형사업은 창작소재를 개발해내기 위한 다양한 포맷의 결과물들을 요구하였다. 음악 샘플 외에도 텍스트, 2D/3D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소재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음악 창작이라는 영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사업중 4개 사업만이 목표에 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개 사업의 결과물 가운데 그나마 두 개 사업은 벨소리를 위한 목표로 소재가 제한되어 있는 것, 형식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소량의 소재를 개발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는 단 두 개의 사업만이 음악 창작 소재 개발에 해당한다.⁶⁾ 민요의 경우는 총 5개의 사업에서 다루고 있으나 결과물의 성격은 통상적인 아카이브 수준과 다르지 않거나 그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창작소재를 개발하고자 했던 문화원형사업이었으나 민요를 음악 창작의 소재로 개발한 사례는 <표 1>에서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사업 중 전통음악분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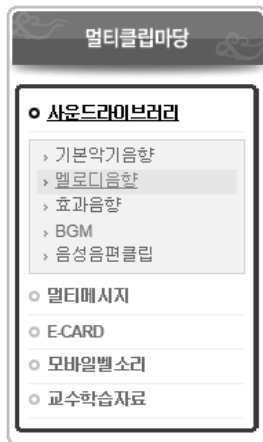
연번	사업명	기획의도	음악 파일	음악 소재	민요 음원	제작 기관
1	악인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악인(樂人)인 악공, 악사 등에 대해 현재 기록인 남아 있는 역사서, 아담류, 악보, 회화 등에 나타난 악인에 대해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	-	-	-	굿소프트웨어랩
2	오케레코드와 조선악극단	20세기 초반의 대중음악태동기에 국내 최고의 흥행단체인 '조선악극단'과 '오케레코드'를 중심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대중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을 재현하고 관련 음원 자료를 복원	○	-	○	전주대 산학협력단
3	고려가요의 디지털 콘텐츠화	고려가요에 대해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고려가요의 국악보 및 복원된 악보를 제공하고 관련 음악의 복원 연주 음원 제공	○	-	-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4	정간보	중국에서 들어온 악보들이 음의 길이를 표기하지 못하는 결점을 보완하여 과학적인 악보로 제작, 발전시킨 전통문화 유산 정간보, 국악대중화를 위한 정간보(井間譜) 디지털폰트 제작과 악보저작도구 개발	○	-	-	모전스랩
5	한국근대의 음악원형	한국 근대 음악의 8대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궁극적으로 DB화. 이를 통해 자료의 유실을 막고, 활용도를 높임. 단순 전통문화라는 요소에서 탈피하여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발전시킴	○	○	○	아사달
6	겨레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 민요의 가사와 악보 채집 및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	-	○	중앙대 산학협력단
7	백두대간의 전통음악원형	백두대간에 서려있는 우리 음악문화 실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백두대간 원형지도 개발	○	-	○	한양대 산학협력단

5)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의 '문화콘텐츠닷컴 소개'항목 참조

6) 음악 분야에서의 창작소재개발이라는 목표에 성실하게 부응하는 과제는 사실 14개 과제 가운데 <국악장단 디지털콘텐츠> 정도가 유일하다. 다만 이 사업의 결과물은 타악에 국한되어 있어 창작에의 활용성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적 구성이 단편적이어서 관심있는 창작 소재를 검색,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연 번	사업명	기획의도	음악 파일	음악 소재	민요 음원	제작 기관
8	음성원형 콘텐츠 웨어	더 많은 대중이 쉽게 판소리를 접할 수 있도록 판소리의 음성원형 소스 DB 구축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	-	-	중앙대 산학협력단
9	국악장단 디지털콘텐츠	국악 장단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 2000여개의 웨이브 데이터와 설명 자료를 제작, 음악가에게 보급하여 디지털 음악 산업에 빠르게 대처함	-	○	-	라임시스템 단국대학교
10	디지털 악학계범	<악학계범>의 음악이론 해설과 악기 및 복식, 악기편성도, 무용배치도 등의 공연문화를 2D 그래픽, 동영상, 플래시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	○	-	-	프라스프로 덕션
11	국악	장르별 우리나라 원형을 담고있는 대표적인 선율 및 배경음악, 효과음을 발췌, 편곡, 편집, 녹음. 국악선율을 이용한 배경음악과 효과음 제공	○	○	○	세인트뮤직
12	종묘제례악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영원의 소리 종묘제례악의 모든 것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	-	-	국립국악원
13	전통국악기 샘플데이터	국악기 50종의 음원을 분석, 범용적인 샘플링 소프트웨어와 시퀀싱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샘플 데이터 약 3097 여종을 개발. 한국형 시퀀싱 소프트웨어인 知音 Ver 1.0 개발, 보급	-	○	-	라임시스템 춘천교대
14	산조	우리음악의 원형 산조를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산업의 시나리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공	-	-	-	국악중심

2) 한국전통소리문화 (<http://www.koreamusic.org>)



<그림 1> 한국전통소리
문화 멀티클립마당의 세
부 항목 구성

한국전통소리문화는 2009~2010년간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으며 ‘한국전통소리의 체계적인 계승·발전 및 전통문화의 위상강화를 위해 각종 전통소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대중화와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은 포괄적인 기대효과를 6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적 활용과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로 귀결되게 하겠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멀티클립마당이라는 메뉴와 세부내용을 마련하였다. 사운드 라이브러리 가운데 기본악기음향과 멜로디 음향 등은 창작 소재로 활용 가능한 음원 샘플을 담아내고 있다. 음성음편클립의 경우 인성으로 연주된 음원 샘플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주로 판소리 다섯바탕에서 추출된 소재들만 제공되고 있으며 민요 자원은 배제되어 있는 형편이다. 악기로 연주된 샘플 가운데 일부는 민요가락 연주를 담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대단히 소략한 편이어서 의미 부여를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7) 한국전통소리문화(www.koreamusic.org) 내 사이트 소개글 참조

2. 아카이브 분야 사례 검토

1)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민요대관 (<http://yoksa.aks.ac.kr>)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국민요대관은 약 13,745 건의 민요 자료를 음성, 텍스트, 악보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있다. 각 자료는 기능별, 지역별, 제목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능별 분류는 민요 자료를 의식요, 유희요, 노동요의 대분류와 각각의 하위 분류로 구성되고, 지역별 분류는 채록지의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제목별은 분류라기보다는 노래명을 기준으로 한 가나다 순 인덱스이다. 각 민요 음성 자료 중 상당수는 텍스트 정보가 부가되어 있다. ‘음성제목’, ‘현지명’, ‘조사자설정명’, ‘기능명’, ‘표준명’, ‘악곡명’, ‘테잎연번’, ‘음성위치’, ‘조사지’, ‘조사·정리(자)’, ‘구연자’, ‘설명’, ‘본문내용’의 항목이 부여 되어 있는데, 일종의 메타데이터라 할 수 있고, ‘본문내용’에는 해당 민요의 사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민요 음성 자료에 대한 채보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악보 데이터에는 실제 채보 악보 외에 <그림 2>에서처럼 ‘악곡명’, ‘해설,채보자’, ‘구성음,토리’, ‘부연설명’, ‘박자’, ‘형식’, ‘가사’, ‘기타’ 정보가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G002+AKS-UM33_0675_09_5400S
듣기	
악곡명	집터 다지는 소리 : 달구소리
해설,채보자	
구성음,토리	이 악곡은 ‘미-라-도-레’의 상행음계와 ‘레-도-시-라-미’의 하행음계로 된 육자백이토리이다. 종지음은 ‘라’이고 변격 라선법이다.
부연설명	메기는 부분의 음절과 박자가 정확하지 않다.
박자	8분음소리표를 단위로 한다.
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이다.
가사	가사는 주로 3분박으로 붙는다.
기타	악곡이 진행함에 따라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림 2> 한국민요대관 악보 정보

한국민요대관은 이와 같이 방대한 민요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함께 악보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음악 창작 자료로 활용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음악창작자에게 필요한 음악적 맥락에서 민요가 분류, 정리되지 않는 탓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요 자료의 기본 분류는 음악과 다소 거리가 있는 민요의 기능 및 지역이다. 물론 기능과 지역은 노래 분위기나 지역별 토리 등 음악적 특성을 대략적으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음악 요소적 특성에 따라 자료를 필터링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국민요대관은 다른 민요 디지털 아카이브에 비해서 음악 요소에 의한 자료 구분이 적용되어 있는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악보 데이터에 ‘구성음 토리’, ‘박자’, ‘형식’, ‘가사 붙임새’ 등 음악 요소가 메타데이터처럼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입력데이터가 자유 텍스트여서 항목 값별로 검색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민요마다 토리 항목에 텍스트로 해당 민요의 토리를 기술 했더라도, 사용자가 ‘육자백이토리’의 민요들만 모아볼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정보도 악보화 되어 있는 일부 자료에만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민요대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음악창작자가 필요한 음악 요소별로 구분하여 열람하기는 쉽지 않다.

2)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 (<http://archive.gugak.go.kr>)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는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하는 공연·연구·교육활동의 결과물을 비롯한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유형의 국악 자료 28만 여점을 축적하고 있고 저작권을 확보한 자료를 선별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⁸⁾ 이중 민요로 분류된 열람 가능 자료는 834건이다. 한국민요대관이 현지조사에 의한 지역별 채록 자료 중심인 반면, 여기는 무대공연, 교육콘텐츠 등으로 구현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자료 분류는 국악(장르별)분류와 자료유형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카이브가 국악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민요는 전체 국악분류 중 하위 카테고리로 위치하고 있고 민요 하위의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 분류상으로는 특정한 성격의 민요를 구분하여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자료마다 키워드가 입력되어 있어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는 요구하는 속성의 자료를 필터링 해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키워드가 일정한 체계 속에서 자료에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재현율과 정돈된 형태의 검색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3) 제주학 아카이브 (<http://www.jst.re.kr/>)

제주학 아카이브에는 음성, 동영상, 문서 등의 형태로 제주지역 음악 자료 700여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민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아카이브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분야별, 유형별로 분류되어 탐색할 수 있으나, 아카이브가 음악이나 민요만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요 자료는 분야별>예술>음악 카테고리 내에 모여져 있고 하위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 또한 검색을 위한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검색항목과 상세검색 화면, 개별 자료 화면을 통해 유추해 봤을 때, ‘분야’, ‘자료형태’, ‘제목’, ‘생산연도’, ‘저자명’, ‘소장처’ 등이다. 따라서 역시 전체 자료에서 민요자료만을 또는 특정 성격을 지닌 민요만을 걸러내어 접근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 텍스트가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고 이것이 일종의 키워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색

8) <http://archive.gugak.go.kr/ArchivePortal/archiveIntroduction/archiveIntroduction.do?collection=T>

을 통해 어느 정도 원하는 자료를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자유 텍스트이므로 높은 재현율과 정확도를 지닌 체계적인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4)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 DB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의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DB구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지만 최상혁·이상구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DB구축을 위한 입력 및 관리 시스템의 구현」⁹⁾을 통해 이 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DB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표 2>와 같다. 민요 등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에 적합하도록 많은 메타데이터가 설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자료 출처와 관리에 관한 항목이 다수를 이룬다. 각 자료에 관한 음악적 성격을 기술한다면 해제 등의 필드에 자유 텍스트로 입력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DB로부터는 앞서 살펴 본 아카이브들처럼 음악적 요소별로 자료를 필터링 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2>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 DB 메타데이터

과제정보			자료명			분류정보				
수행기관	과제명	산출물명	데이터번호	대표표제어	부가표제어	분야	시대	지역	자료구분	자료구분상세
부가정보									저작권정보	
데이터입력자	해제	해제작성자	키워드	언어	URL	첨부파일	자료조사자	저작권자		
원자료										
연주자생년월일	연주자성별	연주자 출생지	연관자료번호	조사내용	참고문헌	참고자료	원자료XML			
구분	확장정보	원자료								
항목	유형	원자료번호	연관자료번호	녹음시기	녹음지역 및 장소	녹음시간	연주자성명			

3. 전통음악자원 디지털화를 위한 방안 도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디지털 환경이라는 전제 하에 전통음악 분야의 창작소재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서비스하고자 했던 기존의 주요 관련 사업들은 창작소재의 용처를 음악으로 국한할 경우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전통음악 가운데 민요 자료의 경우는 오랜 세월 널리 사랑받아온 우리의 전통유산임에도 불

9) 한국국악학회 2016년 상반기 토대연구 학술회의 발표문.

구하고 창작소재 개발 과정에서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배제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아카이브 관련 주요 사업들의 경우는 민요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단순한 목록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뒤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MARC이나 더블린코어 등에서 나타나는 자료 출처 확인과 데이터 관리 측면의 메타데이터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각의 아카이브를 제작하면서 당시 해당 아카이브의 목적에 맞도록 설계한 결과일 것이다. 때문에 아카이브 자료를 음악 창작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목적이 부여된다면 기존의 DB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고 기존 DB에 대한 보완 확장이나 새로운 DB제작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통음악 및 민요 자료를 창작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제 DB 구축의 과정을 검토해보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창작 자원 지향의 전통음악 DB개발

1. 자료 단위에 대한 재고

현행 디지털 음악 창작환경은 서양음악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 왔다. MIDI와 같은 디지털 악기의 인터페이스는 피아노로 표상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악기로서의 피아노는 분절적인 음향 표현에 최적화되어 있다. 가상악기¹⁰⁾로 대표되는 디지털 음악 창작 도구들은 대체로 이런 기반에서 음계의 개별음들을 샘플링, 매핑(mapping)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전통음악은 피아노로 대표되는 서양음악과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피아노와 같은 건반악기로는 표현하기 힘든 깊은 농음(弄音)과 다채로운 시김새가 두드러진다.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복수의 음들은 연결고리마다 출렁이고 흔들린다. 따라서 편리하고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MIDI 기반의 현행 디지털 음악 창작 환경은 한국 전통음악의 표현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창작소재 개발 사업은 현행 디지털 창작 환경의 표현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창작 자료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다시피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음들에 대한 샘플링, 매핑이 아니라 농음과 시김새 그리고 자연스러운 음간 연결을 재현할 수 있는 악구 단위의 창작 소재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10) virtual instrument를 번역한 것이다. 영문 위키피디아의 경우는 현재 가상악기를 software synthesizer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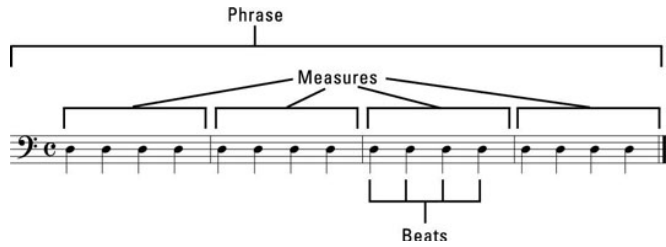
한편, 창작자들은 저마다의 창작 방법을 체화하고 있다. 창작을 위한 방법과 소재를 일반화, 규격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창작과 기술이 점점 밀접하게 결합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 특정 저작도구 및 소재의 등장이 창작의 경향과 방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힙합 문화의 확산과 함께 레코드를 재생하는 데에 쓰이던 턴테이블을 많은 DJ들이 악기로 활용함에 따라 기존의 레코드에서 특징적인 음악 루프(loop)를 발굴하여 음악적 재료로 활용하는 실천도 함께 성장해 나갔다. 최근에는 이디엠(Electronic Dance Music)이라는 장르가 클럽문화, 축제 문화의 음악적 중심을 차지하면서 루프를 활용한 음악문화는 더욱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경향을 뒷받침하고 상승시키는 루프 샘플 중심의 새로운 음악 저작도구들도 함께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다. 음악 창작의 소재가 개별 음이면서 작곡가들이 개별 음들을 하나의 선율로 정성껏 직조하는 것이 과거의 창작 방법이었다면 몇 개의 마디, 음악적 호흡의 덩어리들을 발굴해서 편집하는 행위는 디지털 기술 환경 토대에서 등장한 최근의 창작 방법이다. 루프, 몇 개의 마디, 음악적 호흡의 덩어리라고 앞서 말한 것들은 모두 음악 용어 ‘악구’를 통해 포괄할 수 있다. 최신의 경향 속에서 음악 창작을 위한 자원 개발은 이처럼 악구 단위에서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불어서 전통음악의 DB가 창작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아카이브에서 채택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역시 II장에서 살펴봤듯이 기존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출처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창작자원 지향의 민요 혹은 전통음악 DB는 음악창작자라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음악창작 자료를 제공한다는 또 다른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메타데이터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때 확장되는 메타데이터는 주로 음악 요소를 표현하고 분류하는 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창작하는 작품의 음악적 맥락에 부합하는 악구를 검색하고자 할 것이며 음악적 맥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들로는 조, 박자, 템포 등과 같은 음악요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는 <그림 2> 한국민요대관 악보 정보에 제시된 항목들과도 일견 유사하다. 다만 창작자원 지향의 전통음악 DB는 이 항목들을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검색 결과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한편, 악구(musical phrase)의 개념은 다소 두루뭉술하다. 악구라는 용어와 개념은 언어학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실제 용례를 기초로 매칭을 해보자면 언어학에서의 구(phrase)보다는 외려 절(clause)에 호응하는 편이다.¹¹⁾ 음악 영역에서 악구의 구체적이고 평균적인 유형을 논하는 것은 <그림 3>에서 보듯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지만 언어구조에서 절(clause)의 길이와 단어 숫자가 제각각이듯 해당 유형에서 벗어나다

11) 박명숙(2014: 26쪽)이 요약한 코흐의 악구이론 참조

해서 악구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창작자의 의도나 청취자의 직관에 의해 더 짧은 악구도 더 긴 악구도 예시될 수 있으며 길고 짧다는 것 역시 메트로놈이라는 특유의 음악적 규약에 의해 개념이 상대화 된다. 박명숙(2014: 45~46)은 악구에 대해



<그림 3> 악구(phrase)의 평균적인 구조

‘종지처럼 조성적 리듬의 안정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때로는 리듬 패턴의 반복이나 선율 윤곽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하버드 음악사전의 용어 설명을 인용하여 ‘연주자의 아티클레이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형식적 차원에서는 ‘대개 몇마디 몇박의 구성을 갖는데, 이것은 미학적 법칙이라기보다 음악 실제에서의 관찰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유희(2016: 19쪽)는 기존의 악구에 대한 정의 혹은 개념들을 종합하여 악구의 개념을 ‘화성, 리듬, 선율, 짜임새 등 음악을 구성하는 것들이 한 부분으로 모이게 하는 내적 질서에 의한 의미의 단위’라고 정리하였다. 즉, 외형적으로 규격화되기 어려운 내적 질서를 토대로 구성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2. 악구 발굴 및 가공

이상에서 논의한 바, 민요를 비롯한 전통음악을 창작 자원화하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악 자료를 악구 단위로 취급하여 악구의 음악적 특성을 표현하는 메타데이터를 설정하고 악구마다 여기에 적절한 값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상적으로는 디지털 데이터화 된 모든 전통음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이러한 과정이 요구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창작자에게 유용하고 의미있는 악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DB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대상 악구를 선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음악 전반 혹은 장르마다 자주 등장하는 보편성 있는 악구가 먼저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독특한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지닌 악구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전통음악 특성을 대표하는 악구들을 우선적으로 꼽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이다. 여기서 보편성을 지닌다고 간주되는 악구들은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파생 또는 친연 관계에 있는 악곡들 내에서 유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악구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악보 1~4와 같은 가야금 산조의 진양조 도입부분은 여러 유파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산조의 보편적인 선율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 악곡 내에서 반복 출현하는 악구 역시 보편성 있는 악구로 취급될 수 있는데, 민요의 경우 메기는 소리보다는 받는 소리 악구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악구들은 서양음악의 후렴구처럼 단순히 양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악곡 혹은 장르를 청각적으로 대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에서 주요하게 선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악곡에 걸쳐 빈도 높게 등장하는 전통음악의 클리셰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는 악구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악구들은 전통음악 내용과 형식의 전형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며 종종 전통음악 내 특정 장르 혹은 전통음악 자체의 음악적 상징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악보 1. <최옥산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 중 첫장단



악보 2.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 중 첫장단



악보 3.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 중 첫장단



악보 4.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 중 첫장단



둘째, 창작 재료로서 유용한 기능성을 갖춘 악구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해 보았다. 즉, 오늘날 창작 음악의 관습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창작자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악구를 우선적으로 DB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구들의 유형으로 우선 새로운 음악적 맥락에 결합되기 용이한 악구들을 꼽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악구를 구성하는 음형들이 유의미한 음악적 형상을 취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은 특정 형태의 음악 맥락에 종속성이 적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적 맥락에서 활용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서양 음악에 대응성이 높은 악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환경에서의 음악 창작 활동은 서양음악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서양음악의 맥락에서

도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는 악구가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서양음악과의 양식적 혼종성의 결과로 나타난 20세기 초 신민요에 포함된 악구나, 서양음악 4박 리듬의 강약에 자연스럽게 조응하는 <양청도드리> 악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악 내부 요소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악곡이나 악구들이 있는데 이 역시 대상 악구 선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전통음악’ 하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본조 아리랑의 선율, 진도아리랑의 받는 소리 같은 것들이 이것의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심미성을 고려하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악구 역시 선별하여 DB로 축적하였다. 산조, 판소리 등에서 나타나는 미적으로 고도화된 악구들이나 전통음악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창성 있는 악구들은 실제 음악 창작에 있어서 특유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기에 창작 재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선별된 악구들은 음악 창작 사용자가 직접 사용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제작되었다. 발굴된 악구들은 개별 악기들의 연주를 통해 루프의 성격을 갖는 오디오 샘플로 다시 제작되었다. 앞서도 서술했듯이 디지털 환경의 음악 제작에서 악구 단위 오디오 샘플을 삽입 조합하는 방법은 흔하게 사용되는데 이러한 결과물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창작 소재가 된다. 다만 기존의 창작소재 개발사업에서 하였던 파일 자체를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보다 유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엮어내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된다. 특히 악구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편으로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3. 악구 메타데이터 개발

선별된 악구에 부여된 음악 요소별 메타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장르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전통음악의 장르 구분이 음악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음악 기능 등의 비음악적 요소 역시 음악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장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하나의 그룹으로 여겨지는 음악적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넓은 견지에서 볼 때 일종의 집단지성 혹은 집단감성의 산물이다.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분류이므로 중요한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다. 전통음악 악구 DB 제작에서 민요 장르는 민속악의 하위 장르로 위치 지웠고 민요 장르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 제주민요의 하위 장르로 다시 나누었다.¹²⁾ 민요의

하위 장르로 통속민요/토속민요 등의 구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지역별 구분이 음악적 특성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고 사용자에게 의한 쓰임새도 많을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다.

2) 선법

민요의 토리와 같은 선법적 요소는 음악적 특성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자, 창작자의 자체 창작부분과 자원 활용 부분을 조합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이다. 메타데이터 ‘선법’ 항목에 부여되는 값은 민요의 경우, 경토리, 수심가토리, 반경토리(반수심가토리), 육자배기토리, 메나리토리로 구분된다. 신경토리, 진경토리, 어사용토리와 같은 민요 토리의 하위 개념은 실질적으로 음악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변별감을 제시한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한편, 전통음악 전공자가 아니면서 장단조 체계를 통해 대부분의 창작활동을 해온 사용자에게 전통의 선법명은 낯설다. 따라서 전통 선법이나 토리 외에 서양음악 장단조의 맥락에서 해당악구를 분류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경토리 민요는 장조, 메나리나 육자배기토리 민요는 단조로 분류될 수 있으나 장단조 속성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Key

여기서 Key는 장조/단조에서 선법적 개념을 제외한 주음의 높이(pitch)를 나타내며, C~B까지 12반음으로 값을 표현한다. 주음 높이의 차이가 음악적 특성을 크게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전통음악 자원을 활용하여 창작에 임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요소이고 자체 창작부분이나 다른 자원과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근래의 저작도구들은 key transpose 기능 등을 제공하여 최초 음원을 자유롭게 원하는 키에 맞춰 비교적 자연스럽게 변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되는 폭이 클수록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저하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키의 음악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키 값을 메타데이터로 설정하였다.

4) 박자

각 악구에 내재된 박구조를 서양음악 박자표 값으로 나타내는 필드이다. 전통음악의 박구조를 서양음악 박자표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하는 문제는 오선보 채보나 역보와 관련되어서 통일된 규칙 마련 없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안을 채택하기는 어려웠고 몇몇 관습을 참조하여 값의 표현 형식을 결정해야 했다. 다만 민요를 비롯한 전통음악의 경우 3소박 계열이

12) 메타데이터의 값이 되는 전통음악 전체의 장르 구분에 대해서는 방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대부분이어서 서양음악 표기로는 'X/8', 국악학계에서 종종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X/J.'이 되는데 전자는 박구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보통의 사용자에게 낯설고 음악저작도구들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자표의 분모를 4분음표로 고정하고, 분자에 박수를 표시하며, 3소박일 경우 't'를 추가하여 나타내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굿거리 장단의 박구조를 지닌 음악은 '4/4t'로 표기된다.

5) 템포

템포는 음악 청취자의 정서 반응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이므로 메타데이터에서 빠져서는 안된다. 디지털 음악 창작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템포는 메트로놈(bpm) 값으로 표현되므로 여기에서도 한 박을 기준으로 한 bpm 값을 템포 필드의 값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음악의 경우 3소박이 일반적이고 템포의 기준이 되는 한 박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bpm 값이 사용자 경험에 부합하는 수치로 표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청취자의 심리적 템포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두어 느림, 보통, 빠름의 속성값을 부여하였다.

6) 장단

장단은 전통음악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요한 개념이다. 전통음악에 어느 정도 익숙한 창작자들에게 악구의 박구조와 템포는 전통 장단으로 개념화된다. 따라서 이를 검색 요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단을 메타데이터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일련의 전통장단 종류가 이에 대한 값이 되게 하였다. 민요의 경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굿거리, 세마치 등의 민속악 장단이 각각의 악구에 선택적으로 부여되었다.

7) 감성

음악창작자는 음악에 내재하는 요소 외에 음악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악구를 탐색하고자 할 때가 있다. 창작과정에서 특정한 분위기나 정서에 맞는 음악 자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악구 데이터에 악구가 유발하는 감성을 메타데이터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한 자연어로 된 형용사들이어서 메타데이터의 값으로는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어떤 악구의 감성 값은 “흥겨운”이고 또 다른 악구의 감성 값은 “신나는”이라면 두 악구는 거의 같은 감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DB에서는 별개의 감성 값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정된 형용사로 입력 값을 제한하거나 감성을 정량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후자를 채택하여 Russell 2차원 매트릭스 모델을 활용하였는데, 각성도(Arousal)와 긍/부정 감성도(Valence)에 따른 정량적 값으로 악구의 감성

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두 값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감성형용사의 예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alence -	Arousal +								valence +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신나 흥분	
Arousal -									

<그림 4> Russell 2차원 정서모델 매트릭스와 감성형용사

이상으로 전통음악 악구데이터에 부여된 음악적 요소 기반의 메타데이터와 그 값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상을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전통음악 악구 DB의 음악 요소 관련 메타데이터

구분	메타데이터	속성값
장르	장르대분류	정악, 민속악
	장르중분류	풍류, 제례악, 연례악, 행악, 산조, 민요, 잡가
	장르소분류	가곡, 가사, 시조, 지역별 민요/잡가/농악
음고 속성	선법	평조, 계면조, 경토리, 육자배기토리, 메나리토리
	장단조	장조, 단조
	기음 피치	c~b
음시가 속성	장단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굿거리, 휘모리
	박자	3/4, 4/4, 10/4, 3/4t, 4/4t
	템포 bpm	J =oo
	심리적 템포	느림, 보통, 빠름
감성	arousal	0~1
	valence	0~1

또한 실제 민요 악구 데이터마다 적절한 필드 값을 부여한 결과의 예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민요 악구 DB 메타데이터 및 필드 값

1	악구코드	악곡명	장르	서브장르	전통조	key	서양음악조	장단	박자	템포	템포(BPM)
171	w3-912-001	닐리리아	민요	경기민요	진경토리	E♭	Major	굿거리	4/4t	보통	40
172	w3-912-002	닐리리아	민요	경기민요	진경토리	E♭	Major	굿거리	4/4t	보통	40
173	w3-913-001	도라지	민요	경기민요	진경토리	E♭	Major	세마치	3/4t	보통	105
174	w3-913-002	도라지	민요	경기민요	진경토리	E♭	Major	세마치	3/4t	보통	105
175	w3-914-001	아리랑	민요	경기민요	신경토리	C	Major	세마치	3/4t	느림	75
176	w3-914-002	아리랑	민요	경기민요	신경토리	C	Major	세마치	3/4t	느림	75
177	w3-914-003	아리랑	민요	경기민요	신경토리	E♭	Major	세마치	3/4t	느림	75
178	w3-914-004	아리랑	민요	경기민요	신경토리	E♭	Major	세마치	3/4t	느림	75
179	w3-915-001	천안삼거리	민요	경기민요	반경토리	c	minor	굿거리	4/4t	보통	40
180	w3-915-002	천안삼거리	민요	경기민요	반경토리	c	minor	굿거리	4/4t	보통	40
181	w3-916-001	한강수타령	민요	경기민요	반경토리	a	minor	굿거리	4/4t	보통	46.66
182	w3-916-002	한강수타령	민요	경기민요	반경토리	a	minor	굿거리	4/4t	보통	46.66
183	w3-916-003	한강수타령	민요	경기민요	반경토리	a	minor	굿거리	4/4t	보통	46.66
184	w3-918-001	창부타령	민요	경기민요	진경토리	E♭	Major	굿거리	4/4t	보통	43.333
185	w3-918-002	창부타령	민요	경기민요	진경토리	E♭	Major	굿거리	4/4t	보통	43.333
186	w3-918-003	창부타령	민요	경기민요	진경토리	E♭	Major	굿거리	4/4t	보통	43.333
187	w3-921-001	몽금포타령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a	minor	중모리	3/4	보통	100
188	w3-921-002	몽금포타령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a	minor	중모리	3/4	보통	100
189	w3-922-001	해주아리랑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b	minor	세마치	3/4t	빠름	110
190	w3-923-001	싸름타령	민요	서도민요	수심가토리	F	Major	중모리	3/4t	느림	75
191	w3-923-002	싸름타령	민요	서도민요	수심가토리	F	Major	중모리	3/4t	느림	75
192	w3-924-001	금다래궁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e	minor	굿거리	4/4t	보통	43.33
193	w3-924-002	금다래궁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e	minor	굿거리	4/4t	보통	43.33
194	w3-925-001	풍구타령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a	minor	자진모리	4/4t	빠름	90
195	w3-925-002	풍구타령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a	minor	자진모리	4/4t	빠름	90
196	w3-926-001	긴난봉가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e	minor	중모리	3/4	느림	70
197	w3-926-002	긴난봉가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e	minor	중모리	3/4	느림	70
198	w3-926-003	긴난봉가	민요	서도민요	난봉가토리	e	minor	중모리	3/4	느림	70
199	w3-927-001	자진난봉가	민요	남도민요	난봉가토리	e	minor	굿거리	4/4t	보통	43.33
200	w3-927-002	자진난봉가	민요	남도민요	난봉가토리	e	minor	굿거리	4/4t	보통	43.33
201	w3-931-001	강강술래	민요	남도민요	육자배기토리	c#	minor	중모리	3/4	느림	55
202	w3-931-002	강강술래	민요	남도민요	육자배기토리	c#	minor	중모리	3/4	느림	55

이와 같은 과정과 결과물이 음악창작자에게 최대한 적합한 형태로 가공된 전통음악 자료 집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한계와 보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전통음악 개념 및 용어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의 문제다.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서 테이블의 필드에 표현되는 값은 다른 값과 구분되는 배타적인 속성을 표현해야 한다. 서양 조성음악의 경우 특정 악곡이나 악곡부분에 대해 선법의 속성 값은 ‘장조’ 또는 ‘단조’로 표현 가능하다. 장조가 지시하는 내용과 단조가 지시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음악은 메타데이터 값으로 사용될 개념과 용어가 배타적인 내용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일한 우조라고 말하더라도 판소리에서 우조와 산조에서의 우조, 가곡에서의 우조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필드 값을 ‘판소리 우조’, ‘산조 우조’, ‘가곡 우조’ 등으로 세분하기에는 ‘우조’ 개념의 공통적 성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우조’와 ‘평조’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악학계의 오랜 논제인 레(Re)모드 우조와 솔(Sol)모드 평조가 구분되는 개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론을 낼 수 있는가 혹은 내야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것도 단순하지가 않다.

이처럼 전통음악에서는 음악적 속성을 표현하는 개념 및 용어들 사이에 구분을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중첩되는 내용이 존재한다. 기존의 전통음악의 개념과 용어에 의해 필드 값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음악적 속성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보완하려면 다음 두 가지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용어가 지시하는 개념과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전통음악이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는 국악학계의 오랜 연구가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전통음악이론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중첩되는 내용을 지시하는 서로 다른 개념과 용어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집합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향이다. 아직까지 어떠한 모델이 이에 적합할 수 있는지 선불리 의견을 내기는 어려우나,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가 ‘합리성’ 기반의 모델이었다면, 최근 들어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태그, 폭소노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경험 기반의 정보 처리 방법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한다. ‘우조’, ‘평조’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과 용어들은 오랜 시간 이 음악을 생산하고 향유한 사람들 사이에 축적된 ‘느낌’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음악의 속성을 서양음악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평조=장조’, ‘계면조=단조’ 도식으로의 대응은 음악적 오해의 여지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정악의 계면조는 원래의 오음음계 계면조 특성을 잃고 평조화 되거나 장단조로 판정하기 힘든 독특한 음계로 남기도 했다. 현행 계면조 악곡에는 黃-太-仲-林-無의 출현음을 나타내는 악곡이나 악구들이 있는데 이 때 太를 포함한 진행에서는 장조의 느낌이, 無를 포함한 진행에서는 단조의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악곡이나 악구들은 서양음악의 장조 혹은 단조로 번역하기 어렵다. 민요의 경우 반경토리가 이와 관련된 예가 될 것이다. <악보 5-6>은 모두 라-도-레-미-솔 반경토리 선법 민요의 첫머리 부분이다.

<악보 5>

몽금포 타령

중보리 장단 시도(황해도) 민요

<악보 6>

천안 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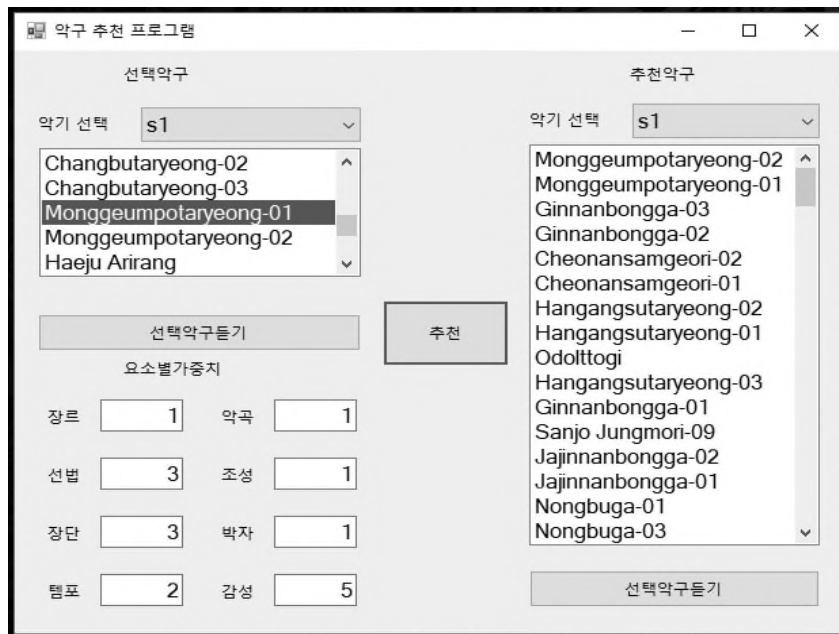
굿거리 장단 경기(충청도) 민요

주목할 부분은 여기 부여된 피아노 화성 반주인데 편곡자가 이 음악을 서양음악의 어떤 조로 해석했는지 엿볼 수 있다. <악보 5>의 반복되는 반주 음형은 F:I로 강박을 시작하여 F장조의 느낌을 확립하고 있고, 다만 3박째에 vi7를 사용해서 라모드 반경토리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즉, 악곡을 F장조 진행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단조 느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악보 6>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G:I-V7 진행이지만 각 마디 시작 화성은 내성의 E음 때문에 e:i7 혹은 E:vi7가 될 수도 있어 역시 단조의 성분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반경토리 민요가 장조로 해석되기도, 장조와 단조사이의 모호한 경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자의 사용성을 위해 반경토리 민요 악구에 서양음악 조의 속성을 부여하고 배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음시가 속성을 서양음악 박자표와 템포 표현으로 번역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민요를 비롯한 전통음악 대다수가 3소박 구조로 되어있는 반면, 2분박이 많은 서양음악의 기호는 3분(소)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굿거리 장단을 12/8박자표로 표현한다면 12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살펴 봤듯이 3소박 악구에는 3/4t, 4/4t 등 triple을 나타내는 ‘t’를 붙여 박자표를 나타냈으나 모든 사용자에게 익숙한 기호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소박 계열이기 때문에 악구의 템포를 메트로놈기호로 표현하는 일도 쉽지 않다. 서양음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분음표 기준 대신 8분음표나 점4분음표 기준으로 나타내야 하며 8분음표(소박)와 점4분음표(박) 단위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템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지 확실한 답을 내기 어렵다. <그림 5>를 보면 <천안삼거리>의 템포가 J.=40인데 3분박 단위 악곡의 경험 많지 않은 비전통음악 창작자들은 이를 ‘한 박 = 40’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매우 느린 악곡’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굿거리 장단 <천안삼거리>는 그렇게 느린 악곡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를 보완하기 위해 느림/보통/빠름의 값을 갖는 별도 속성을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템포를 연속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남는다.

셋째, DB 메타데이터로 설정한 음악적 요소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창작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

은 과거와 같이 음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있는 사람만을 창작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거나 귀찮은 음악 용어로 표현되는 음악 요소를 메타데이터로 두고 이를 검색조건으로 하여 악구탐색을 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창작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에게 경토리, 육자배기토리, 메나리토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고 해서 원하는 악구 자료를 편리하게 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유사도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음악 데이터를 탐색하게 한 뒤 마음에 드는 데이터를 발견하면 그와 유사한 다른 데이터들을 풍부하게 제시해 주는 방식이다.¹³⁾ 이 때 데이터 간에 유사도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들의 속성을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요 자료 간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메타데이터로 설정했던 장르, 선법, 박자, 템포, 장단, 감성 등의 값이 근거로 작용한다. 이때 전통음악 악구 DB의 메타데이터와 필드 값은 사용자의 검색 수단이 아닌 데이터 간 유사도 판별 수단이 된다. <그림 6>은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도 측정 기술을 적용한 악구 추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다. 메타데이터의 단순한 활용뿐만 아니라 요소별 속성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음악 창작자들의 실질적인 감각에 맞도록 유사도 측정을 미세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악구 추천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음악 창작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6> 요소별 가중치를 적용한 악구 유사도 추천 시스템 사례

13) 특정 데이터와 인접 데이터 사이의 유사성 분석은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4. 민요 자료 창작자원화 사례 결과물

‘Gayageum - Korean Zither’는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음악 악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Kontakt 기반의 가상악기이다.

<그림 7>은 메인 화면으로 중앙의 Patterns로 표시된 영역에 사용자가 활용하기 위해 선택된 악구가 나열되어 있다.



<그림 7> 가상악기 ‘Gayageum - Korean Zither’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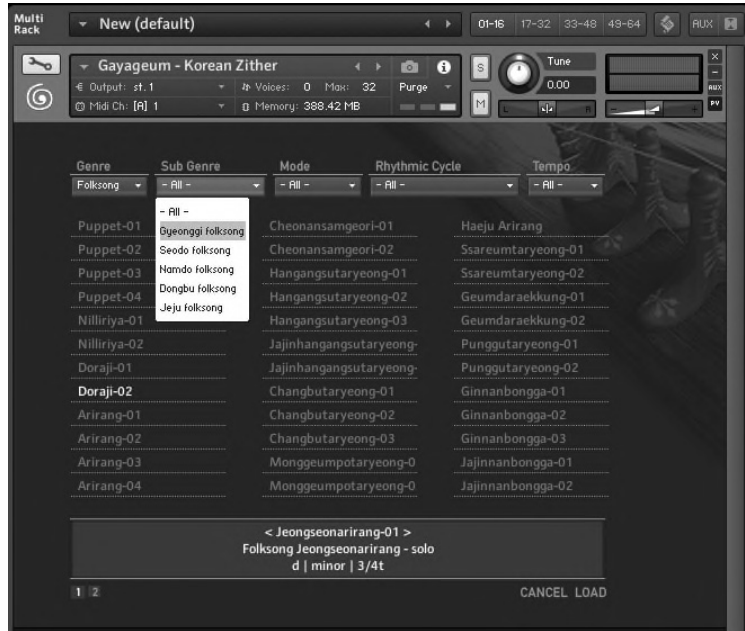
사용자가 다른 악구를 선택하고 싶으면 Load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 8>과 같은 악구 선택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악구 선택 화면의 처음 모습은 <그림 8>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전통음악 악구데이터의 목록이 펼쳐진 상태다. 사용자는 각각의 악구를 선택하여 청취하면서 필요 악구를 취할 수 있지만, 상단의 장르-서브장르, Mode (선법), Rhythmic Cycle (장단), 템포 메뉴를 통해 원하는 음악 속성을 지닌 악구를 검색해 나갈 수 있



<그림 8> ‘Gayageum - Korean Zither’ 악구선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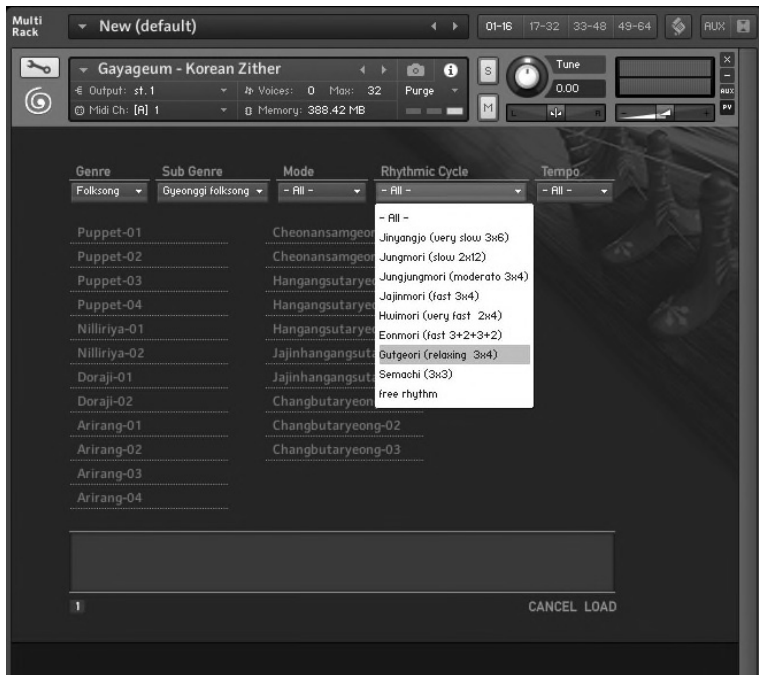
다. 장르, 선법, 장단, 템포 등의 선택 메뉴는 바로 전통음악 악구 DB에서 설정한 메타데이터 항목이다.

<그림 9>는 장르에서 이미 folksong(민요)을 선택한 상태이다. 화면에 민요 악구 목록들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다시 경기민요만 선택하기 위해 서버 장르의 목록을 연 모습이다. 서버 장르에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동부민요, 제주민요의 목록이 보인다. 이는 DB에서 입력한 서버 장르 필드의 값들이다. 사용자는 화면에서 경기민요를 선택하는 중이다.



<그림 9> 'Gayageum - Korean Zither' 악구 장르 필터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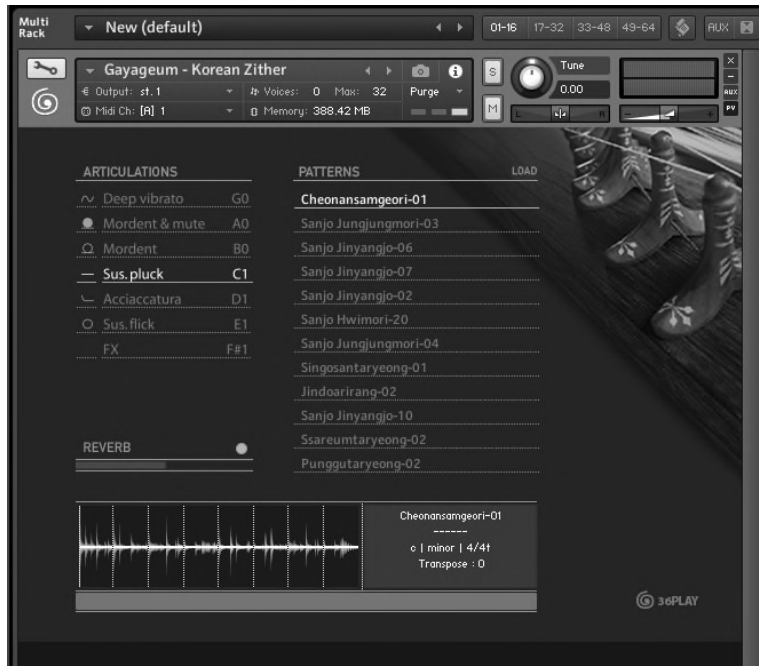
<그림 10>은 경기민요를 선택한 결과 경기민요 악구 목록이 필터링되어 제시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굿거리 장단의 악구만을 취하기 위해 Rhythmic Cycle 메뉴를 펼치고 있다. 여기서 굿거리 장단을 선택하면 DB의 장단 필드에 굿거리장단 값을 갖는 악구들만 선택적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중 사용자가 청취하여 마음에 드는 하나의 악구 선택한 후



<그림 10> 'Gayageum - Korean Zither' 악구 장단 필터링 과정

LOAD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11> 과 같이 메인화면으로 돌아온다.

<그림 11>의 Patterns 영역에서 첫 번째 악구 목록이 ‘천안삼거리-01’로 변경되었다. ‘천안삼거리-01’은 위와 같이 필터링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선택된 악구이고, 이제 해당 악구를 가상악기 내에서 직접 재생·연주하거나 다른 음악제작 도구로 데이터를 보내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1> ‘Gayageum - Korean Zither’ 악구 선택 결과 화면

IV. 결론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하고 산업적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한국음악과 민요는 창작 자원으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 전통음악과 민요의 디지털화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창작 자원으로 새롭게 가공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별 악곡으로부터 발굴해낼 수 있는 악구를 루프 샘플 형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MIDI로 보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음악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악구들이 가져야 할 속성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실제 창작 자원 및 저작도구 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우리 전통음악이 음악 창작의 소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상악기의 형식을 갖추는 필요가 있었으며 음악창작의 프로세스와 활용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개별 소재의 가사가 특정되는 것은 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요는 성악적 악구로 발굴되는 대신 악기로 연주된 선율 악구로 재가공되었다. 그리고 음악 창작과정에 해당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

의 저작도구들이 요구하는 서양적 관점에서의 속성들을 부여하였다. 한국음악 전공자를 제외한 다수의 음악 창작자들에게 전통음악의 낯선 악구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발전된 유사 데이터 추천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감성적 해석 등 개별 악구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속성 부여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악구 기반의 지능형 한국 전통 가상악기가 국가사업으로 개발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결과물이 음악창작자들로 하여금 민요와 전통음악 자원에 접근토록 하는 최상의 시스템이라 할 수는 없다.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전통음악의 개념 사이에는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며, 전통음악 특유의 음악 속성과 서양음악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음악 속성 간의 간극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경험성 기반의 정보 처리 방법을 통해 보완 개선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백대웅,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 구조』, 어울림, 2004
- 이보형, 김영운, 이진원, 『경기잡가』, 경기도국악당, 2006
- 황준연, 『한국 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논문]

- 김우진, 「거문고 산조의 우조·평조·계면조」, 2017 한국국악학회 제69주년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2017
- 김혜정, 「판소리 악조론의 보완과 확장」, 2017 한국국악학회 제69주년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2017
- 문숙희, 장희선, 배인교, 「한국 전통음악의 음조직 관련 용어 검토」, 『한국음악연구』, 제25집, 한국국악학회, 1997
- 박명숙, 「19세기 후고 리만의 악구(Phrase)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신대철, 「우리음악 分類를 爲한 새로운 試案」, 『한국음악연구』, 제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 신은주, 「한국 민요 선법(토리)의 연구 성과 검토 및 논점」. 『한국민요학』, 제46집, 한국민요학회, 2016
- 윤호세, 「한국전통음악 장단론 연구 : 기존이론 검토와 장단 구성 및 운용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기현, 주진오,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코카포커스』, 2012년 02호 (통권 50호),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보형, 「박, 박자, 장단의 층위(層位)와 변이(變移)유형」. 『한국음악연구』, 제40집, 한국국악학회, 2006
- 이보형, 「長短 리듬型의 形態構造 및 統制構造와 그 變化研究」, 『동양음악』, 19권,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1997
- 이보형, 「조(調)가 지시하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 『한국음악연구』, 제51집, 한국국악학회,

2012

- 이보형,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의 개념수용에 관한 고찰」, 『국악원 논문집』, 제1집, 국립국악원 1989
- 이소라, 「가야금 산조의 기보법 연구」, 『산조의 음악학적 연구』, 민속원, 2004
- 이해경, 「상호문화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민요」, 『한국민요학』, 제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이화영,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調構成연구 : 김죽파.최옥삼.강태홍.김병호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전인평, 「우리 음악 분류법의 역사적 변천」, 『한국음악연구』, 제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 전인평, 「한국음악의 선법론을 위한 제언」, 『한국전통음악학』, 제6집, 한국전통음악학회, 2005
- 정유희, 「음악분석에 있어서 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문, 2016
- 최상혁 · 이상구 「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DB구축을 위한 입력 및 관리 시스템의 구현」, 2016 한국국악학회 상반기 토대연구 학술회의 발표문. 2016
- 최종민, 「현행 국악 개설서를 통해 본 분류방법론의 문제」, 『한국음악연구』, 제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 최헌, 「국악이론 연구 성과 검토 : 음조직론을 중심으로」, 『음악학』, 제9집, 한국음악학학회, 2002
- 한국무형유산학회,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한 무형유산의 전형의 양상 및 변화」, 2016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무형유산학회, 2016
- J. A. Russell,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980

「악구와 속성 중심의 민요 자료 창작 자원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허정주(전북대학교)

장인종 김병오 교수님의 연구는 한국 민요의 디지털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민요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음악 창작을 위한 한국전통음악과 민요를 새로운 음악 창작의 자료로 활용하는 기능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개별 악곡으로부터 이른바 ‘악구’를 루프 샘플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목 「악구와 속성 중심의 민요 자료 창작 자원화 방안」라는 제목은 문맥상의 의미 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요 자료의 악구 · 속성 중심 ‘창작 자원화’ 방안」, 「민요 자료를 통한 악구 · 속성 중심의 ‘창작 자원화’ 방안」 정도로 수정하거나, 다른 표현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민요는 창작음악의 자료로서 중요한 장르로 꼽을 만 하여, 창작 활동을 비롯한 후속세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사업이 다수 펼쳐진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해내고 있는 ‘창작 자원화 방안’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까지 조사 · 정리된 한국 민요 자료 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민요 데이터베이스 자료들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알려진 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구비문학대계』(1-2차 조사사업 자료)와 서울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도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으로 민요 아카이브 구축 현지조사를 5년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주요 자료들에 관한 언급이 없어 궁금합니다.

3.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민요 자료 및 그 활용 방안 모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자료 검색 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은 민요 자료 및

앞으로 모아 나아갈 민요 자료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빅데이터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그 자체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 활용 방안의 모색은 아무래도 그 선후가 뒤바뀔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민요 자료의 주요 요소로 원자료 즉 음원 · 가사 · 곡조(음악적 구성-선법 · 박자 및 장단 · 기타) · 음색 및 창법 · 가창방식 · 반주악기 · 기능 · 맥락(여러 외적 조건들) · 미학 등이 두루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요에서는 특히 ‘음색’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요소들이 본 연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5.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용어화 하신 민요 자료의 ‘악구’라는 용어는 우리 국악계, 국문학계 등에서 일반화된 혹은 일반화 될 수 있는 용어인지에 관해서, 이 분야 특히 국악계 전문가들의 고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6. 제시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용이라면, 그리고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창작자들도 이용할 것이라고 본다면, 영자 표기로 된 용어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글로 된 코드 용어를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Cheonansamgeori, Sanjo Jungjungmori...)
7. 민요를 ‘창작 자원’화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음악 양식을 창조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음악으로부터 세계적인 대중음악 양식이 창출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 민요로부터 앞으로 전 세계적인 대중음악이나 대중가요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전통민요는 어떤 방향으로 ‘자원화’ 및 창작적인 활용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대중음악이나 대중가요의 창출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처럼 대체로 서양음악 어법 및 이론을 추종하는 방향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독특한 한국음악 또는 동양음악 어법을 존중하면서 자주적인 방향으로 추구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발표자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에 후자의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면, 이와 걸맞는 민요 자료의 활용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연구하신 자료 시연을 해주신다면, 이 메타데이타를 좀 더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
주제 : 지역 민요의 지속 보전과 자원화 방안

조선족 민요의 전승현황과 자원화 방안

- ‘청주아리랑’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성희** (중국연변대학교예술학원)

■ 토론 : **이윤정**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조선족 민요의 전승현황과 자원화 방안

— ‘청주아리랑’을 중심으로 —

김성희(중국연변대학교예술학원)

<목차>

1. 들어가면서
2. 조선족 민요의 전승 기반
3. 정암촌의 '청주아리랑'의 전승 양상
 - 1)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발굴과 보존
 - 2)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가사, 선율적 특징
4. 조선족 민요의 자원화 방안
5. 나오면서

[국문초록]

민요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한 민족의 전반적인 역사 속에 잠재해온 문화적 형태로서 민족 특유의 심미적 양상과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다. 그중 ‘아리랑’은 이미 민요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승과 보호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리랑’의 방대한 체계 가운데서 ‘청주아리랑’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기타 아리랑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정암촌에서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던 ‘청주아리랑’이 세상에 알려지고 1978년에 이루어진 조선족 민요학자 김봉관 선생의 채록 자료가 알려지면서부터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과정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본 ‘청주아리랑’의 발굴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연원과 전승 현황 및 지속적인 자원화 방안에 대해 통시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조선족민요, 정암촌, 청주아리랑, 전승 기반, 자원화 방안

1. 들어가면서

흔히 민요는 한 민족의 삶과 동반되며, 그 속에서 경유한 역사와 함께 오랜 세월을 거쳐 민족 특유의 심미적 양상과 정서를 담게 된다. 이른바 민요는 ‘전통적 요소’의 음악적 체현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그중 우리의 민요를 담론함에 있어서 ‘아리랑’¹⁾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된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겨레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마다에 널리 불려지고 있는 ‘아리랑’소리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창 주체와 형태, 판본(版本)을 막론하고, 삶의 곳곳에 존재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소리꾼이 ‘아리랑’을 즐겨 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경우도 있고,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면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낙네들이 나물을 뜯거나 방아소리 또는 시집살이 노래로 부르기도 하였²⁾는바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아리랑’들이 존속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아리랑’은 점차 가곡 장르의 범주를 넘어 범문화(泛文化)적인 기호로, 정체성 인지의 상징적 기호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모스크바의 프리마돈나 ‘루드빌라 남’의 의식 속에도 ‘아리랑’이 있고,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사할린과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까레이스키’의 의식 속에도 ‘아리랑’이 있다.³⁾ 아울러 이에 대한 전승 및 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풍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여타의 ‘아리랑’관련 연구와 달리 ‘청주아리랑’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청주아리랑’의 발상지인 충북에서조차 전승이 미미했음과 한국 내에서 오랫동안 온전한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⁴⁾ ‘청주아리랑’의 객관적 현실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⁵⁾의 ‘청주아리랑’의 음악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가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암촌본 ‘청주아리랑’의 발굴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연원과 전승 현황 및 지속적인 자원화 방안을 ‘조선족 민요의 전승 기반’이라는 바탕 위에서 통시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성’과 한반도 근현대를 관통한 질곡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은 음악적 소재’⁶⁾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청주아

1) 여기에서 가리키는 ‘아리랑’은 여러 지역의 부동한 아리랑을 지칭하는 개념임을 밝힌다.

2) 이보형(1997), 『아리랑 소리의 根源과 그 變遷에 관한 音樂的 研究』, 한국민요학(5), 84쪽.

3) 임영상, 황영삼 외(2005),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86~188쪽.

4) 안상경(2008), 『‘청주아리랑’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인문콘텐츠(11), 169쪽.

5) 정암촌(亭岩村)은 일제 식민통치 당시 1938년 한국의 충청북도 청주군, 옥천군, 괴산군, 보은군의 농가 80여 가구가 이주 정착하면서 생겨난 마을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7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길림성 도문시 랑수진에 소속되어 있다.(김성희, 2010, 『조선족 전통예술의 전승기반』, 통일인문학 53쪽 참조)

6) 안상경(2008), 『‘청주아리랑’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인문콘텐츠(11), 167쪽.

리랑’에 입각하여 상기의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조선족 민요의 전승 기반

중국 조선족 민요는 130여년을 아우르는 조선족의 이주사와 함께 구전심수(口傳心授), 즉 서사기록의 형태가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한 세대 또 한 세대 전해오면서 처한 시기에 따라 외래문화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충격들을 받아왔다. 이러한 연고로 조선족 민요는 장르 자체의 재창조 능력이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노래문학 고유의 기본성향인 ‘내적 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족 민요는 다변의 현실에 강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사회의 격변과 달리 지역성 또는 향토성으로 대변되는 정통성의 고수에 있어서 확연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통성의 고수’와 ‘표현의 불변’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요가 유전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것은 민요의 특성에 부합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이는 민요를 개인 창작품으로가 아니라 집단적 지혜의 산물로 간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민요 그 자체가 생명의 발현이면서 시적 형상화의 표현문이기 때문에 민요의 소재와 노랫말의 근원을 파헤쳐 보면 생활의 진솔한 반영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시대가 변하고 사회문화가 변모하는 객관적 생존 환경에 비추어, 조선족 민요는 중국 속에서 조선족다운 민속과 심미적 정서를 유지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문화를 접목시켜 색다르게 소화해낸 구비전승물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조선족 민요가 지니고 있는 상기의 특성을 ‘왜곡적인 수용’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사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인 구전 민요에 이러한 요소들이 전통적으로, 혹은 변이되어 신민요화·통속화의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매커니즘(mechanism)과 결부시켜 분석해볼 때, 조선족 민요의 편린 속에는 한국에서 잊혀진 각편이 있는가 하면, 지난날 그들의 내면을 진솔하게 표출한 각편이 있어 광의적인 정통성 고수의 견지에서 민족음악적 가치를 인정받음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조선족 민요가 중국 땅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던 전승 기반은 크게 두 갈래의 근원으로 요약될 수 있는바, 하나는 자민족의 전통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음악이다. 표상으로는 전혀 연관을 이루지 못할 두 가지 음악 분야가 현실적으로는 상호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늘날의 중국 조선족 음악을 구축하였고,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은 중국 조선족의 창작음악을 자민족의 음악답게 함에 있어서 유전자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중국 땅에 뿌리내린 우리 민족의 민

요는 민족의 정체성(正體性)을 확인하는 투명한 거울이자 민족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민요 본원의 의미 외에도 중국 조선족 음악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가장 원초적인 요인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배경 하에 마찬가지로 급변하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현실에서 민요의 생존환경도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살아있는 민요들의 가치도 급락하고 있음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의 ‘청주아리랑’에 대한 보존·정리 사업은 비단 조선족의 이주사와 함께 정서의 연대감을 확인하는 독특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새로운 발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민요 분야의 전승 기반 구축 및 자원화에 필수적인 원시적 자료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본다.

3. 정암촌의 ‘청주아리랑’ 전승 양상

이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안정하게 전해지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의 ‘청주아리랑’의 전승 양상에 대해 보다 계통적이고 입체적인 고찰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품 분석의 선후 순서에 따라 ‘발굴과 보존’ 및 ‘가사·음악적 특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발굴과 보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주아리랑’의 본고장은 한국의 충청도이지만 한국 내에서는 오랫동안 단편적으로 존재해오다가 1990년대 초반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에 대한 발견과 함께 1990년대 중반에 완전한 판본의 ‘청주아리랑’이 알려지게 된다. 사실 ‘청주아리랑’이 발견된 연변주에서도 이 노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청주아리랑’의 원모가 알려지게 된 데에는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려는 중국 및 한국의 선학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1978년, 김창호(자치주 문화국 국장)를 단장으로 하여 정길훈(문학 담당), 리항훈(음악 담당), 김태갑(문학 담당), 김봉관(음악 담당), 리동구(촬영 담당), 림성진(음악 담당) 등으로 구성된 사업 소조가 정암촌으로부터 시작하여 편린으로 전승되고 있던 조선의 설화 및 민요를 수집, 정리하기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아리랑’이 세상에 소개되었으며, 충북지역 출신의 리상철, 신철, 리순자 등 중요 민간연예인이 발굴되었

던 것이다. 그중 ‘청주아리랑’은 바로 이들 중 최고의 민간연예인으로 인정받았던 신철(1931~1992)로부터 채록된 것으로, 그는 1931년 옥천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이주하였으나 이주 후, 곧 부모가 사망하여 고아가 되었고 동네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으니 한 많은 사람이 노래를 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3년 뒤인 1981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학예술연합회에서 출간한 『민요집성』에는 1978년의 판본과 상이한 세 편의 ‘청주아리랑’이 수록되었다. 물론 김봉관 선생의 견해에 따르면, 후기에 수록된 이 세 편의 ‘청주아리랑’은 ‘신아리랑’이 일정한 정도에서 가미된 산물로서 ‘청주아리랑’의 원조로 보기는 어려운 소지가 있겠으나 ‘청주아리랑’의 ‘완정한’ 이본이라는 점에서도 참고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⁷⁾

그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임동철 충북대 교수가 정암촌을 수차례 방문하여 관련 사설을 수집하였고 조순현 교수가 역시 정암촌을 방문하여 녹음의 방식으로 음성 자료를 정리하였다. 2001년 충청북도의 초청으로 정암촌 주민들의 고향방문시 그들이 청주에 머무는 동안 녹음한 자료 등이 구축되었다.⁸⁾

이렇듯 20여년을 사이 두고 몇 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상기의 발굴, 정리 작업이 선행되었기에 오늘날 이에 대한 자원화 등 기타 방면의 연구를 심화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2)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가사·선율적 특징

(1) 가사적 특징

정암촌에서 ‘청주아리랑’은 60세가 넘는 노인들이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된 민요인바, 설명의 편리를 위해 우선 필자가 2004년 5월 8일에 임동철⁹⁾, 김봉관¹⁰⁾ 선생과 함께 정암촌 마을에 대한 현지 답사를 통해 채록한, 박선규 할머니가 부른 ‘청주아리랑’의 가사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팔라당 팔라당 갑사나 댕기/ 본때도 안 묻어서 사주가 왔네

7) 이 부분의 역사 자료는 김성희(2010), 『조선족 전통예술의 전승기반』, 통일인문학(49), 57쪽을 참조.

8) 이 부분의 역사 자료는 조순현(2003), 『연변지역 <청주아리랑>의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13), 241쪽을 참조.

9) 한국 충북대학교 총장, 정암촌 보존회 회장.

10) 1978년 ‘청주아리랑’의 발굴인. 원 도문시 문화관 관장, 도문시 가무단 단장, 도문시 음악가협회주석 등 직무 역임. 그는 300여수의 민요를 수집, 정리하였다.

사주랑은 받아서 무릎에 놓고 / 한숨만 쉬어도 동남풍 된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시아버지 골난 데는 술 받아주고 /시 어머니 골 난데는 이 잡아주자
시동생 골난데는 엿사다주고 /막내동서 골난 데는 흥두깨 찜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시아버지 죽어서 조탸더니 /왕골자리 떨어지니 또 생각나네
시어머니 죽어서 조탸더니 /보리방아 물저노니 또 생각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시누이 시집보내 조탸더니/ 빨래줄 떨어지니 또 생각난다
아리랑 타령이 얼마나 좋은지/ 밥푸다 말고서 엉덩춤춘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청주아리랑’으로 이름 붙여진 이 노래는 예전부터 어른들이 부르던 노래로서 민족 고유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가사는 ‘손때도 안 묻어서 결혼용 사주를 받게 된’여리고 수줍은 처녀가 결혼(시집) 생활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심경을 발단으로, 시부모와 동생을 정성스레 섬기면서 ‘현모양처’로 거듭나는 과정들을 극히 생활적인 ‘술, 이, 엿, 흥두깨 찜질’ 등 이미지들을 통해 표현해냄으로써 실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원된 민요의 근원을 파악 가능케 한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제3연에서는 시부모의 부재에 대해 다소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이려는가 싶더니 ‘왕골자리 떨어짐에 시아버지 생각나고, 보리방아 물저음에 시어머니 생각난다’는 묘사를 통해 시부모에 대한 두터운 정을 역설적으로 승화시켜 그리움을 짙게 강조하는 서사적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즉 여성의 주변 삶에서 부닥치는 애환을 소박한 언어에 담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충청도 여인의 소박했던 옛 정서와 인간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¹⁾

아울러 ‘청주아리랑’을 전형으로 하는 조선족의 아리랑은 가사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한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양양되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특징을 갖는다. 즉 가사 자체는 부르는 이에 따라 약간의 표현적 차이를 보이는 대동소이함이 존재하겠지만,

11) 임동철 외(2004), 『중국 정암촌의 ‘청주아리랑’』, 집문당, 30쪽.

전반적인 가사가 갖는 총체적 의미가 변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민중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일한 민요가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제 치하에서는 나라를 잃은 망국의 한을 달래려는 듯, 극성스러운 정도로 많이 불렀고, 또 일제가 물러간 해방 후에는 온 겨레가 천지와 더불어 희망에 부푼 해창(諧唱)으로 불리어졌던 것이다. 그밖에 고국을 떠나는 동포들은 이를 통해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던 아픔을 달랬고, 생소한 만리타국에 나가서는 온 몸에 스며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민요의 곡조와 함께 향수가 깔린 저력으로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냈으며 금의환향(錦衣還鄉)하는 귀국선에 오를 때에는 이를 울동으로 승화시켜냈던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족 사회에서 불리던 수많은 아리랑 중 정암촌에 정착·전승 되어오던 ‘청주아리랑’은 곧 달린 사회의 해원(解怨) 또는 해한(解恨)을 깊이 함축한 노래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2) 선율적 특징

‘청주아리랑’의 선율적인 특성에 대해 박자와 음정적인 측면에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서양음악에서 리듬의 분할은 대부분 2분법을 사용한다. 그것은 인간의 걸음걸이와 같은 길이의 반복이므로 당연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민족의 음악에서만 박자의 분할이 특별히 3분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걸음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호흡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음악에 3박이 많은 이유는 고대로부터 숭상해 왔던, ‘3’이라는 숫자에 의탁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청주아리랑’(박선규창)에 나타나는 악곡은 모두 세 개의 악절 전렴과 후렴으로 8분의 5박자로 24마디로 구성되어있다. 선율의 구성음은 고음에서 저음 순서로 ‘le’, ‘do’, ‘la’, ‘mi’ 4음으로 되어 있다. 전렴의 앞소리 시작음은 ‘mi’음이며, 종지음은 ‘la’음으로 구성되었다.

후렴구의 시작음도 ‘mi’음이며, 종지음 역시 ‘la’음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것이 ‘mi’음과 ‘la’음으로 종지되는 메나리조의 종지법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시김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절주에서 볼 때 아리랑은 대부분 규칙적인 6/8, 3/4으로 3박자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청주아리랑’은 8분의 5박자로서 3박+ 2박의 혼합박자로 불규칙한 리듬으로 되어 있다. 왜 엇박자 5/8박으로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면 ‘♩♪♪’ 이런 3박과 2박의 리듬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정지 상태를 파괴하여 선율이 거침없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음(音) 구성에서는 ‘mi _ sol _ la _ do _ le’의 5음 음계로 ‘소3도+대2도+소3도+대2도’로 되어 있다. 또한 선율에서 첫음 ‘do’로부터 ‘mi, dole, lasol’로 장식음을 많이 사용하여 음악적 감수성과 감칠맛을 더욱 돋운 특징이 나타난다.

위 악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주아리랑’에서 중점적인 주제는 앞부분에 놓인다. 가사에서나 선율에서 볼 때 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서방님’으로서 가장 그리운 님을 주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고조 부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절절한 그리움과 동경의 심정과 함께 음악적 정서표현을 절정으로 끌어간다. 이를 ‘청주아리랑’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 색채의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이와 같이 ‘청주아리랑’에는 선율에서의 동성, 특이적인 조식음의 사용, 가사에서의 상징법, 양성모음의 반복, 변화반복, 반복법 등 수법을 충분히 사용하여 청주사람들의 특이하고도 고귀하며 풍부한 내심세계를 표현하여 또 하나의 충청도 풍격을 형상화하였다.

4. 조선족 민요의 자원화 방안

사라져가는 조선족 민요를 발굴하여 연구하는 일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성들여 발굴해낸 구전 민요의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 더 나아가 문화콘텐츠적인 차원에서의 자원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이에 본고의 끝부분에서 민요의 보존과 관련하여 현존 유일의 ‘청주아리랑’ 원정본인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계승 발전을 중심으로, 그 자원화 방안에 대해 약간의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¹²⁾

첫째, 우리의 민요를 살리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민요는 살아 있을 때 제구실을 하게 된다. 민요가 살아 있다는 것은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살아 있고 그들 또한 민요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제구실이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해보고 전통적인 흥과 미를 느껴보며 민족적 긍지를 가지게 하고 민족사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민요가 살아서 제구실을 하자면 두 가지 필수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원창자(原唱者)에 대한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후진양성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상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요의 원상(原狀)보존도 중요하다. 살아 있는 민요는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원상 보존이 불가피하다. 민요를 원상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민족예술문화의 역사를 보존한다는 말로도 통한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줄기 없는 잎이 없다.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기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으나 줄기와 잎이 필수 있는 전제이다. 그런데 민요를 원상 그대로 보존하는 데는 두 가지가 관건이 된다. 첫째는 수집이고, 둘째는 보관이다. 수집, 정리된 민요를 변질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셋째는 방송, 보급이다. 민요 창자들이 부른 노래를 방송에 자주 올려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민요를 즐기고 민요를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둘째, 정암촌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공동체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아야 문화가 산다. 따라서 민요도 전승될 수 있다. 정암촌의 경우에도, 정암촌이라는 공동체의 조직 및 공동체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암촌 고유의 문화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정암촌 민요도 전승될 수 없다. 이는 정암촌이라는 한 마을에 국한하는 국지(局地)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국 전

12) 이 부분은 김성희(2010)를 보완한 것임.

체의 조선족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의 문화를 보존하고, 어떻게 지역문화를 보존 . 계승하는가 하는 포괄적인 문제다.

정암촌의 고유한 문화는 매스컴을 통해 중국 조선족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이에 정부에서 정암촌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기회 삼아 정암촌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바로 세워 문화유적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암촌 민요의 브랜드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민요는 원래부터 지방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아리랑이라 하더라도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영천아리랑’이 있듯이 ‘청주아리랑’도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형성되게 하여야 하며, 이주마을로서의 문화적 특징 살려 그냥 정암촌 사람들만이 즐기는 노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향수하고 즐기는 노래로 부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요의 브랜드적 역할이 크게 발휘되어 내 고향 충청북도, 내 마을 정암촌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정암촌의 문화정체성의 재조명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문화 콘텐츠적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 정암촌의 ‘청주아리랑’과 관련한 저서들이 출판된 것은 완전한 ‘청주아리랑’의 보존과 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되며, ‘청주아리랑’의 과거와 오늘을 있는 가교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업은 ‘청주아리랑’전승 및 보존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는 ‘자원화’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경로의 홍보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청주아리랑’을 테마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다양한 체험행사를 비롯하여 전문가 차원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청주아리랑’을 포함해 잊혀져 가는 민요들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들을 구상하고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청주아리랑의 발견은 청주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청주사람들의 기억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고향의 민요가 머나먼 타국 땅 만주별판 연변자치주의 한 마을에서 그대로 온존돼 60여년만에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끈질긴 생명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흔치 않은 사례로 손꼽힌다.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정암촌에 이주한 충청북도 출신 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그려낸 ‘두만강의 충청도 아리랑’의 작가 리혜선씨에 의하면 당시 정암촌 주민들은 아이들

에게 밥을 먹기 전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 대답을 확인한 후 밥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청주아리랑은 현대 중국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대물림을 하며 중국의 ‘충청도 양반마을’로 불리는 정암촌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청주아리랑이 지닌 역사적 생명력에 덧붙여 이를 어떻게 전승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문화콘텐츠로 자원화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청주아리랑의 본 고장인 충북에서 청주아리랑을 지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충청북도는 2000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재중동포 고향 방문 형식으로 정암촌 이주민 1세대 32명을 초청하고 정암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여년간 자체 예산을 들여 농업연수를 시키는 등 나름대로 정암촌의 문화를 고국으로 다시 가져오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중국사회가 전반적으로 개혁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정암촌 역시 여타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중국내 대도시 또는 한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마을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가속화됐고, 이제는 청주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주민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한 존재가 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 때 반짝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정암촌과 청주아리랑은 최근 들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청주아리랑’ 보존 자체는 물론 자원화 문제는 더욱 어려운 과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아리랑’을 사실상 처음으로 채록하고 이를 학계에 보고한 연변의 민요학자 김봉관 선생 등은 청주아리랑 보존과 전승, 더 나아가 자원화 방안에 대해 공통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즉 ‘청주아리랑’ 보존과 자원화 문제를 정암촌 주민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청주아리랑의 본고장인 청주시민 더 나아가 충청도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주별판에 끈질기게 남아있다가 60여년만에 되살아난 ‘청주아리랑’의 미래 운명은 결국 청주시민이 가꿔나가야 할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5. 나오면서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청주아리랑’을 중심으로, 민요 전승의 바탕 위에서 그 발굴 과정과 전승 현황 및 가사·음악적 특징을 포함한 제반 방면에 대해 분석해 보고, ‘청주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민요의 자원화 방안을 피력해 보았다.

민요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한 민족의 전반적인 역사행정 속에 잠재해온 문화적 형태로서 민족 특유의 심미적 양상과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다. 그중 민요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리랑’의 방대한 체계 중, 한국에서 오랫동안 완정본이 결여되었던 ‘청주아리랑’이 중국 및 한국 학자들의 끊임없는 추구 끝에 음성 자료와 악보 등 다양한 저장 방식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은 민족 음악학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을 음악학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요해하고, 가장 선진적인 기술과 수단으로 보존·정리하며, 사회 보급의 차원에서 더욱 널리 인지되도록 촉진함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자원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참고문헌>

- 김성희(2004), 「조선족 민요의 형성과 음악적 특성」, 『중국 조선족 문화와 ‘청주아리랑’』, 집문당
- 이보형(1997), 『아리랑 소리의 根源과 그 變遷에 관한 音樂的 研究』, 한국민요학(5)
- 임영상, 황영삼 외(2005),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안상경(2008), 『‘청주아리랑’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인문콘텐츠(11)
- 김성희(2010), 『조선족 전통예술의 전승기반』, 통일인문학(49)
- 조순현(2003), 『연변지역 <청주아리랑>의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13)
- 임동철 외(2004), 『중국 조선족 문화와 ‘청주아리랑’』, 집문당

청 주 아 리 랑

박선규 창 / 김성희 채보



아 리 랑 --- 아 --- 리 랑 --- 아 --- 라 --- 리 -- 요 ---



아 리 랑 --- 고 ---- 개 로 ----- 날 념 겨 주 게



1. 팔 --- 라 당 팔 라 당 --- 갑 사 나 땡 ----- 기



본 --- 때 도 --- 안 묻 어 서 ----- 사 주 가 왔 ---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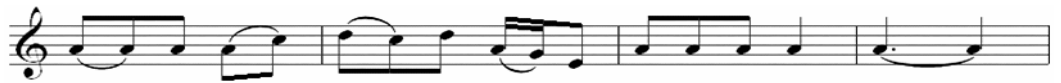
아 리 랑 --- 스 --- 리 랑 --- 아 --- 라 --- 리 -- 요 ---



아 리 랑 --- 스 --- 리 랑 --- 아 --- 라 리 요 ---



2. 사 주 랑 은 받 --- 아 서 --- 무 릎 에 놓 ----- 고



한 --- 숨 만 --- 쉬 --- 어 도 ----- 동 남 풍 된 다



아 리 랑 스 --- 리 랑 --- 아 --- 라 리 --- 요 ---



아 리 랑 --- 고 --- 개 로 ----- 날 ---- 념 겨 주 소

「조선족 민요의 전승현황과 자원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윤정(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중국땅에서의 청주아리랑과 음악적 특징 고찰」(2004) 이나 「조선족 전통예술의 전승 기반」(2010) 등의 논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발표자 선생님은 <청주아리랑>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발표문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발굴 과정과 전승 현황 및 가사·음악적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청주아리랑>의 자원화 방안 더 나아가 조선족 민요의 자원화 방안을 살펴본 글입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p. 8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서방님으로서 가장 그리운 님을 주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고조 부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절절한 그리움과 동경의 심정과 함께 음악적 정서표현을 절정으로 끌어간다. 이를 ‘청주아리랑’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 색채의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요의 가사는 즉흥적으로 지어 부르며, 기존의 가사도 상황에 따라 바꾸어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주아리랑>의 선율에 다른 가사를 얹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음악적 정서보다는 문학적 정서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2. <청주아리랑>에는 선율에서의 동성, 특이적인 조식음의 사용, 가사에서의 상징법, 양성모음의 반복, 변화반복, 반복법 등 수법을 충분히 사용하여 청주사람들의 특이하고도 고귀하며 풍부한 내심세계를 표현하여 또 하나의 충청도 풍격을 형상화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율에서의 동성, 특이적인 조식음의 사용, 가사에서의 상징법은 본문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양성모음의 반복, 변화반복, 반복법은 설명이 없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발표문에 의하면, <청주아리랑>은 <강원도아리랑>과 선율이 유사하지만 <강원도아리랑>에 비하여 <청주아리랑>은 ① 리듬이 단순, ② 음을 길게 뻗고, ③ 퇴성을 사용하지 않아 <청주아리랑>의 느낌은 부드럽고 유장한 악상으로 바뀌며, 이

는 충복의 정서가 표현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래 악보와 같이 <강원도아리랑>에서도 <청주아리랑>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시로 말한 빈 이 시 무 불 대 놓 고	 허 주 아 리 동 백 아 불 적 아 라
 한 술 한 잔 이 어 도 흥 남 흥 만 가	 눈 코 볼 새 주 고 마 되 재 지 울
 아 리 랑 스 리 랑 아 리 랑 요	 아 리 아 리 트 리 트 리 아 리 랑 요
 아 리 랑 고 개 도 남 남 지 주 눈	 아 리 아 리 열 세 구 노 다 죽 세

민요는 주로 후렴을 지니고 있는 유절형식의 노래로, 후렴은 노랫말과 선율이 고정되어 같은 사설과 선율이 반복되지만, 앞소리는 노래 가사가 매번 달라지고 선율도 부분적인 변주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민요의 정체성은 후렴에서 드러납니다. 때문에 <청주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의 앞소리는 가사와 선율이 상이하지만, <자진아리리> 계통의 악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청주아리랑>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계열 아리랑 등과의 비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부〉
주제 : 지역 민요의 지속 보전과 자원화 방안

중국조선족 민요자료의 아카이브 현황과 구축의 필요성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 발표 : **강춘화** (중국연변대학교)

■ 토론 : **홍순일** (목포대학교)

중국조선족 민요자료의 아카이브 현황과 구축의 필요성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강춘화(중국연변대학교)

<목차>

1. 머리말
2. 중국조선족 민요자료의 아카이브 현황
3. 연변지역 민요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4. 맺는말

<국문초록>

이 글은 민요자료 아카이브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다.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 장르 중에서 민요만큼 민족적 특성을 지닌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정서에 맞는 가락에 삶의 기쁨과 애환을 담아 전승되는 것이 민요다. 그러한 민요가 점차 일상에서 멀어지고 변형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민간가곡집성』의 동북3성권과 연변지역에서 수집한 『민요곡집』들의 조선족 민요 수록 상황과 함께 기존 연변지역 민요자료 아카이브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미래의 이상적인 민요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과 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국제적으로 볼 때 아카이브에 대한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연변지역에서는 음악아카이브란 용어가 아직은 생소할 뿐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민요를 발굴하고 수집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점에서 연변지역도 전통음악관련 아카이브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미래 민요문화의 창조와 더불어 민요의 가치 제고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머리말

우리 선조들의 민속 음악 유산 가운데서 가장 많고, 또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요이다. 민요는 노동 생활이나 민속놀이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창조자와 부르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지 않고 대중 속에서 널리 불리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노래들이다. 물론 민요 가운데는 특정인이 대중의 생활 감정을 반영해 창작한 것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구전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은 사라지고 보편적 정서만 남게 되어 집단의 창작물로 전환되게 된다.¹⁾

이주 초기 조선족은 한민족의 전통음악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전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착이후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정착국의 사회체제와 사상, 그리고 문화 속에서 거의 한 세기 반을 서로 다르게 생활해 왔다. 그리하여 중국 조선족은 한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정착국의 상황에 적응하고 현지에서 수용한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된다.²⁾

이제는 민요의 현재 전승과 변화상황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 조선족 민요를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국 조선족 민요 관련 자료는 일정한 곳에 모여 있기도 하고, 한정된 부문에서 소규모의 전통음악 관련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연변지역의 민요자료 아카이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아카이브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상적인 아카이브 설립의 초석으로는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다민족의 문명고국이다. 전국 56개 민족은 기나긴 세월 동안 찬란한 음악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악유산을 축적하였다. 중국 민족음악의 우수한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문화부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중국음악가협회에서는 민간가곡(민요) · 민간기악곡 · 곡예 · 희곡음악 네 가지 민족민간음악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출판하였다. 『중국민간가곡집성』(中国民间歌曲集成)이 바로 그 중 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민간가곡집성』의 동북3성권과 연변지역에서 수집한 『민요곡집』들의 조선족 민요 수록 상황과 함께 기존 연변지역 민요자료 아카이브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미래의 이상적인 민요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과 과제에 대해 서술해 볼 것이다.

1) 김윤호, 『조선의 민속전통-민속음악』, 한국: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65쪽.

2) 김예풍, 『조선족 민요 연구』, 서울: 박이정, 2006, 3쪽.

2. 중국조선족 민요자료의 아카이브 현황

현재 중국조선족의 민요 아카이브 자료는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체계적이고 규모를 갖춘 민요 아카이브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 장에 한정하여 기존 아카이브 자료란 말은 민요의 기록자료 혹은 음원자료로 한정하기로 통칭한다. 현재 전통음악 관련 아카이브 자료의 산재 상황은 민요의 수집과 정리 작업을 통하여 출판된 자료와 비출판 된 자료의 현황과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미 형성된 민요 아카이브 상황에 대해 파악해 볼 것이다.

중국에서는 60년대 초부터 중국음악가협회, 민족음악연구소, 음악출판사 등에서 『중국민간가곡집성』의 편집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10년 대 동란³⁾으로 중단되었으며 원래 수집하였던 자료들도 많이 소실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문화부, 중국음악가협회에서는 1979년 7월에 <민족음악유산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기획안>을 발표하여 중국예술과학기획부문의 허가를 받고 중국 예술과학중점프로젝트로서 『중국민간가곡집성』을 다시 편집하게 되었다. 이 집성의 편집은 대표성 · 문헌성 · 과학성 · 예술성과 높은 수준과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민요가 집성의 지역별 편집 정리과정에서 모두 반영되고 중국 각 지역 민요의 전 모가 모두 밝혀지기를 요구하였다.

『중국민간가곡집성』은 성(省) · 자치구(自治區) · 직할시(直轄市)로 나누어 편집하여 총 31권(臺灣卷 포함)으로 각 지역에서 수집한 대량의 민요 중에서 선별작업을 통하여 한권에 800곡에서 1500곡을 수록하였다. 동시에 민요해설, 분류, 가사의 방언에 대한 해석, 민요에 따른 사진과 도표도 추가하였다. 각 지역별 수록민요에는 녹취록 원본자료가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 조선족 예술집성사업은 세 개 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다. 첫 단계는 건국 후(1949년)부터 1977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기까지이다. 중국 조선민족전통음악 수집사업은 국내 다른 지방에 비하여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당과 정부에서 소수민족의 문화유산 발굴과 계승사업을 중시한 데 있다. 1953년 맨 처음으로 흑룡강성 할빈시, 길림성의 영길현 쌍하진, 서란현 등지에 다니며 민요를 수집하였다. 1954년 49수로 묶어진 『민요곡집』이 처음으로 연변에서 나왔다. 1961년 10월 중앙문화부와 중국음악가협회의 연합통지 정신에 근거하여 연변민간문예연구조가 성립되었다. 하여 계획 있고 절차 있게 우리의 민족문예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조직적 보증이 있게 되었다. 1962년 140여 명의 민간예인과 수집일군이 연변호텔에 10일간 주숙하면서 민요가창과 수집활동을 진행하였다. 1962년 초 연변민간문예연구조에서는 수집조를 요녕성 심양시 서탑구, 신희툰, 소가툰, 만용툰, 개현, 대정 융황성, 흑룡강성의 상지

3) 10년 대동란:1966~1976년 사이 문화 대혁명으로 인한 재난.

하동향, 오상현 민락촌, 길림성의 서란, 평안, 돈화현의 임강, 현유, 대구, 소구 등 지역을 다니며 대량의 조선족 민요, 구전동요와 혁명가요들을 발굴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족 민요 180수를 묶은 『민요곡집』, 혁명가요(항일가요) 구전동요 80수를 묶은 『혁명가요와 동요곡집』을 등사본으로 내놓았다. 한편 용정시, 훈춘시, 화룡시 등 각 현시들에서도 민간음악을 발굴하는 열조를 일으켰는데 "문화대혁명"이전에 연변지방에서 수집된 민간음악만 하여도 800여 수에 달했다. 이 시기 연변예술학교의 교재편집위원회에서는 『조선민요집』 1집부터 5집까지 편찬하였다. 연변 지역 민간음악의 발굴과 수집이 이 같이 성세호대하게 진행되어 성정부와 중앙정부의 큰 중시를 일으켰다. 중앙에서는 연변에서 전국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절차 있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을 때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민간음악 발굴 수집 사업 현장회의는 취소되었다. "문화대혁명"기간 수많은 민간예인과 수집일군들이 잡귀신으로 몰려 박해를 받았으며 수많은 자료, 노래집, 악기, 공예품 등 귀중한 민족유산들이 소각되고 소실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대동란 후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재발굴, 재수집 단계이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1977년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국의 주최로 "민요가창대회"를 조직하여 30여 수의 조선민족민요를 불러 조선민족민요의 해방을 선고했다. 1978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사무위원회, 중국음악가협회에서 연합으로 문건을 내려 2000년 전에 전국에서 민족의 민간음악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예술을 집성하여 출판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집성권들로는 『중국민간가곡집성』, 『중국구연음악집성』, 『중국민족민간기악곡집성』, 『중국민족민간무용집성』, 『중국희곡음악집성』, 『중국희곡지』, 『중국구연지』, 『중국민간이야기집성』, 『중국가요집성』, 『중국속담집성』 등 10부로 구성되었다. 1979년 연길시에서 3회 의 "민요가창음악회"를 개최하여 3000여 명의 관중들에게 우리 조선민족 민간음악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이 "민요가창 음악회"기간 『민요가사편』 3권을 발간하였으며 60여 수의 민요를 연변인민방송국에서 녹음하였다. 1978년부터 1981년 6월까지 민간음악 수집일군들은 길림, 통화, 연변 등지의 11개 현, 55개 마을의 조선민족민간예인 380명을 찾아 500여 수의 민요를 녹음, 수집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400여 수의 조선민족 민요집성초고를 편집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로부터 2000년 기간 민간예술의 보충수집과 정리, 편집출판단계이다. 길림성 조선민족의 예술집성사업은 1990년 이전 앞 두 개 단계는 주로 노민간예인을 찾아가고 모셔오는 방법으로 발굴을 중심으로 녹음하고 수집하여 자료를 풍부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1990년 후의 세 번째 단계로부터는 주로 중앙집성 총부의 "녹음과 기보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대한 반복적인 수정, 재녹음 등 많은 세밀한 편집 과정들이 진행되었다. 1990년 길림성 조선민족 민요분류에 대한 재토론회가 연길에서 개최되어 조선민족 민간음악을 체제에 따라 일소리(노동가요), 타령(서정가요), 단가, 장잡가, 풍속의식가, 동요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하였다.⁴⁾ 1996년 1월 『중국민간가곡집성 · 길림권』⁵⁾ 의 조선민족민요의 문자요

악과 민요악보 315수가 최후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997년 9월에 출판되었다.

아래에 『중국민간가곡집성 · 길림권』의 민요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민간가곡집성 · 길림권』 민요 분류표

		분류	대표곡
1	일소리	농전가	<농부가>, <모내기>
		어부가	<어부가>
		림공가	<목도소리>
		공사로동가	<달구소리>
		가무 및 수공업 로동 가운데서 부른 노래	<방아타령>, <베틀가>
2	타령	“아리랑”가요군	<강남아리랑>, <경상도아리랑> 등
		“수심가”가요군	<수심가>, <한탄가> 등
		“난봉가”가요군	<긴난봉가>, <жат은 난봉가>
		“월령가”가요군	<월령가>
		“풍경가”가요군	<닐리리>, <경복궁타령>
3	단가		수궁가 중 <고고천변>, <태평가>
4	장잡가	경기잡가	<선유가>, <제비가>
		휘모리잡가	<륙칠월>, <곰보타령>
		남도잡가	<새타령>, <룩자배기>
		서도잡가	<공명가>, <초한가>
5	풍속의식가	신앙의식요	<성주풀이>, <지신밟기>
		풍속례식요	<혼례식가>, <상여소리>
		륜무가	<강강수월래>
		장사타령	<밤엿타령>, <비단타령>
		장타령	
6	동요	생활요	<비야, 비야>
		유희요	<유희>, <달노래>
		풍자요	<뚜뚜비둘기>, <두껍아>

<표 1>의 『중국민간가곡집성 · 길림권』의 중국 조선족 민요는 음악체제에 따라 일소리 · 타령 · 단가 · 장잡가 · 풍속의식가 · 동요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일소리는 오랜 기간 여러 가지 로동, 생산 과정에서 광범히 불러져 내려온 로동가요를 일컫는 말이다. 일소리는 대부분 구두로 창작되어 가공되고 세련되면서 오늘까

4) 김남호, 『중국조선족 전통음악 · 대중음악론』, 서울: 민속원, 2010. 195-202쪽.

5) 중국민간가곡집성 전국편집위원회, 길림권 편집위원회, 『중국민간가곡집성 · 길림권』, 중국 ISBN 중심출판, 1997년 9월.

지 내려왔다. 그중 현재까지 수집한 3백 여수의 일소리를 노동 장면과 노동 방식의 부동함에 따라 농전가 · 어부가 · 림공가 · 공사로동가 · 가무 및 수공업 노동가운데서 부른 노래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가창 형식과 사회적 기능에 따라 실용성 일소리와 표현성 일소리로 나누었다.

타령은 중국 조선족 민간음악 중에서 그 제재 범위가 가장 넓고 풍격과 형식이 다양하여 대중들에게 제일 많이 불려지고 있는 서정적 민요로서 그 수량도 가장 많다. 민간에서 민요의 명칭, 기악곡의 명칭, 장단의 명칭으로 쓰인 타령이 근대에 와서 서정가요의 대명사적 개념으로 인정되는 이유로 일소리, 단가, 장잡가 등 민요 분류와 상응한 한 개 분류로 나누었다. 또한 타령의 가사 내용으로 “아리랑” 가요군, “수심가” · “난봉가” · “월령가” · “풍경가” 등 가요군으로 분류하였다.

단가는 짧은 노래란 뜻으로 주로 산천 풍월과 역사 전기를 노래한 통절로 된 서정서사 가요 형식을 갖춘 민요이다. 현재 단가는 많이 줄어들어 몇 편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장잡가는 가사가 이야기로 엮어진 서사 민요로서 대부분 역사 인물, 풍경, 민간 전설을 표현한 것으로 지방에 따라 경기잡가, 휘모리잡가, 남도잡가, 서도잡가로 분류하였다. 또한 부르는 형태에 따라 앉아 부르는 좌창과 서서 부르는 립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 장잡가에는 또 조선어 문자 순서와 수자 순서에 따라 사설을 엮어 내려가는 문자 풀이와 수자 풀이로 된 “풀이잡가요”가 있다.

풍속 의식가는 신앙례속, 생활습속, 민속풍정에 관련되는 노래이며, 그 기능과 특징 및 가창 형식에 따라 주로 신앙의식, 풍속례식, 룬무가, 장사타령, 장타령 등으로 분류하였다.

동요는 어린이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 박고 생활의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노래한 것이며 오랜 세월을 거쳐 전승된 것이라 전래 동요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요는 그 제재와 사회적 기능에 따라 생활요, 유희요, 풍자요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부 동요는 아동들의 혁명 생활도 반영하였다.

이상의 분류를 통한 『중국 민간 가곡 집성 · 길림권』에는 일소리 75수, 타령 141수, 단가 5수, 장잡가 29수, 풍속 의식가 38수, 동요 27수로 총 315수의 민요를 수록하였다.

『중국 민간 가곡 집성 · 길림권』 외에도 중국 조선족이 많이 집거된 지역인 흑룡강성과 요녕성에도 『중국 민간 가곡 집성 · 흑룡강권』과 『중국 민간 가곡 집성 · 요녕권』이 출판되었다. 『중국 민간 가곡 집성 · 흑룡강권』은 1997년 12월에 출판되었다. 이 집성에는 흑룡강성의 조선족 전통 민요를 체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타령류, 둘째는 잡가류, 셋째는 민속요, 넷째는 동요이다. 타령류는 내용에 따라 아리랑 타령 6수, 노동 생산 타령 8수, 애정 생활 타령 16수, 생활 오락 타령 2수가 수록되었다. 잡가류는 내용에 따라 애정 생활 가요 16수, 노동 생산 가요 10수, 생활 윤리 가요 5수, 산천

칭송가요 3수, 생활오락가요 3수가 수록되었다. 풍속요는 10수가 수록되고, 동요는 5수가 수록되었다. 『중국민간가곡집성 · 흑룡강권』에는 흑룡강지역의 민요 총 84수가 수록되었다.

『중국민간가곡집성 · 요녕권』은 1995년 12월에 출판되었다. 이 집성에는 요녕성의 조선족 전통민요를 전통습관과 음악체제에 따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소리, 둘째는 타령, 셋째는 장잡가, 넷째는 속요(俗謠), 다섯째는 풍속의식요, 여섯째는 동요이다. 소리는 내용에 따라 농사가 12수, 농부가 7수, 어가(漁歌) 8수, 배노래 5수, 방직요 6수가 수록되었다. 타령에는 내용에 따라 농사가 1수, 수렵가 1수, 고풍가(鼓風歌) 1수, 정가(情歌) 13수, 찬가(讚歌) 8수, 훈유가(訓諭歌) 6수, 풍자가(諷刺歌) 5수, 아리랑 15수가 수록되었다. 장잡가에는 단가(短歌)가 16수가 수록되었다. 속요에는 내용에 따라 풍년가 3수, 찬가 6수, 채힐가(採擷歌) 2수, 방직요 1수, 정가 15수, 부녀요 8수, 훈유가(訓諭歌) 4수, 사념가(思念歌) 1수, 놀리리 3수가 수록되었다. 풍속의식요는 내용에 따라 무가(巫歌) 6수, 장례가 4수, 유예가(遊藝歌) 3수, 주가(酒歌) 4수, 규매가(叫賣歌) 5수, 구걸가 1수가 수록되었다. 동요는 27수가 수록되었다. 『중국민간가곡집성 · 요녕권』에는 요녕지역의 민요 총 197수가 수록되었다.

『중국민간가곡집성』이 출판되기 전 1980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연변음악가협회에서 편집한 355수의 『민요곡집』을 출판하였고, 같은 해 요녕인민출판사에서 553수로 묶여진 대형 『민요곡집』을 출판하였다. 이 외에도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서 380수로 묶여진 『조선족민요곡집』을 내놓았는데 이 민요곡집은 가사가 중국어로 번역되어 두 가지 문자로 구성되었다.

1980년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에서 『민요곡집』⁶⁾이 출판되었다. 이 책에 수록한 민요들은 1950년대로부터 1980년대까지 연변일대와 길림, 요녕, 흑룡강 동북3성의 조선족이 집거한 지역들에서 수집한 것인데 수집지역이 밝혀져 있지 않고 노래한 창자와 수집자의 성함만 밝혀졌다. 이 책에서는 민요를 노동가요, 생활풍속가요, 서정가요, 서정서사가요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노동가요 113수, 생활풍속가요 97수, 서정가요 110수, 서정서사가요 35수로 총 355수의 민요가 수록되었다.

1982년에는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서 편집한 『조선족민요곡집』⁷⁾이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연변지역의 민요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길림성 내 기타 조선족집거지역의 민요도 일부 수집하였고 민요의 제목과 수집지역이 정확히 밝혀져 있고 창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민요를 노동가요, 서정가요, 서사가요, 아동가요, 혁명역사가요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노동가요 99수, 서정가요 167수, 서사가요 22수, 아동가요 23수, 혁명역사가요 69수로 총 380수의 민요가 수록되었다. 이 민요곡집의 특징적인 부분은 제목과 가사를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여 두 가지 문자로 구성이 되어

6)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0년.

7) 연변문학예술연구소 편집, 『조선족민요곡집』, 등사본, 1982년.

있는 것이다.

2008년 김봉관은 중국조선족들속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는 민간음악을 수집하여 『중국조선족 민간음악집』⁸⁾을 출판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세 차례의 민간예술 발굴, 수집, 정리,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50년대와 60년대에 있는 두 차례의 민간예술발굴사업에서 60여개 현시와 200여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5,000여명의 민간예술인을 방문하였으며 세 번째로 되는 발굴사업에서는 1978년부터 1986년까지 150여개 현, 시의 300여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예술인들을 5,000여차 방문하였다. 연변주의 민간문예사업자들은 세 차례의 수집, 정리 과정을 거쳐 도합 3,000여수의 민요, 판소리를 청취하고 1,000여 수의 민요, 판소리를 수집, 정리하였다. 『중국조선족 민간음악집』은 민요를 노동요, 서정세태요, 서사요, 풍속의식요, 신민요 및 민요풍의 가요, 구전동요, 시조, 판소리편단, 배뱅이굿, 창작판소리, 항일가요의 11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노동요 147수, 서정세태요 494수, 서사요 60수, 풍속의식요 51수, 신민요 및 민요풍의 가요 90수, 구전동요 29수, 시조 2수, 판소리편단 22수, 배뱅이굿 1수, 창작판소리 3수, 항일가요 139수로 총 1038수가 수록되었다. 이 책에서는 11가지로 분류된 가요에 주해를 추가하여 일부 민요에 대한 해석과 수집 지역, 창자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이상은 이주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전승되고 불려진 민요에 대한 수집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50년대의 49수로 묶어진 『민요곡집』으로부터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진 대형집성자료에 수집된 삼백여수를 민요들에 이어 직접 현장 민요수집을 다니며 수십년간 수집해온 천여수의 민요를 『중국조선족 민간음악집』펴낸 김봉관의 민요집은 현재까지 민요자료보존에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요곡집의 출판은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녹음자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연변지역의 조선족 전통음악관련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연변주문화국 소속단체인 <문화예술연구중심>뿐이다. 이 문화예술연구중심은 2006년에 연변주창작평론실 · 중국민족민간집성반공실 · 최옥주무용연구소 · 악기연구소 · 문학과 예술 이 다섯 개의 단체가 합병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이 연구중심의 주요업무 범위는 무형문화재관리이다. 이 연구중심의 전통음악 아카이브는 중국민족민간집성반공실에서 집성편집사업의 수요로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녹음자료와 기록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변지역의 전통음악 아카이브의 역사도 시작된 것이다.

음악을 비롯한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유기적인 환경이 바뀌면 무형문화유산을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스스로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모하기 마련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이런 특

8) 김봉관, 『중국조선족 민간음악집』, 연변인민출판사, 2008년.

성으로 말미암아 각종 시청각매체를 활용하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하고, 이 기록자료는 체계적 · 과학적인 방법으로 반영구적으로 보존되어 후세에 물려줘야 할 것이다.⁹⁾

그러나 본 연구자가 문화예술연구중심의 방문을 통해 조사한 민요자료의 아카이브 현황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이다. 이 연구중심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중국민족민간집성을 편집할 때 수집한 음원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8년 전인 2009년까지 연구중심의 관리자가 자료관리 차원에서 하는 작업 중 하나가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씩 돌려주는 일이었다. 카세트 테이프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테이프 자체가 손상되거나 테이프가 접착되거나 끊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정부의 지원을 신청하여 중국민족민간가곡집성에 수록된 315수의 카세트 테이프를 콤팩트디스크에 저장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 민요자료의 관리상황을 보면 세밀한 분류와 재정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70년대 국가문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중국음악가협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민요수집 작업 당시 사용되었던 "601"표녹음기와 테이프 2개가 아직도 고물딱지처럼 방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20키로가 넘는 이 녹음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아직은 돌아가기는 하지만 테이프가 군데군데 끊어졌고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음원수집 당시 3000여수의 민요를 녹음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김봉관의 『중국조선족 민간음악집』에 1500여수가 복원되었다고 해도 아직 절반이상 되는 녹음자료가 미복원 상태에 있는 것이다.

3. 연변지역 민요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음악아카이브(music archive)란 음악학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시청각자료 및 이와 관련된 물질자료를 보존 · 이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기구를 의미한다.¹⁰⁾ 전통음악 관련 아카이브는 여타 아카이브와 달리 "전통음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문"이라는 주제로 한정되는 만큼 일종의 전문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전문아카이브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일단 전통음악 전문 아카이브에서 다루는 자료는 전통음악과 관련된 비출판물 자료인 시청각자료가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¹¹⁾

한국에서의 선행연구 결과, 그간 다양하게 주제아카이브에 관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실제 구축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한국 국내 32개의 공공아

9) 이용식, 「전통음악유산과 음악아카이브-국립국악원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국립국악원논문집』 19집.(서울: 국립국악원, 2009), 6쪽 참조.

10) 이용식, 앞의 글, 6쪽.

11) 권도희, 「전통음악 전문 아카이브 네트워크」, 『국립국악원논문집』 제18집 (서울: 국립국악원, 2008), 6쪽 참조.

카이브와 22개 사설아카이브, 총 54개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 대상 기록물에 일부로 민요를 포함하거나 민요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이브는 모두 11개였다.¹²⁾

우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민요의 뛰어난 가치를 고려할 때 민요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추진은 중국의 조선족들이 이주기로부터 개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수집, 보관, 관리가 이루어져 온 민요관련 기록물들의 통합적이고 체계적·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존되어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문화예술연구중심>에 보관되어 있는 70년대 전후의 전통음악 자료들은 중국 조선족의 향토문화를 그대로 지닌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 중에는 이주기부터 70년대까지 조선인들이 중국에 정착하는 동안 부른 민요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민요자료들을 통해 한민족의 민요가 중국에서의 지역적 분포와 전승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은 민요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원초적인 자료들에 속한다.

민족음악학에서 녹음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는 이 학문의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후 민족음악학은 살아있는 음악전통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특성상 현지조사를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연구단계로 여겼고, 현지에서 수집된 녹음·영상 자료는 향후의 음악적 분석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의 와중에 사라져가는 음악유산을 녹음·보관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것은 초기 민족음악학자들에게는 의무로 여겨졌다. 이렇게 녹음자료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현지에서 수집한 녹음자료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보관하는 아카이브의 존립은 20세기 초부터 민족음악학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¹³⁾

현재 연변 문화예술연구중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요자료의 아카이브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승한다는 목적 하에 근본적으로 자료의 보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요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아카이브 하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기초적인 작업으로, 이는 연구의 기반과 활용으로 확장될 수 있다. 때문에 기존의 소규모 녹음자료로 이루어진 민요 아카이브를 기초로 하여 국가적 지원과 전문인력을 투여한 체계적인 아카이브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이런 민요자료의 아카이브는 문화예술연구중심에 한해서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연변지역의 여러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에서 모두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한 아카이브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민요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가장 현대기술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가 생산 및 저장되고 유통되며, 이를 토대로 문화적인 산업물들이 생

12) 김정수, 「민요박물관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 『溯上古典研究』제5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년, 93쪽 참조.

13) 이용식, 앞의 글, 7쪽.

산되는 정보산업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단순히 아날로그 자료의 수집차원에서 벗어나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아카이브 기술체계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한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일련의 노력들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은 자원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재창조할 수 있는 순환적인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자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4. 맺음말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 장르 중에서 민요만큼 민족적 특성을 지닌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정서에 맞는 가락에 삶의 기쁨과 애환을 담아 전승되는 것이 민요다. 그러한 민요가 점차 일상에서 멀어지고 변형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아카이브에 대한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세계화의 와중에서 사라져가는 자국의 음악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음악아카이브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연변지역에서는 음악아카이브란 용어가 아직은 생소할 뿐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민요를 발굴하고 수집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룬 『중국민간가곡집성』은 중국에서 민족의 민간음악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예술을 집성한 대형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 역사적 기록물로서 세계적 표준에서 다룰 수 있는 자료는 물론이고 민족의 특수성도 보존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요의 기록방식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오선보가 아닌 수자보(간자보)로 기보되었고, 조선족 민요의 제목과 가사가 모두 중국어로 번역되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후세의 민요연구자들로 하여금 유용한 민요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보아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규모 민요 아카이브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문화예술연구중심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재 소장하고 있는 음원자료들의 복구 작업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국가적인 지원과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민요자료 아카이브의 분류방식, 수집 목표, 자료 보관과 활용의 방식에 있어서 모두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민요는 대중성과 민중성이 두드러진 전통예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민요를 발굴하고 수집 ·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민요 자료의 아카이브를 통해 미래 민요문화의 창조와 더불어 민요의 가치 제고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중국민간가곡집성 전국편집위원회, 길림권 편집위원회, 『중국민간가곡집성 · 길림권』, 중국 ISBN 중심출판, 1997년 9월.
- 중국민간가곡집성 전국편집위원회, 흑룡강권 편집위원회, 『중국민간가곡집성 · 흑룡강권』, 중국 ISBN 중심출판, 1997년 12월.
- 중국민간가곡집성 전국편집위원회, 요녕권 편집위원회, 『중국민간가곡집성 · 요녕권』, 중국 ISBN 중심출판, 1995년 12월.
- 연변음악가협회, 『민요곡집』,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80년.
-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조선족민요곡집』, 등사본, 1982년.
- 김윤희, 『조선의 민속전통-민속음악』, 한국: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년.
- 김예풍, 『조선족 민요 연구』, 박이정, 2006.
- 김남호, 『중국조선족 전통음악 · 대중음악론』, 서울: 민속원, 2010년.
- 김봉관, 『중국조선족 민간음악집』, 연변인민출판사, 2008년.
- 이용식, 「전통음악유산과 음악아카이브-국립국악원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국립국악원논문집』 19집. 서울: 국립국악원, 2009년.
- 권도희, 「전통음악 전문 아카이브 네트워크」, 『국립국악원논문집』 제18집 서울: 국립국악원, 2008년.
- 김정수, 「민요박물관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 『溯上古典研究』제51집, 서울: 열상고전연구회, 2016년.
- 김인숙, 「토속민요 자료 수집을 위한 방안-디지털 민요박물관의 설계를 위한 논의에 부쳐」, 『溯上古典研究』제5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년.
- 서해숙, 「진도아리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설계」, 『인문콘텐츠』제29집, 서울: 인문콘텐츠학회, 2013년
- 이상현, 「민속아카이브의 정리 방법과 민속학 연구-독일민속학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제54집, 서울:한국민속학회, 2011년.

MEMO

MEMO

MEMO

